

그분은 잃었던 자신의 왕국을
되찾고 계신다

영광의 왕

KING of GLORY



글
폴 D. 브람슨

번역
김 현 경

그림
아르민다 산 마틴

영광의 왕

글: 폴 D. 브람슨 · 번역: 김 현 경 · 그림: 아르민다 산 마틴

발행인: 이 상 호 · 편집인: 김 창 현 · 발행처: 도서출판 밀스톤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96 정우빌딩 3층

전화: 063-288-8523

초판발행일: 2017년 6월 15일

Copyright © 2011, 2015 ROCK International. All rights reserved.

ISBN: 978-89-965593-4-4

저자에 대하여: 폴 D. 브람슨은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습니다. 폴과 그의 아내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에서 세 아이를 양육했습니다. 세네갈은 사하라 끝에 있는, 국민 대부분이 무슬림인 나라입니다. 브람슨은 전 세계에 있는 독자들을 위해 연대 순으로 성경의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새롭게 다시 썼습니다. “THE WAY OF RIGHTEOUSNESS” (의로운 길- 100여개의 언어로 방송되는 100회 분량의 라디오 시리즈)와 “ONE GOD ONE MESSAGE” (진리를 찾는 회의론자들이 어려워 하는 문제들을 짚어 주어 하나님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 책으로, 12개의 언어로 번역됨) 등의 브람슨의 글은, 성경에 대한 열망과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pdbramsen@rockintl.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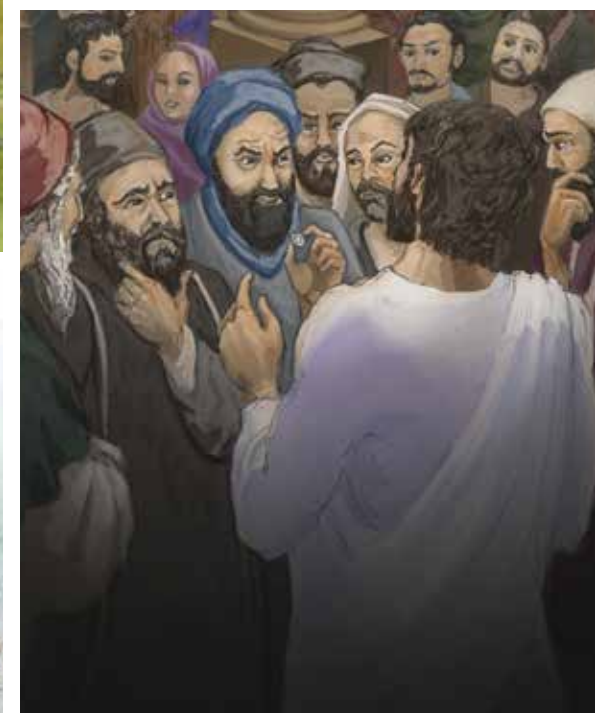
번역자에 대하여: 김현경은 초등 교육과 영어 교육을 전공하고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다가, 결혼 후 캐나다 NTM(New Tribes Mission)에서 훈련받고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잃어진 영혼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 방문했던 선교지 아이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세 딸의 엄마가 되어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을 그들에게 전해줄 지 고민하며 기도해 왔어요. 미국에서 열린 선교대회에 참석했다가 ‘영광의 왕’ 책을 만났어요. 아이들에게 매일 밤 읽어주고 싶은 책이란 생각이 들어 그 선교대회의 강사였던 저자에게 번역 허락을 받았어요. 이 책이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진 한국의 크리스찬 부모들에게 좋은 선물이 되며, 또한 참된 진리를 찾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중하게 전해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삽화가에 대하여: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르민다 산 마틴은 이렇게 썼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아내와 엄마가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전념하느라 그리는 일을 얼마간 쉬었지만, 다시 순수 예술 분야에서 학위를 따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90년대에 몇 년간 머물렀던 뉴욕에서 여러 기법들을 연구했고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는 여러 책들의 삽화 작업을 하면서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을 기회를 가졌는데, 대부분 자연이나 영성에 관련된 책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재능은 ‘영광의 왕’을 그리는 데 쏟아냈습니다. 제게 있어 이 프로젝트는 일생에 단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꿈이 실현된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어떻게 감사 드려야할지 모르겠어요. 또한 폴 브람슨에게도 감사드립니다. 그는 영감있는 작가이면서 뛰어난 편집자입니다. 이 마지막 결실을 이뤄낼 수 있도록 그에게 지식을 주시고 끊임없이 인도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르민다는 현재 여러 출판사에서 삽화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armisanmartin@yahoo.com,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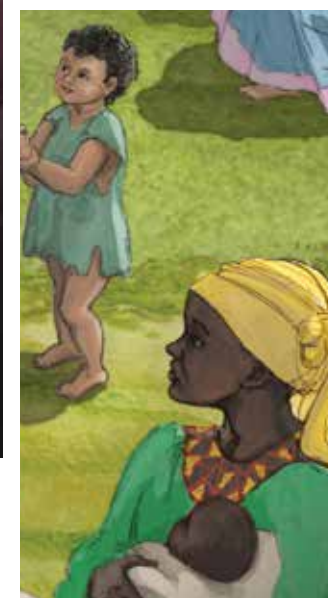


왕께 영광을,
각 나라에 있는 모든 연령대의 어린이들에게
축복이 있기를



“안전이라고요? 누가 안전하다고 했죠? 당연히 안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좋은 분이세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분은 왕이신걸요.”

-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 C. S. 루이스



차례

그림 뒷 이야기	8
들어가기	11
1 • 왕과 왕국	
2 • 왕과 선지자들	
3 • 왕과 우주	
제 1부 자기 계획을 예언하는왕	19
4 • 첫째 날	창세기 1장
5 • 완전한 세상	창세기 1-2장
6 • 첫 사람	창세기 1-2장
7 • 완전한 집	창세기 2장
8 • 죄와 죽음의 법	창세기 2장
9 • 첫 번째 여자	창세기 2장
10 • 빛의 왕국	요한계시록 4-5장
11 • 어둠의 왕국	이사야 14장; 에스겔 28장
12 • 뱀	창세기 3장
13 • 선택	창세기 3장
14 • 죄와 부끄러움	창세기 3장
15 • 영적인 죽음	창세기 3장
16 • 저주	창세기 3장
17 • 약속	창세기 3장
18 • 첫 번째 희생	창세기 3장
19 • 쫓겨나다	창세기 3장
20 • 최초의 자녀들	창세기 4장
21 • 죄인들의 예배	창세기 4장
22 • 속죄제의 법	창세기 4장
23 • 받으심과 거절하심	창세기 4장
24 • 첫 살인	창세기 4-5장

25 • 인내와 심판	창세기 6-7장
26 • 새로운 시작	창세기 8-9장
27 • 교만의 탐	창세기 11장
28 •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창세기 12장
29 • 약속을 지키시는 분	창세기 15장
30 • 극한의 시험	창세기 22장
31 • 죽기로 되어있는 아들	창세기 22장
32 • 예표와 예언들	창세기 22장
33 • 믿음직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9-20장
34 • 십계명	출애굽기 20장
35 • 더 많은 예표들	출애굽기 20, 24장
36 • 더 많은 예언들	시편과 선지서들
제 2부 -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왕 87	
37 • 계속되는 왕의 이야기	마태복음 1장
38 • 마리아 이야기	누가복음 1장
39 • 요셉 이야기	마태복음 1장
40 • 오심	누가복음 2장
41 • 목자들 이야기	누가복음 2장
42 • 동방박사 이야기	마태복음 2장
43 • 완전한 아이	누가복음 2장
44 •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복음 1장
45 • 완전하신 아들	마태복음 3장
46 • 둘째 사람	마태복음 4장
47 • 메시아 왕	누가복음 4장
48 • 귀신들과 질병을 다스리심	누가복음 4장
49 •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심	마가복음 4장
50 • 죄를 다스리심	마가복음 2장
51 • 죽음을 다스리심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1장
52 • 공급자	요한복음 6장
53 • 선생님	마태복음 5-7장

54 • 왕의 위엄	마태복음 17장
55 • 왕의 사명	마태복음 16장, 20장
56 •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왕	마가복음 11장
57 • 질문을 받으신 왕	누가복음 20장
58 • 체포된 왕	마가복음 14장
59 • 사형선고를 받은 왕	요한복음 18장
60 • 가시관을 쓰신 왕	마태복음 27장
61 • 십자가에 못 박힌 왕	누가복음 23장
62 • 구원자 왕	누가복음 23장
63 • 마지막 제물	마태복음 27장
64 • 무덤에 묻힌 왕	마태복음 27장
65 • 빈 무덤	마태복음 28장
66 • 선지자들이 말해준 것	누가복음 24장
67 • 변화된 몸	요한복음 20장
68 • 떠나심	사도행전 1장
69 • 승리의 기념식	시편 24편; 요한계시록 5장
70 • 다시 오시는 왕	요한계시록 19-22장
끝 마치기 157	
•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다고요?	
• 나쁜 소식	
• 좋은 소식	
• 왕께 드리는 답변	
특집 167	
• 다시 보기 질문	
• 주	
• 더 깊이 나아가기	
• 동영상 안내	

그림 뒷 이야기

앨리스는 언니와 함께 강독에 앉아 있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자니 점차 몹시 지루해졌다. 언니가 읽는 책을 한두 번 결눈질해 보았지만, 그림도 없고 대화도 없는 책이다. “이런 책을 어디다 쓴담. 그림도 없고 대화도 안 나오잖아?”하고 앨리스는 생각했다.

— 루이스 캐롤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의 첫 부분에서, 1865

여러분이 읽게 되는 책은 그림과 대화로 가득 차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와 같은 고전 판타지 동화와는 달리, 영광의 왕에 나오는 그림과 대화들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합니다.²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이야기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도 중요한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다는 것이 약간 망설여지기는 했습니다.

몇 년 전, 서아프리카 지역에 살고 있을 때,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한 강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 첫째 날, 교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라디오가 텔레비전보다 더 나은 점은 무엇일까요?” 교수님의 말에 모두 놀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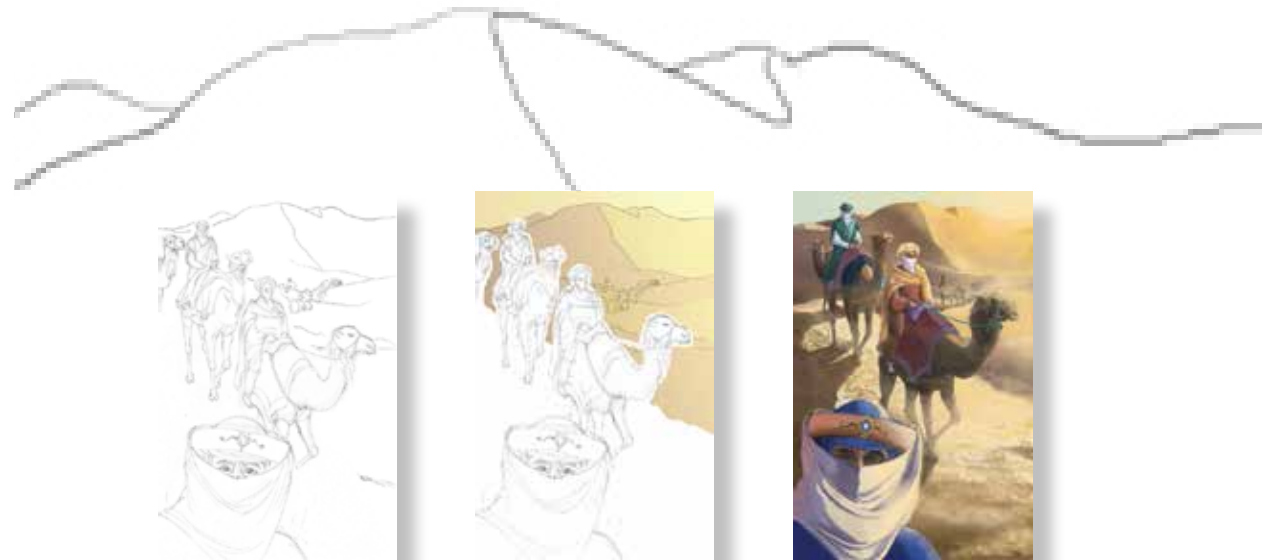
“더 좋은 그림을 보여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수십억을 들인 대작 영화라도 간단한 단어들을 마음속의 생생한 이미지로 바꾸는 사람의 능력을 대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선지자들이 쓴 고대의 성경은 마치 수백 장의 그림을 보여주듯 생동하는 문장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떤 영화라도 그만큼 보여줄 수 없고, 어떤 예술작가도 그렇게 충분히 그려낼 수 없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다는 것을 잘 압니다. 어떤 예술작품이라도 이 위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묘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일은 정말 신나는 도전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온 아르민다 산 마틴은 재능 있고 은혜가 넘치는 예술가입니다. 아르민다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옮기는 정교한 작업을 놀랍게 잘 해냈습니다. 디지털 펜과 붓으로 밑그림부터 마지막 색칠작업을 마무리하는 데까지 14개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녀의 수고에 감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중간부터인가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시작하지요. 처음부터 시작해야만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전개되고, 결말로 잘 연결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의 글은 수백 개의 짧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데,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함께 적절하게 들어맞아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저는 영광의 왕을 쓰면서, 마치 어떤 정원사가 꽃들이 수없이 피어있는 넓디넓은 정원에 들어가서는 꽃 몇 송이를 뽑아내어 그 정원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는 꽃다발 한 묶음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 책을 위해 저는 성경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골라 인류의 역사 가운데 자신을 계시하신 왕의 영원한 영광을 드러내고자 칠십 장면의 드라마로 정리했습니다.

주께 기도드리는 것은, 실제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말해주는 이 책을 통해, 모든 연령의 독자들이 감동을 받아 선지자들의 글을 즐겁게 읽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분과 사랑에 빠지기를, 그래서 영원히 행복한 나라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그림을 위해서,

Paul D. Branner



어가기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이 붓끝과 같도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 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 선지자들이 쓴 성경에서 (시편 45:1,4)



장면 1 왕과 왕국

아주 오래 전, 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한 왕이 계셨어요.
영광의 왕이었어요.

이 왕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예요. 끝없는 영원 속에서 그분은 유일한 왕이셨고, 그분의 왕국은 완전한 지혜, 사랑, 기쁨, 평화가 있는 유일한 나라였어요. 그 왕국에는 왕 자신이 빛이셨기 때문에 해나 별이 필요 없었어요.

그 왕국의 크기는 제한이 없었지만, 왕국의 백성이 되는 데는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왕에게 백성이 한명도 없다고 말하기도 해요.

정말일까요?

왕에게는 오랜 신비 하나가 있었는데,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은 그분의 삶을 다른 지적 존재들과 함께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 선하고 지혜로운 왕은 천사라고 부르는, 수 없이 많고 눈부시게 아름다우며 초지성적인 영적 존재들이 있는 하늘나라를 만드셨어요. 그분은 모든 천사들의 이름을 다 아셨고 천사들도 그분을 알기 바라셨어요. 왕과 함께 하는 삶은 멈추지 않는 모험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왕은 천사들보다 더 나은 존재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라는 놀라운 창조물들이 살게될 빛나는 행성을 가진 우주, 즉 시간과 공간 그리고 물질로 된 세계를 창조하셨어요.

천사들과는 달리, 사람의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두사람으로 시작되었어요. 왕은 천사들에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과도 함께 삶을 나누고 싶으셨어요.

그때 아주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너무나 끔찍했어요. 그 왕국에서 반란이 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늘에서, 다음에는 땅에서 일어났어요.

반란을 일으킨 한 천사가 사람들을 속여서 땅에 있는 왕국을 빼앗았어요. 하지만 왕은 조금도 놀라지 않았어요.

왕의 마음 속 깊은 곳에는 아주 위대하고, 신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원대한 구원 계획이 있었어요. 수천 년이 걸려서라도 왕은 그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이 일이 영원하신 왕께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예요.

그분은 시간을 넘어서 살아계시는 분이예요.



장면 2 왕과 선지자들

왕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대해서 알려면 그분의 책을 알아야만 해요.

왕은 자기에 관한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 15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약 40명의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예요. 왕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베껴 쓰고, 돌려가며 읽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었어요. 선지자들은 대부분 서로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의 글은 한 가지 일관된 이야기와 말씀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선지자들의 글이 바로 성경이에요. 만약 성경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이에 대해 올바른 해답을 알려면 왕의 책이 필요해요.

약 3,500년 전에 왕이 모세라는 한 선지자를 부르셔서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명기 8:3 개역개정)

지금 이 왕의 말씀들은 한권의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에서 성은 거룩하다, 따로 떼어 놓았다는 뜻이고, 경은 책, 책들의 모음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가장 많이 번역되었어요. 수없이 많은 파피루스와 가죽 두루마리들은 이 모든 고대 문서들이 최상의 상태로 보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³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구약성경(모세오경, 시편 등)으로 왕이 자기 계획을 미리 말씀하시는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신약성경(복음서, 사도행전 등)으로 왕이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부분이에요.

약이라는 말은 약속, 계약, 합의라는 뜻이에요. 구약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미리 말하고 있고, 신약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기록하실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여러분에게 어떤 높은 왕이 편지나 사진을 보내주는 것과 그 왕이 여러분을 직접 찾아 온 것과 같은 차이예요.

성경은 처음에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전해졌고, 나중에 미국과 또 다른 지역으로 전해졌어요. 선지자들은 중동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쓴 이야기와 말씀은 모든 민족들을 위한 거예요. 모든 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장면 3 왕과 우주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과거로,
과거로,
아주 먼 과거로,
사람도, 행성도, 별들도 생기기 전으로 여행할 수 있다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에 들어
있는 능력과 영광을 목격할 수 있을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창세기 1:1 개역개정)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멋진 것들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창조주와 상관없이 생겨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은 우주의 복잡한 설계와
규칙적인 질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요.

왕은 자기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시편 19:1 개역개정)

여러분의 손을 보면서 말해 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움직여 보세요. 그 엄지손가락 없이
책이나 빗자루 또는 망치를 잡아보세요. 이번에는 손톱과 손마디와 피부를 살펴보세요.
여러분이 손으로 하고 있는 중요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장인이 이렇게 멋진
도구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수십억이 넘는 은하계를 만들려면 어떤 지혜와 능력이 있어야 할까요? 수백만 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세포 하나를 창조하려면? 그 세포 속에 있는 유전정보를 담은
미세한 끈들을 엮어 여러분을 여러분답게 만들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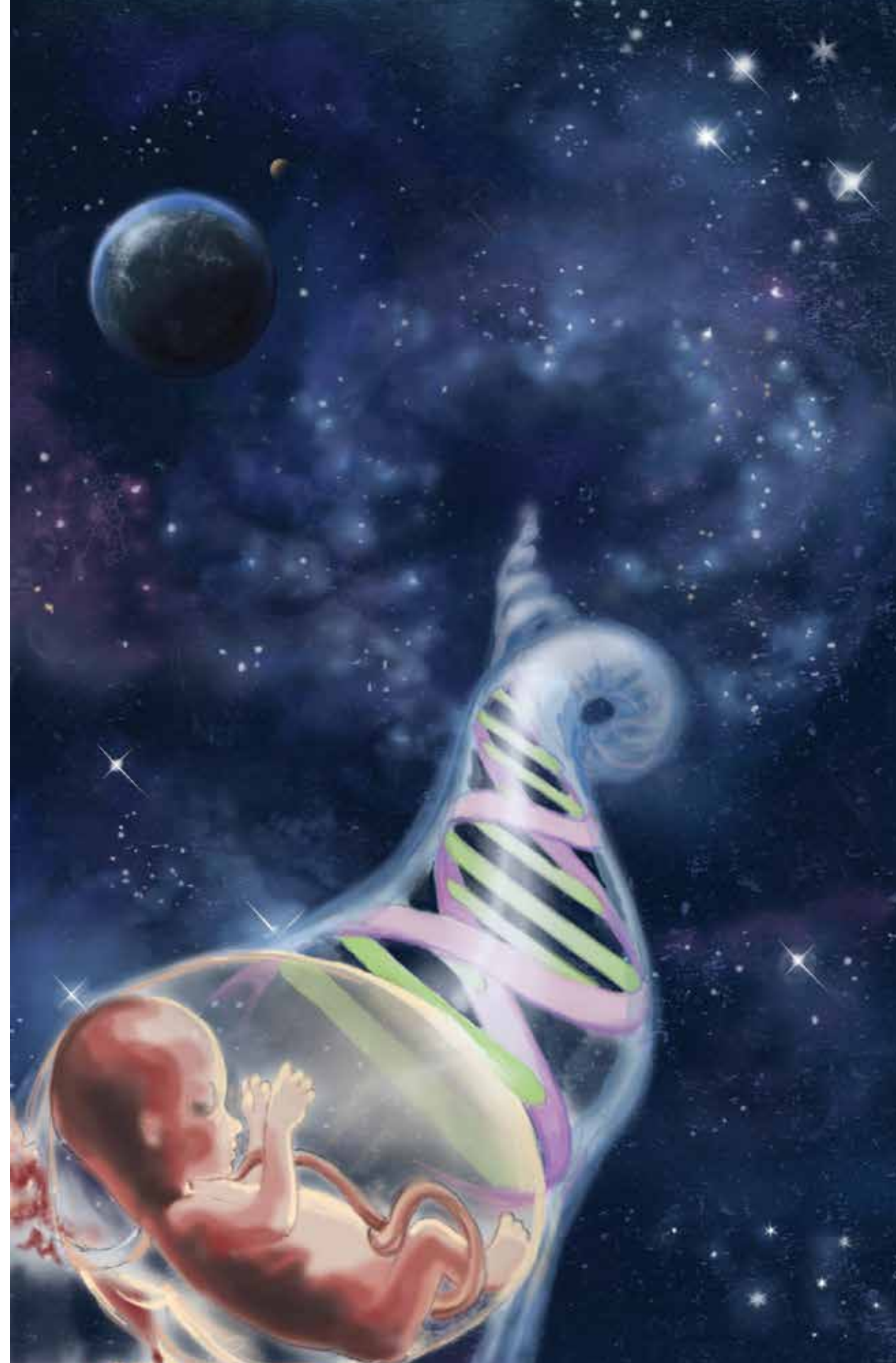
3천 년 전에 선지자이면서 왕이었던 다윗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께서...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이는 내가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시편 139:13-14 쉬운성경)

여러분을 만드신 분을 만나고 싶은가요? 많은 은하를 만드신 주인과 함께 영원히 살고
싶은가요? 할 수 있어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세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마을 사람들도 그분을 알 수 있기를 바라세요.
여러분이 그분의 계획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높으심을 바라보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초대하고 계세요. 하지만 여러분을 억지로 그분의
백성이 되게 하지는 않으세요.

그분은 평범한 왕이 아니에요. 진정한 왕이요, 영광의 왕이세요.

이 책은 바로 그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1부

자기 계획을
예언하는
왕

— 구약 성경 —



장면 4 첫째 날

하나님의 책은 왕답게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만을 말씀하고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시니라(창세기 1:1 개역개정)

우리가 보고 만지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지만 우주의 창조자이자 주인이신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분은 동시에 모든 곳에 계실 수 있는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영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보시며 알고 계세요.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에게는 많은 이름이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책을 쓸 때 사용된 말인 여호와라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창조 이야기는 지구의 첫 모습에 대해 왕이 설명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이 깊은 물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습니다(창세기1:2 쉬운성경)

이제 사람들이 살 행성을 마련할 때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하시니 빛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어둠과 나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그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다(창세기 1:3-5 우리말성경)

창조 첫째 날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빛에게 어둠을 가르라고 명령하셨어요. 나중에 태양이 세상을 비추게 될 것이지만 첫째 날에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빛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 주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 하나님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요한일서 1:5 우리말성경)

하나님은 빛처럼 깨끗하세요. 더러워질 수 없어요. 빛이 아주 더러운 것에 비춰지더라도 빛은 깨끗해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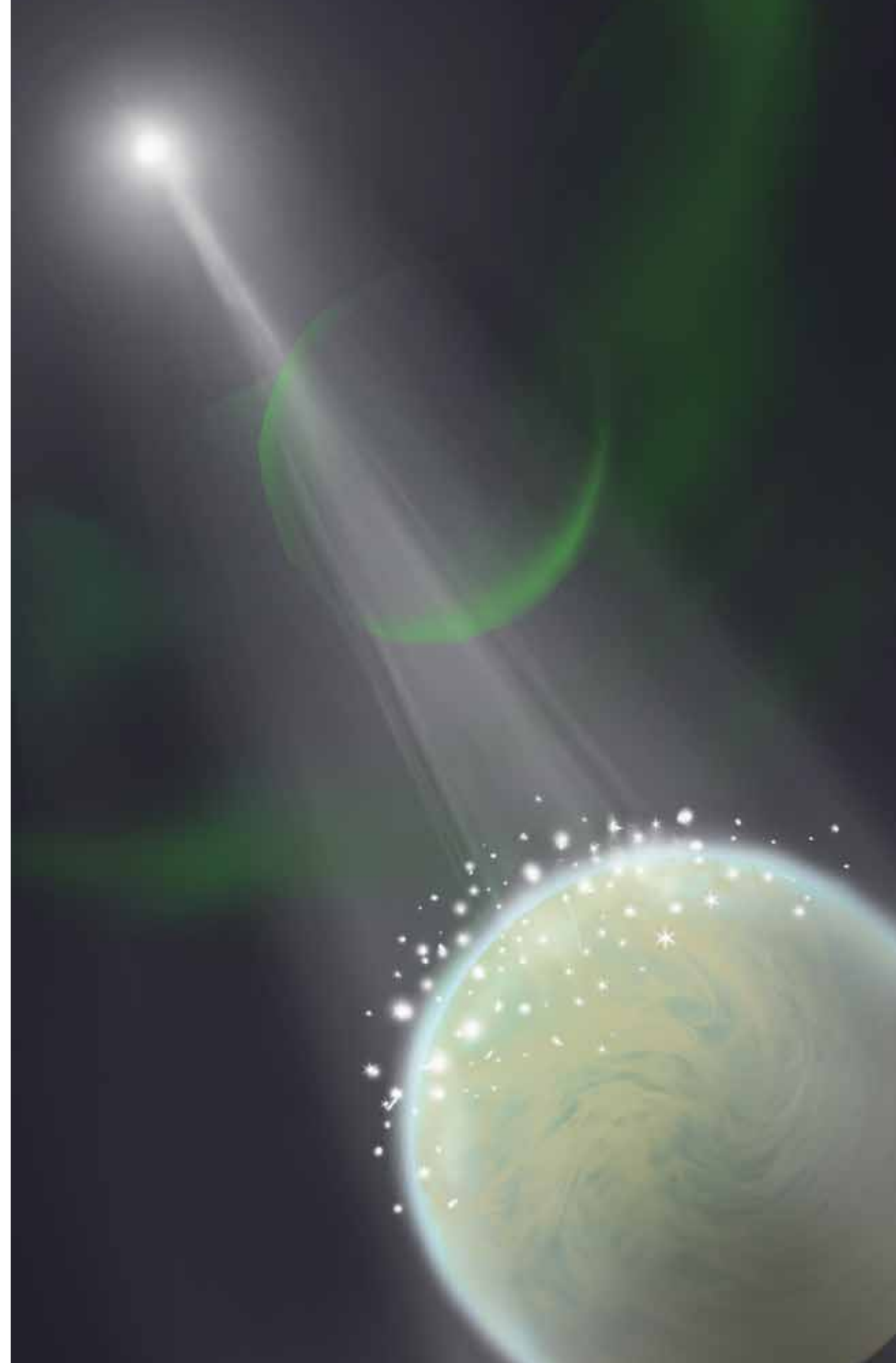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현장에 누가 같이 있었는지 알고 있나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 계셔서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 계셔서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요한복음 1:1-3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왕에 대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은 혼자 계실 때에도 절대 혼자가 아니셨어요.





장면 5 완전한 세상

육 일 동안, 왕은 아름답고 멋진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는데 완벽하게 설계된 작품들이 나타났어요.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하시니 빛이 생겼어요.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지구의 공간을 만드셨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보는 푸른 하늘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숨을 쉬는 공기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은 산소와 질소 같은 생명유지 기체들을 알맞게 섞은 공기로 하늘을 설계하셨어요.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땅은 식물을 내라!”하시니 즉시 풀과 나무와 꽃과 열매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각각 종류대로 씨를 맺었어요.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해와 달에게 지구를 비추게 하시고, 연도와 달과 날짜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별들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물에는 물고기와 바다생물들이 가득차라! 하늘에는 모든 종류의 새들로 가득차라!”고 말씀하시자 그대로 되었어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땅은 동물을-가축과 땅 위에 기는 것과 들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새끼를 낳고 기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습니다(창세기 1:25 우리말성경)

평화로웠어요. 처음에는 모든 동물들이 사이가 좋았어요. 서로를 죽이지도 않고 잡아먹지도 않았어요. 식물이 그들의 음식이 되었어요.

질서가 있었어요. 시계가 돌듯이 태양은 지구와 알맞은 거리를 지키며 돌았어요. 달은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계속 변했어요. 지구는 공기와 물과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었어요. 잘 다스려졌다면 이 땅의 왕국은 좋은 것들이 전혀 부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거처가 되었을 거예요.

창조의 날들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단서를 주고 있어요.⁴

첫째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은 빛처럼 완전하고 순수하세요.

둘째 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대기를 만들고 유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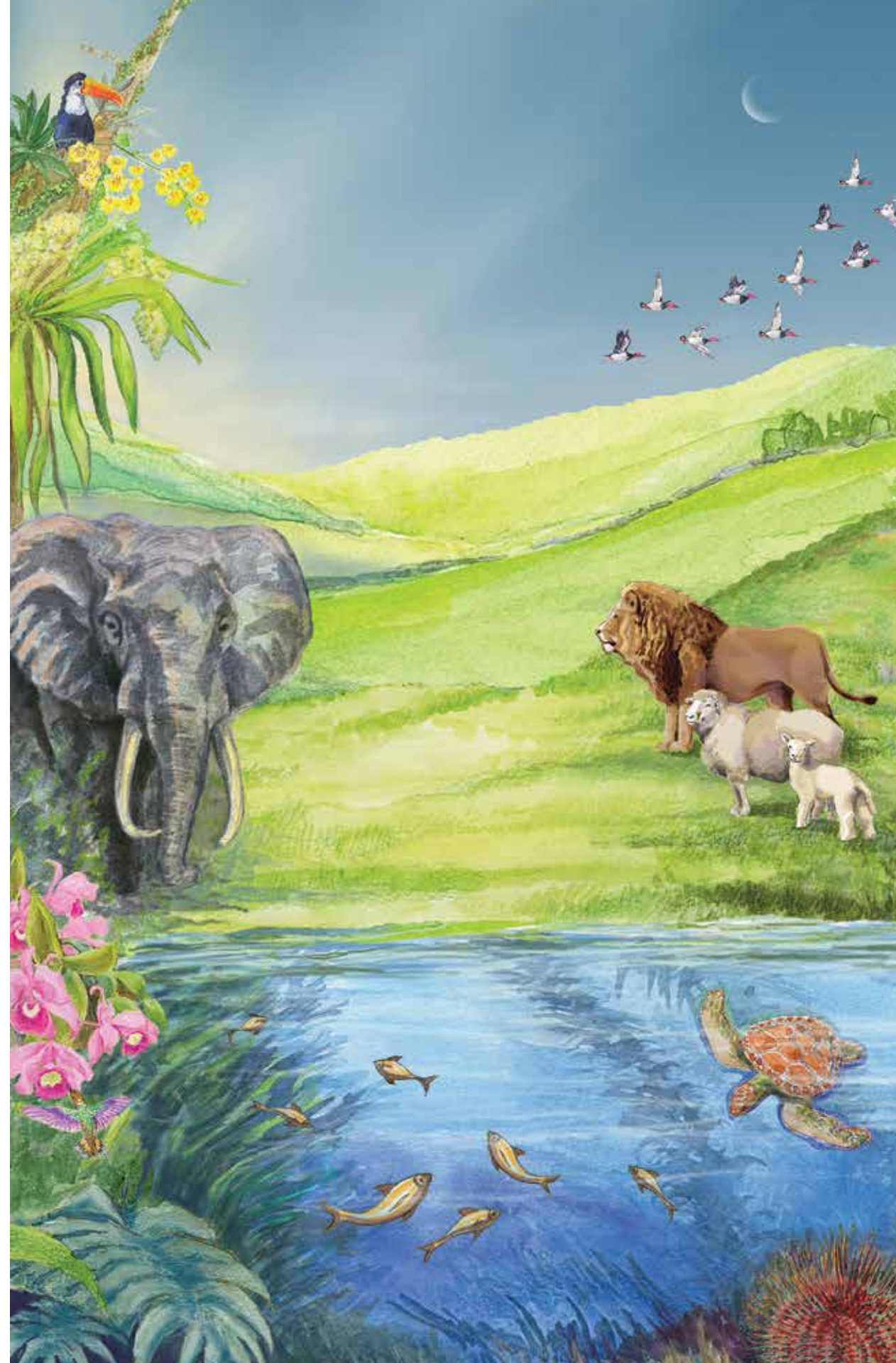
셋째 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식물과 먹을 것을 창조하셨어요.

넷째 날, 하나님은 *성실하세요*. 해와 달이 자기 궤도에 머물러 있게 해주세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그분은 바다에 물고기를 두시고, 하늘에 새들을 두셨어요.

여섯째 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동물들을 창조하신 다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으실 창조물을 지을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능력과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생명과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특별한 생명체를 창조할 시간이었어요.





장면 6 첫 사람

창조 여섯째 날에 왕은 자신(하나님,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⁵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창세기 1:26-27 우리말성경)

성경에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이 생기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로마제국의 동전에 황제의 형상이 찍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에게 새겨져 있는 거예요. 첫 남자와 여자는 생각하고 사랑하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들을 창조하신 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로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는 힘을 주셨어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돌보고, 다스리고, 이 세상의 비밀들을 발견하고, 자원들을 지혜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능력은 사람을 동물의 세계와 구별되게 해주었어요.

동물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 몸과 혼이에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어요. : 몸과 혼과 영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에서 취하신 흙으로⁶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창세기 2:7 우리말성경)

몸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혼과 영을 불어넣어 주신 집이나 천막일 뿐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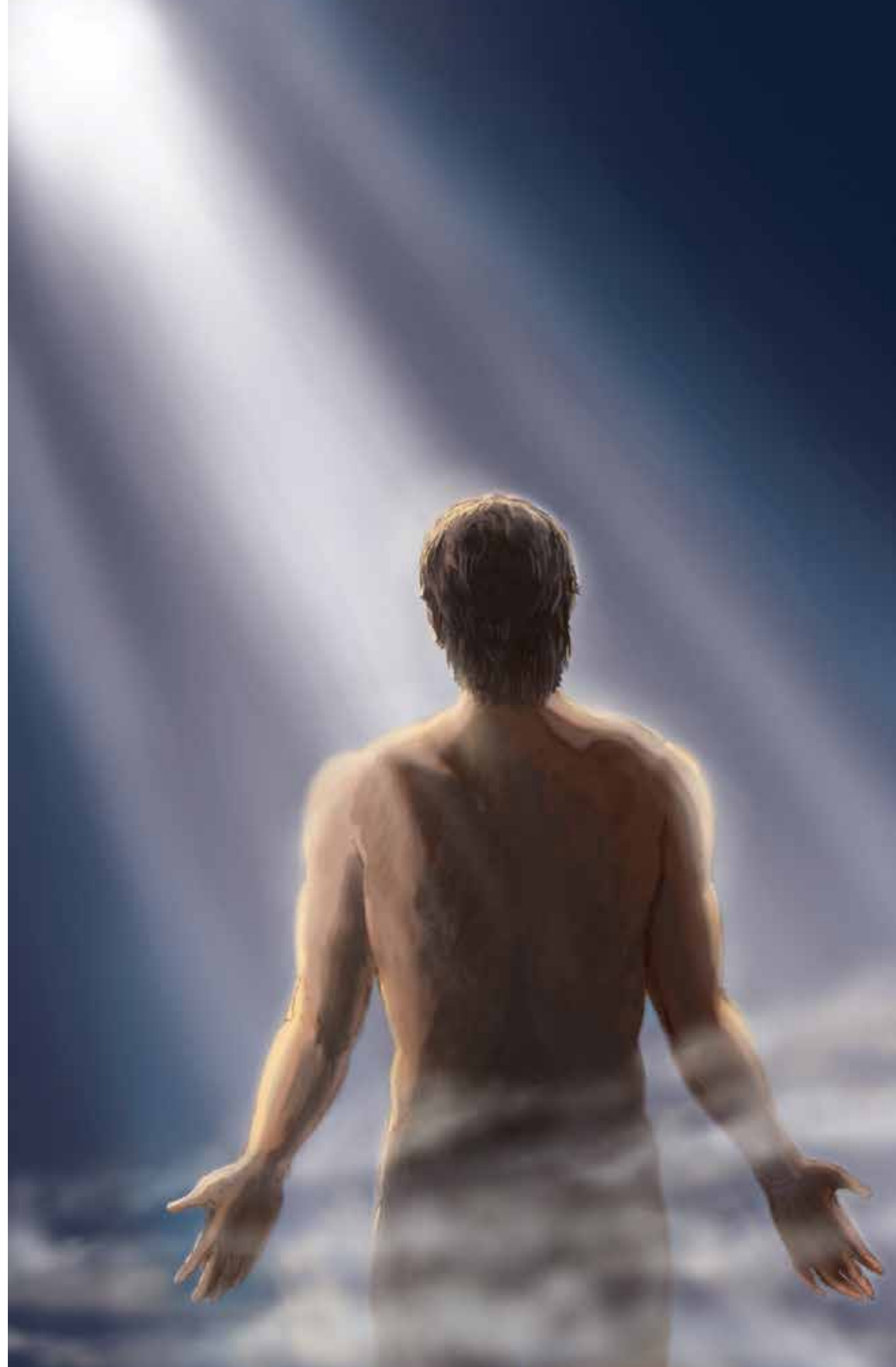
혼은 사람이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개인의 지적능력과 감정과 의지예요.

영은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해주어요. 몸이 보이는 세상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인 것처럼, 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장치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매우 귀중한 보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창조자일 뿐 아니라 그들의 주인이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첫 번째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는데 이것은 **흙으로 만든 것 또는 단순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텐데 그 전에 몇 가지 준비할 것이 있었어요.

아담에게는 집과 일이 필요했어요.





장면 7 완전한 집

하나님께서 첫 사람의 몸을 흙으로⁶ 만들어서 그 안에 생명의 호흡을 넣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중동지역에 있는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셨어요.

그 동산을 가로질러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흘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들을 그 곳에서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습니다.”(창세기 2:9,15절 쉬운성경)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신 거예요.

아담의 동산 집에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지고, 맛볼 수 있는 끝없이 즐거운 것들로 가득차 있었어요. 반짝이는 시냇물. 노래하는 새. 향기로운 꽃. 부드러운 털을 가진 동물. 과즙이 풍부한 과일. 아삭한 채소들. 달콤한 열매. 미지의 숲.形形色색의 바위들. 매혹적인 곤충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신기한 것들이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탐험하는 것이나 먹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을 위해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인류의 대표가 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기를 원하셨어요. 하지만 작은 일에 믿음을 얻어야 큰일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일을 주셨어요. : 동산을 돌보는 일이었어요.

동산은 완전한 곳이었어요. 가시도 잡초도 해충들도 없었어요. 날씨는 알맞았고, 땅은 기름졌는데 아직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대신 땅에서 안개가 올라와 땅을 적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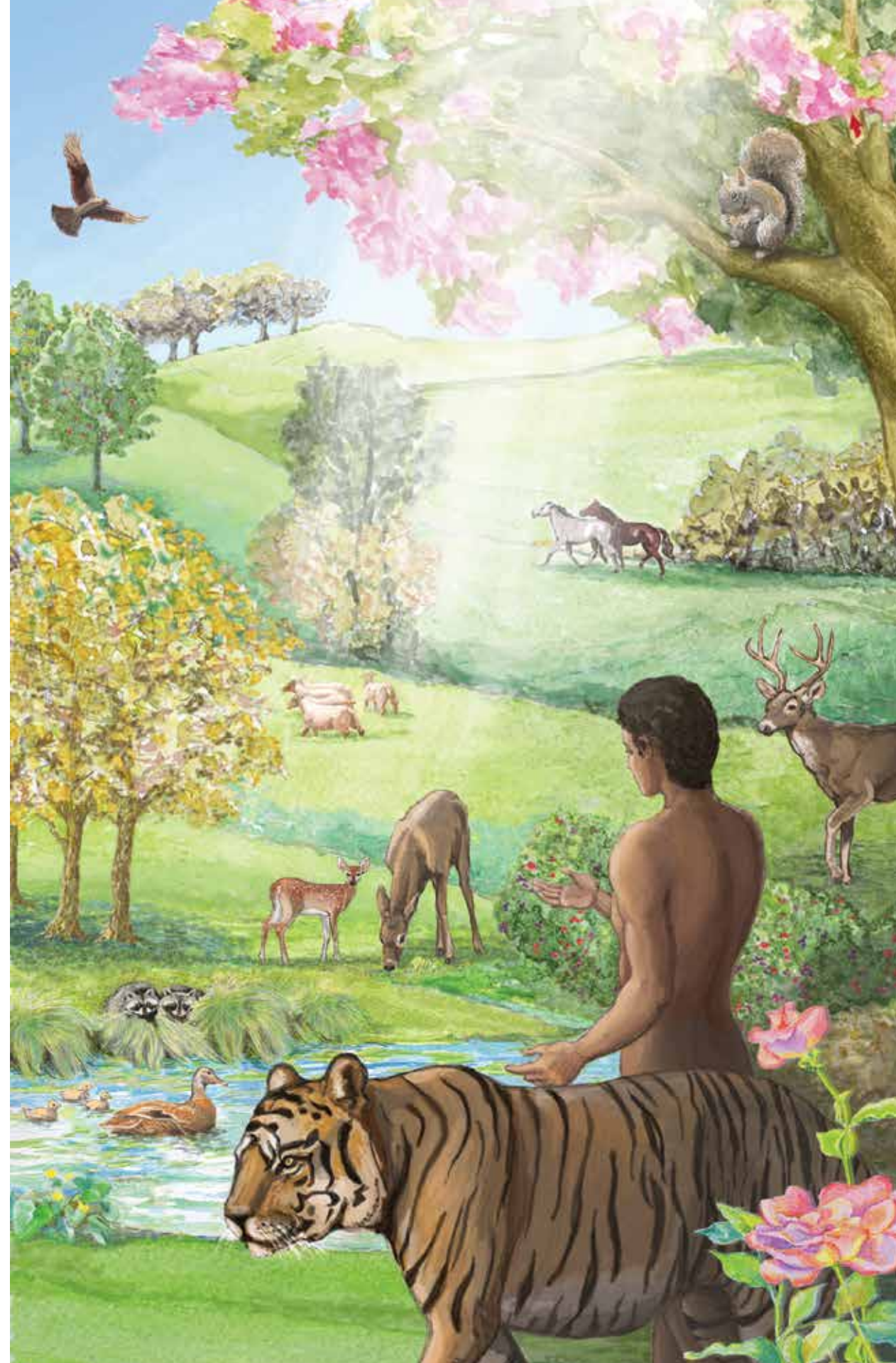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다른 일을 주셨어요. : 짐승들의 이름을 짓는 거였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셔서 어떻게 이름을 짓는지 보셨어요. 이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휘날리는 갈기와 튼튼한 다리를 가진 짐승 한 쌍이 달려왔어요. 아담은 그 짐승을 살펴보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말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 부르시자 굽은 부리와 커다란 날개를 가진 큰 새가 날아 내려왔어요. “독수리”라고 아담이 말했어요. 그 다음에 주황색 털에 검은 줄무늬가 있는 맹수가 지나갔어요. 아담이 뭐라고 불렀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창세기 2:20 쉬운성경)

에덴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완벽한 곳이었어요.

아담에게 시험이 올 때가 되었어요.





장면 8 죄와 죽음의 법

시작부터 하나님과 사람은 친구였지만 친밀함은 시험해볼 필요가 있어요. 온 우주의 왕께서는 억지로 왕에게 복종하는 백성들로 왕국을 가득 채우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그의 장래 가족들을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형이 아니라 사람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한 가지 규칙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세기 2:16-17 쉬운성경)

이것은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아담은 동산에 있는 어떤 과일도 *하나만 빼고*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은 이 간단한 규칙을 지켜서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의 창조자를 믿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었어요.

만약 아담이 이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만약 그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게 되면 목주를 사용하고, 금식하고, 자선금을 내고, 교회나, 유대교 회당이나, 회교 사원에 다니는 종교적인 행사를 시작하게 되어 자기의 나쁜 행동을 충분히 메울 수 있을 만큼 착한 일을 하려고 애쓰기 시작해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에요.

왕은 그의 책에서 이것을 “죄와 죽음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로마서 8:2 우리말성경).

왕의 법은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갚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은 *분리*되는 거예요.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규칙 하나를 불순종하면 그는 마치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되자마자 마르기 시작하여 죽게 되는 부러진 나뭇가지처럼 되는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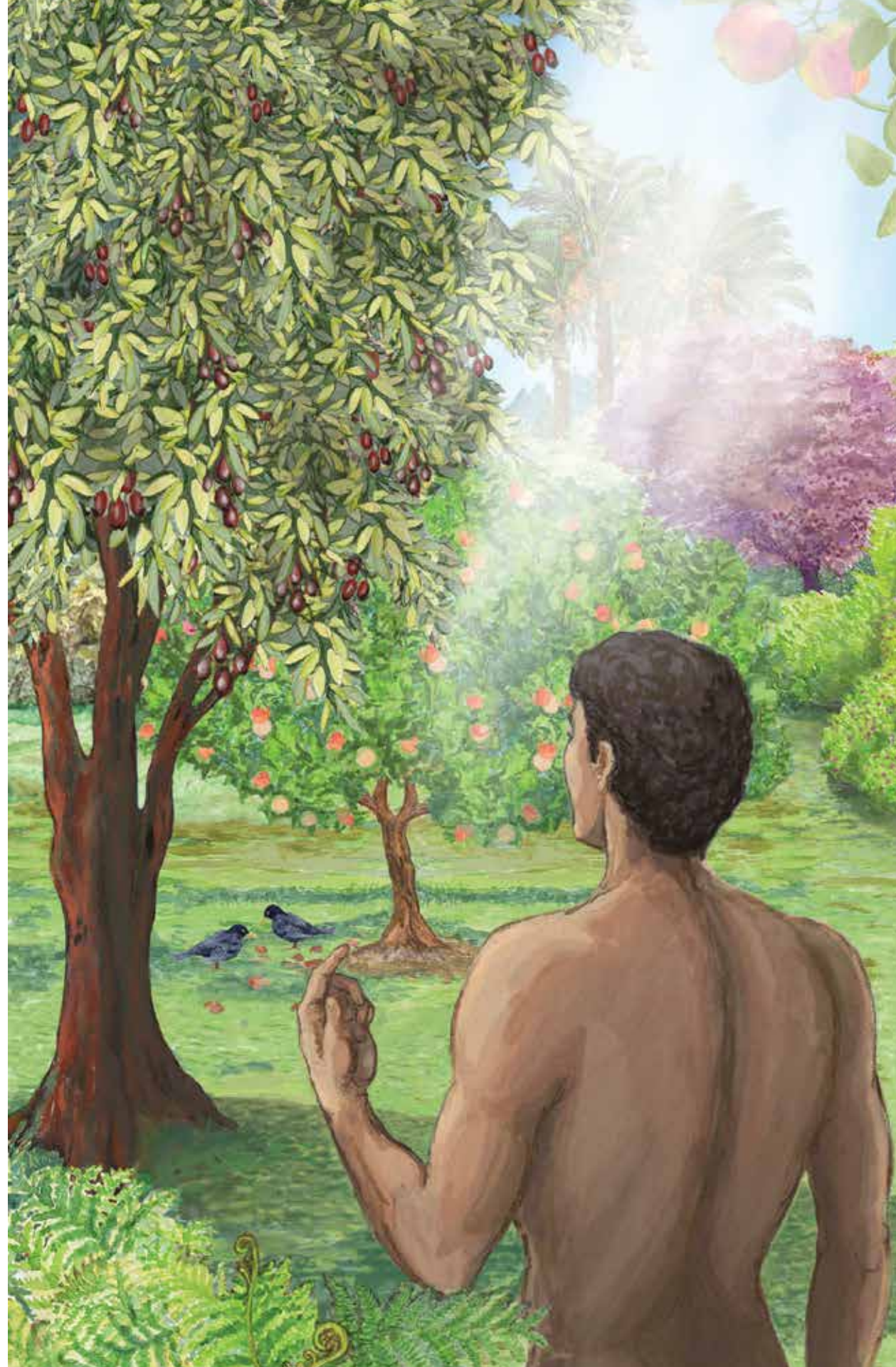
만일 아담이 온 우주의 왕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된다면 그것은 반역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죄*예요.

죄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끝나게 만들 거예요.

죄는 사람의 몸을 늙게 하고 죽게 만드는 원인이예요.

죄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켜요.

죄는 치명적이에요.





장면 9 첫 번째 여자

하나님이 첫 사람에게 해야 할 일과 순종해야 할 규칙을 주신 후에 첫 번째 여자를 만드실 때가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알맞은 돕는 사람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의 뼈요, 내 살 중의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창세기 2:18, 21-23 우리말성경)

여러분은 누가 제일 처음 수술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처음으로 결혼을 계획했는지 알고 있나요? 예,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뜻이에요.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를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모든 사람의 어머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맡기셨지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지으셨어요. 아담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와도 그의 창조자이자 주인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나타내고, 그분과 영원히 행복한 관계를 누리도록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참 좋았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습니.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창세기 1:31; 2:2 우리말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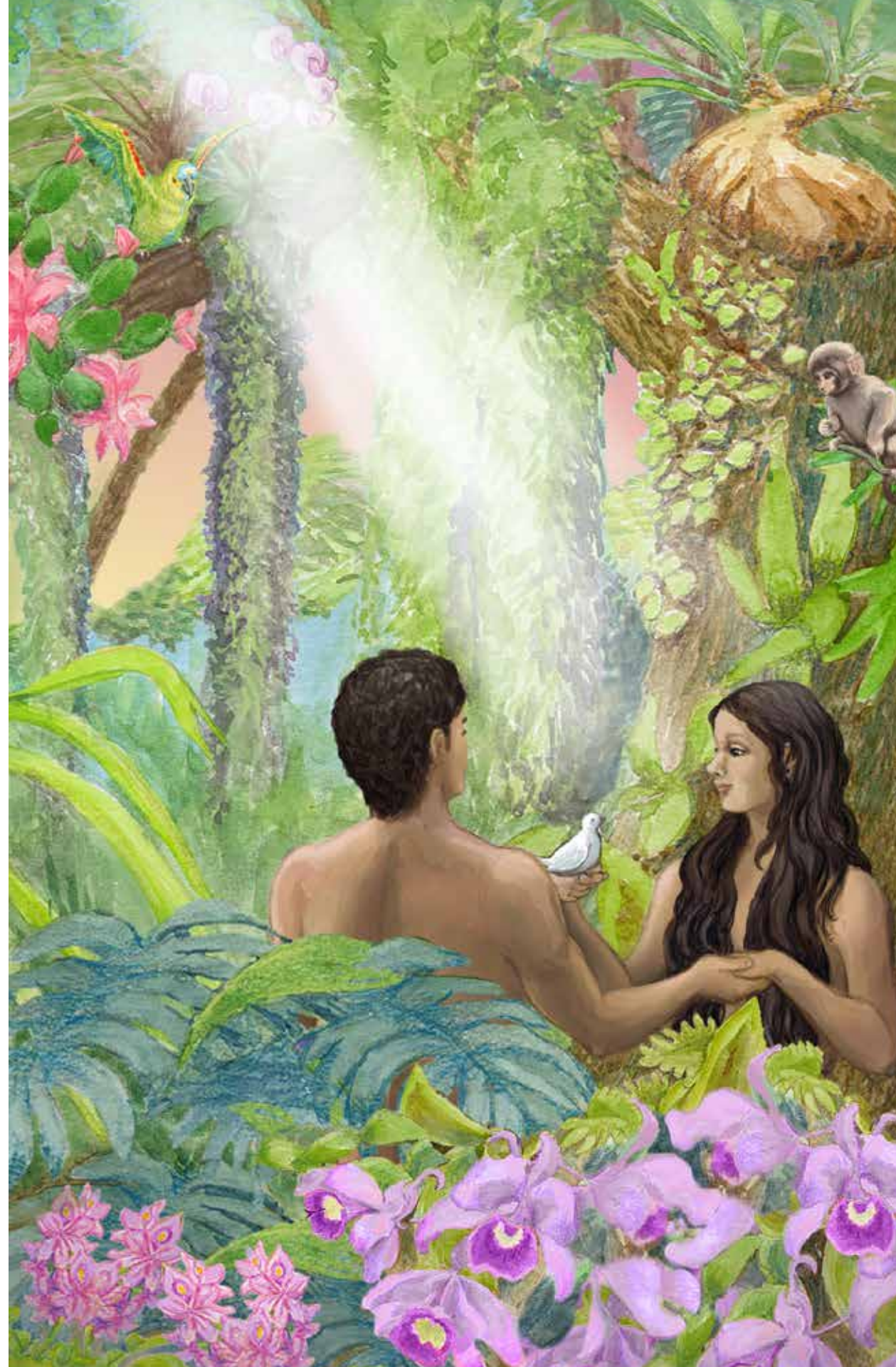
왜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쉬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다 마치셨기 때문이에요. 또한 육일 동안 우리의 세계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심으로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는 일과 휴식의 주기인 칠일로 된 일주일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마치 지혜롭고 사랑 많은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평안했어요.

아담과 그의 아내는 별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창세기 2:25 쉬운성경)

완전한 부부가 그들의 완전한 창조주와 친밀하게 교제하며 살고 있는 완전한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뭐가 잘못되었을까요?





장면 10 빛의 왕국

이 땅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하늘나라에 관한 몇 가지 것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낙원이라고도 불리는 이 다른 세계는 맑은 빛과 황홀한 색채, 감동적인 음악, 즐거운 이야기 그리고 신비한 것들이 펼쳐지는 곳이에요. 하늘나라에서 가장 심심한 일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보다 훨씬 뛰어나요. 하늘나라는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하늘나라는 왕의 집이에요.

이 행복한 곳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왕 그분이에요.

이 하늘 도성의 모든 부분들은 다 그분의 위엄을 드러내도록 설계되었어요.

성 전체가 유리처럼 맑은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습니다(요한계시록 21:18 쉬운성경)

하늘나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 요한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시고 그가 본 것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는 한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에 어떤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그 보좌는 에메랄드처럼 무지개 빛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번개와 천둥 소리가 보좌에서 울려 퍼졌습니다....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보좌를... 에워싼 수많은 천사들을 보고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었습니다.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했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이제 오시는 분이십니다.”(요한계시록 4:2-3, 5-6; 5:11; 4:8 쉬운성경)

천사는 심부름꾼 또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천사들은 영적인 생명체예요. 천사들은 그들의 창조주처럼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데 다만 그들이 보일 필요가 있는 곳에 임무를 위해 보내졌을 때만 예외예요.

하늘나라의 왕은 사람들을 만들기 전에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분의 책에는 왕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천사들이 흥에 겨워 소리를 질렀다.”(욥기 38:7 쉬운성경)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영원토록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노예가 아니었어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께 역지로 복종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기쁘게 섬기는 종들을 원하셨거든요.

성경은 하나님께 엄청난 지능, 아름다움과 능력을 받은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한 천사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 천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 악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게 될 거예요.





장면 11 어둠의 왕국

루시퍼는 하나님의 천사장들 중 한명이었어요. 그의 이름은 빛나는 자라는 뜻이에요. 선지자들의 성경에는 루시퍼가 “완전한 것의 모델이었으며 많은 지혜와 완전한 아름다움을 소유했다”(에스겔 28:12)고 말하고 있어요.⁷

그 때 루시퍼는 위대한 창조자이신 왕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창조물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능에 눈이 멀어서 자기를 만드신 분을 잊어버린채 루시퍼는 자기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겠다....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이사야 14:13-14 쉬운성경)

루시퍼는 왕이 되고 싶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어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루시퍼는 그의 반역에 동참하도록 천사들의 삼분의 일을 설득시켰어요. 그러나 죄를 참으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늘의 집에서 내쫓으셨어요.

루시퍼는 이름이 사탄으로 바뀌었는데 *고소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는 또한 *속이는 자*라는 뜻의 마귀라고도 부르고 있어요. 악한 천사들은 귀신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어둡고 비밀스런 곳에 마귀와 그의 귀신들을 가둘 감옥을 마련해 두셨어요. 그곳은 지옥 또는 불의 연못이라고 불려요. 그곳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 있는 곳이고, 반역자들이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없는 곳이에요. 어느 날 사탄과 그의 모든 귀신들이 영원히 그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아직 그들이 모두 그곳에 있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뒤에 간 곳은 어디일까요?

그들은 지구의 대기권으로 옮겨갔어요. 그곳에서 마귀는 자기 천사들을 계급대로 정비했어요. 그는 *하늘나라를 지배하지 못한다면 땅이라도 지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사탄을 가리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에베소서 2:2 우리말성경).

마귀와 그의 귀신들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음흉하고 사악한 의도는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사람들을 그들의 어둠과 멸망의 나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온갖 속임수를 다 사용할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고린도후서 11:14 새번역)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8 우리말성경)

이제 우리의 첫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장면 12 뱀

아담과 하와의 생활은
모험과 목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날마다 드넓은 동산을 돌아다니고, 동산의 동물들과 식물들을 돌보고, 그 열매들을 맛보는 것과 같은 멋진 일들이 넘쳤어요.

저녁에는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들의 창조주이자 주인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시는 영광을 얻은 거예요. 그들은 그분과 함께 걷고 대화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와 그의 아내는 동산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사탄은 즐겁지 않았어요. 사탄은 하나님도 싫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이 두 사람도 싫었어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데서 실패한 마귀는 이 땅의 나라를 빼앗을 음모를 꾸미었어요.
그가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마귀는 아담을 직접 유혹하지는 않을 거예요...

어느 날 하와는 어떤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것은 아담도 아니었고 하나님도 아니었어요.

바로 뱀이었어요!

말하는 파충류란 하와에게는 새로운 발견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와는 하나님의 원수가 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물론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유혹하기 위해 자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 못했지요.

뱀은 교활한 눈으로 여자를 계속 쳐다보며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적절한 순간이 오자 여자에게 비난하듯 말했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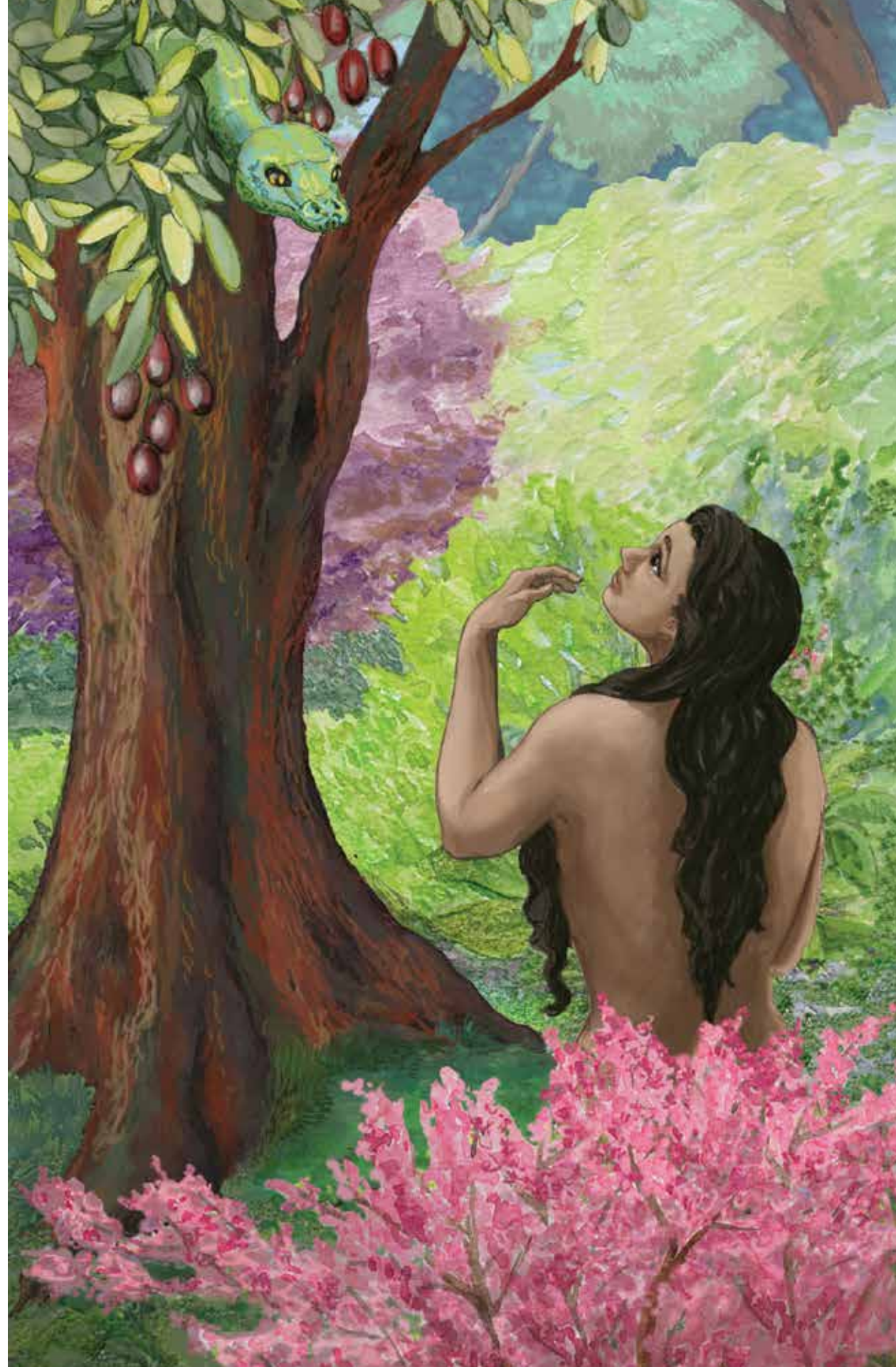
(창세기 3:1 쉬운성경)

사탄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와와 그 남편에게 뭔가 좋은 것을 감추고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랐어요.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창세기 3:2-5 쉬운성경)

하와는 어떻게 했을까요?





장면 13 선택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뜻을 행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드신 이 특별한 창조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에 있는 숨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 원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악을 행했을 때 일어나는 끔찍하고 엄청난 결과를 내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만약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창세기 2:16-17 쉬운성경)

그런데 지금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죽지 않아.”(창세기 3:4 쉬운성경)

하와는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그녀를 만드신 분일까요 아니면 한 창조물일까요?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는 먹음직스러웠으며, 보기에다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 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으며, 남자도 그것을 먹었습니다(창세기 3:6 쉬운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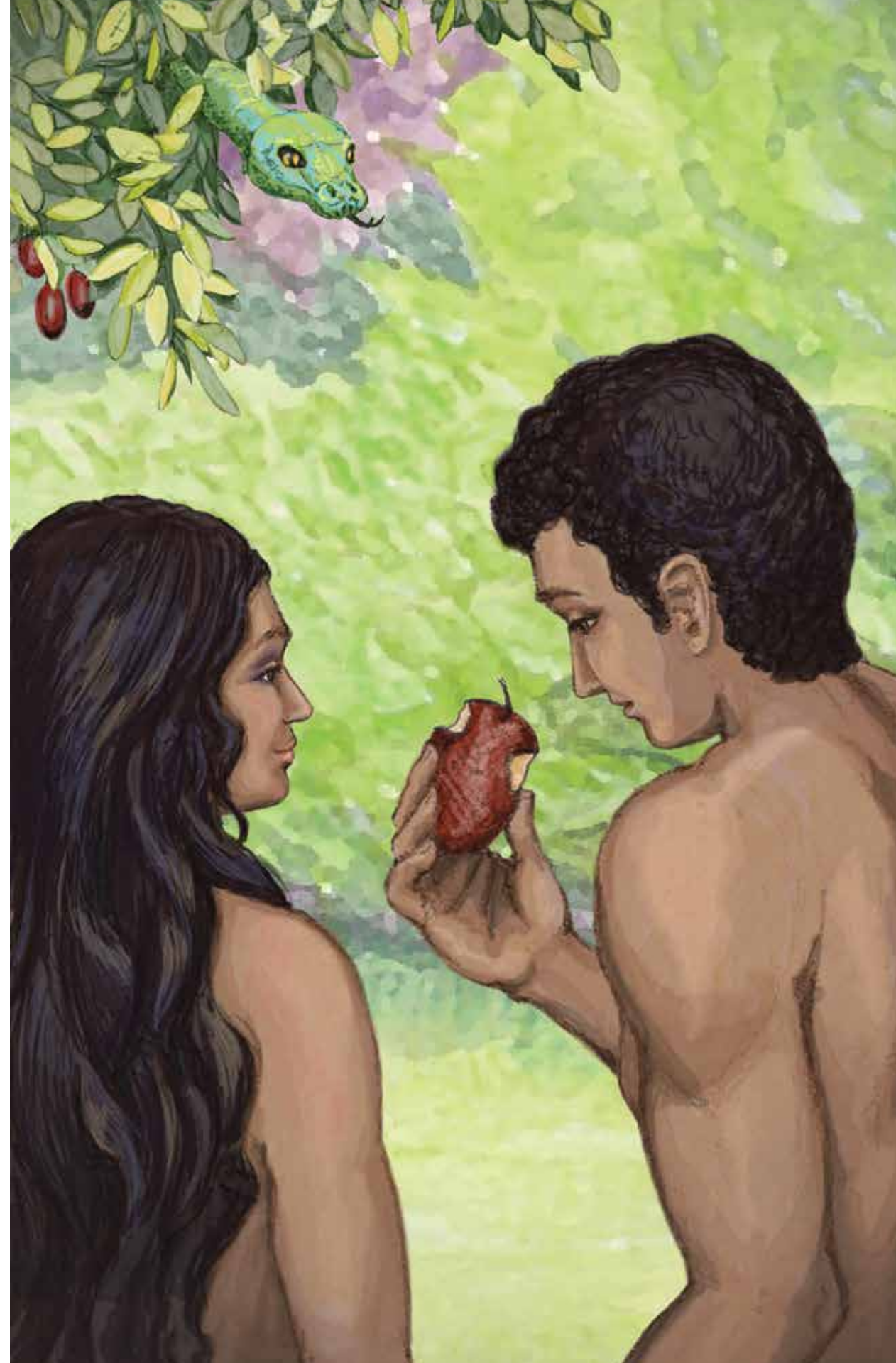
하와도 먹었고 아담도 먹었어요!

하와는 사탄의 꼬임에 속아서 먹지 말아야 할 열매를 먹었어요.

하지만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방법을 선택해서 그 열매를 먹은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하고 사랑이신 창조주께 복종하지 않고 원수에게 항복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이 죄를 지은 거예요.





장면 14 죄와 부끄러움

아담은 인류의 대표였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아담이 그 불법의 열매를 베어 먹기 전까지 아담과 그의 아내는 그들의 선택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모두 밝아졌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몸을 가렸습니다(창세기 3:7 쉬운성경)

극도의 부끄러움과 가슴을 옥죄는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에 밀려들어 왔어요. 그들은 자신의 마음속과 겉이 더러워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죄가 부끄러움을 가져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기 전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창세기 2:25 우리말성경)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영광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 때에는 자기를 의식하면서 부끄럽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이 영광을 대신하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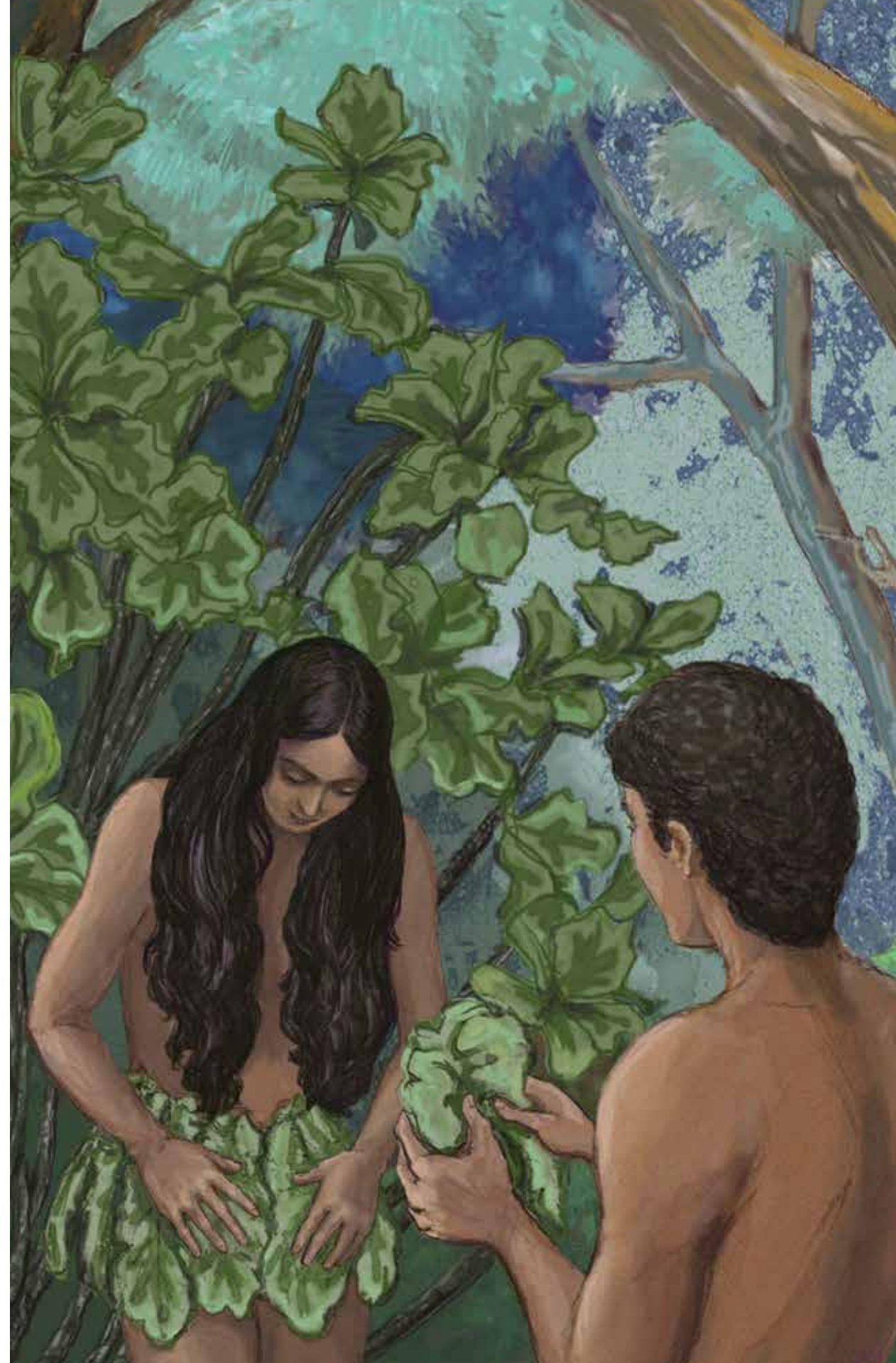
그들이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했지만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 노력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에 밀고 들어와 버린 죄를 없앨 힘이 없었어요. 잃어버린 영광을 되찾을 힘이 없었어요.

오후가 되었어요.

곧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창조주께서 저녁 방문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생각에 그들의 몸은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장면 15 영적인 죽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마다 친구 되신 창조주를 만나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웠어요.

그 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때는 하루 중 서늘한 때였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창세기 3:8 쉬운성경)

말썽을 부린 아이들이 부모님을 피해 숨으려고 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들의
창조주를 피해 숨으려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말해
주었느냐? 내가 먹지 말라고 한 나무 열매를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줘서 먹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네가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이냐?”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뱀이 저를 속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창세기 3:9-13 쉬운성경)

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고 싶었을까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은 자기 죄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했을까요? 그들이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창조주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마귀의 반역과
교만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이 첫 부부는 살아 있는 나무에서 끊어져 버린 가지처럼 되었어요. 그들이 지은 죄가 온
우주의 왕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그들은 죽었어요. 그들의 죄가 영원한 생명의 근원에서 그들을 분리시켜 버린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그들이 아직 살아 있었지만 늙어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어요. 죽음의 능력이
그들의 몸에 침입해 버렸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죽음과 멸망을 가져왔나요?

죄예요.





장면 16 저주

인류 역사가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지냈어요. 평화와 기쁨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가져온 엄청난 결과들을 말씀하셨어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기를 가지는 고통을 크게 하고, 너는 고통 중에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너는 네 남편을 지배하려 할 것이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창세기 3:16 쉬운성경)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와는 남편의 사심 없는 사랑과 돌봄을 받으며 기뻐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본성이 죄로 더럽혀져서 결혼생활의 기쁨 위에 다툼과 고통이 더해졌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먹기 위하여 얼굴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다가 마침내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는 네가 흠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는 흠이니,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창세기 3:17-19 쉬운성경)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는 지배권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그들의 세계에는 가시와, 고통과 슬픔과 아픔 그리고 죽음이 함께 있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불행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 정도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향기로운 장미덤불에 섬뜩한 가시를 주셨나요? 아이를 낳는 신비함에 그렇게 큰 고통이 들어 있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들이 늙어 죽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의 창조세계를 만드실 때 스스로 분투하도록 설계하지 않았어요. 오직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에 죽어야만 해요
죄와 죽음의 법이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죽음은 분리에요. 죄는 세 가지 끔찍한 분리를 가져왔어요 :

1. 영적 죽음: 사람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어요.
2. 육체의 죽음: 사람의 영과 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분리되었어요.
3. 영원한 죽음: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불의 못에⁸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사람은 죄의 저주로부터 자신을 구해낼 방법이 없어요.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장면 17 약속

사탄은 왕의 특별한 보물을 훔쳐갔지만, 왕은 그 보물을 도로 사 오려는 비밀스런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왕이 내려고 계획한 그 몸값이 너무 커서 그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악귀들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사탄이 온 인류를 손에 넣은 바로 그날, 하나님은 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배로 기어다니고, 평생토록 흙먼지를 먹고 살아야 할 것이다.”(창세기 3:14 쉬운성경)

하나님이 뱀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다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사탄에게 이용당해 사람을 죄에 빠지도록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뱀에게 땅을 기어다니도록 저주하셨어요. (비단 뱀이나 보아 뱀은 피부 속에 한 때 다리를 가지고 있었던 흔적인 작은 혹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뱀을 가장 낮은 짐승으로 만드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옛 뱀, 곧 마귀와 사탄이라고도 하는 이, 온 세상을 현혹시키는 이”를 파멸시키실 것을 그 부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요한계시록 12:9 우리말성경).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뱀을 이용했던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여자를 서로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자손과 여자의 자손도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부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다.”(창세기 3:15 쉬운성경)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탄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해 내실 은밀한 계획을 조금씩 알게 해주시는 여러 예언들 중 첫 번째예요. 하지만 왕께서는 사탄과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 계획을 숨기려고 암호 속에 예언을 넣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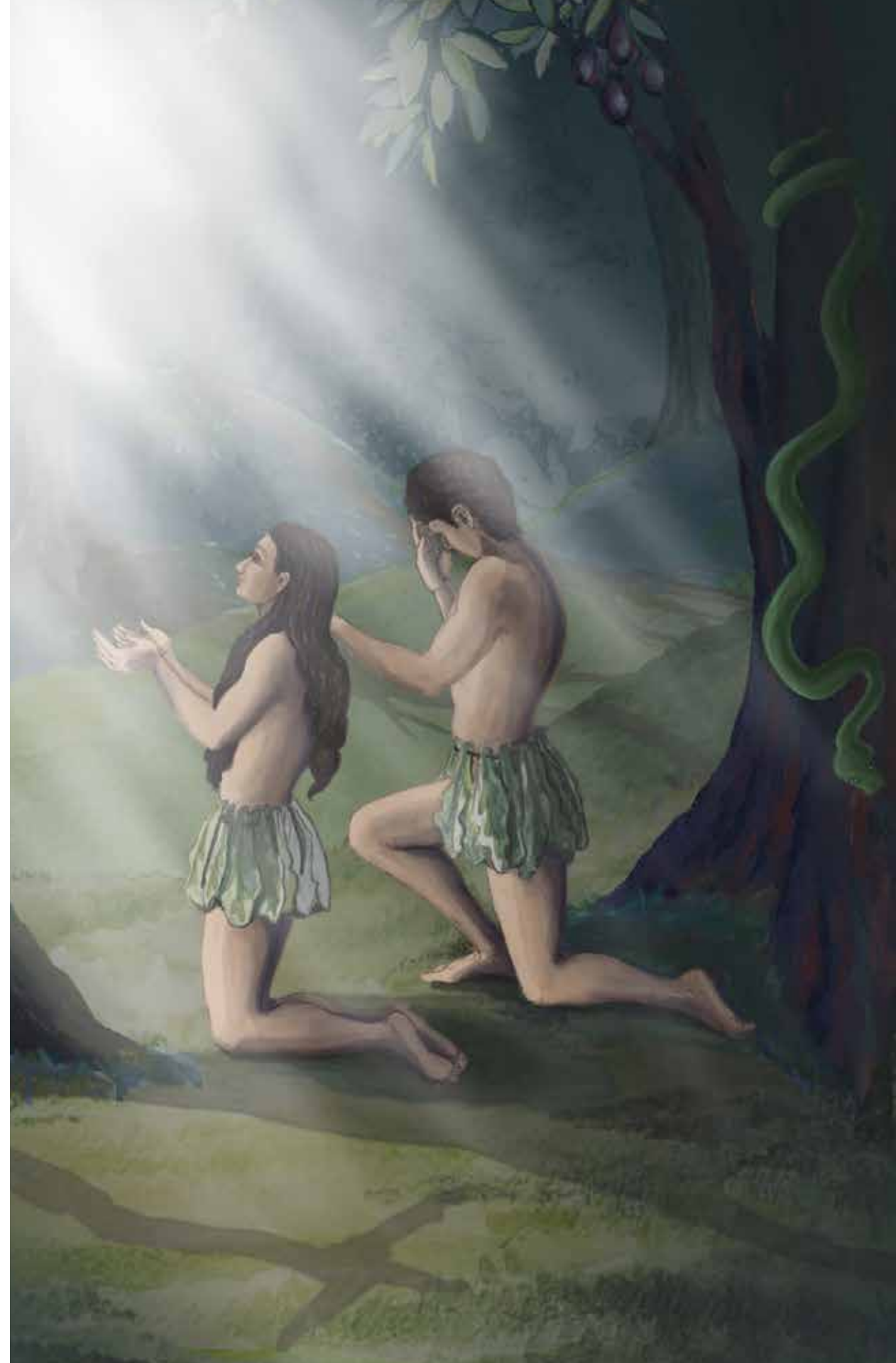
하나님은 이 세상에 여자의 후손인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 구원자는 사람 어머니는 있지만, 사람 아버지는 없을 거예요. 그는 메시아로 알려질 텐데,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메시아의 발꿈치를 물게 되지만, 메시아는 사탄의 머리를 부수게 될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나중에 왕께서 모든 것을 다 밝혀 주시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거예요.

수천 년 후에 왕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어둠 속에 살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인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입니다(이사야 9:2; 7:14 쉬운성경)

왕은 자기의 특별한 보물을 다시 사실⁹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장면 18

첫 번째 희생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아야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 무엇을 했는지 기억하나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릴 것을 만들었어요.

그들이 만든 가릴 것이 심판자이신 창조주 앞에서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나요?
아니에요. 그들은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습니다(창세기 3:21 쉬운성경)

누가 처음으로 동물을 희생시키셨나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죽이시고 가죽으로 된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
주셨어요.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은혜에 대한
기초적인 교훈을 가르쳐주시려는 거였어요.

이 중요한 세 가지 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공의. 죽은 동물들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희생시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죄와 죽음의 법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거였어요. 그들의 죄는 죽음이라는
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의예요.

자비.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동물들을 준비하셔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벌하시지 않고도
그들의 죄를 벌하시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자비예요.

은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입은 아름다운 옷을 보세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두 사람이 이런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희생된 동물들의 가죽으로 그들을 입혀 주셔서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해주시자 그들은 다시 하나님과 함께
행복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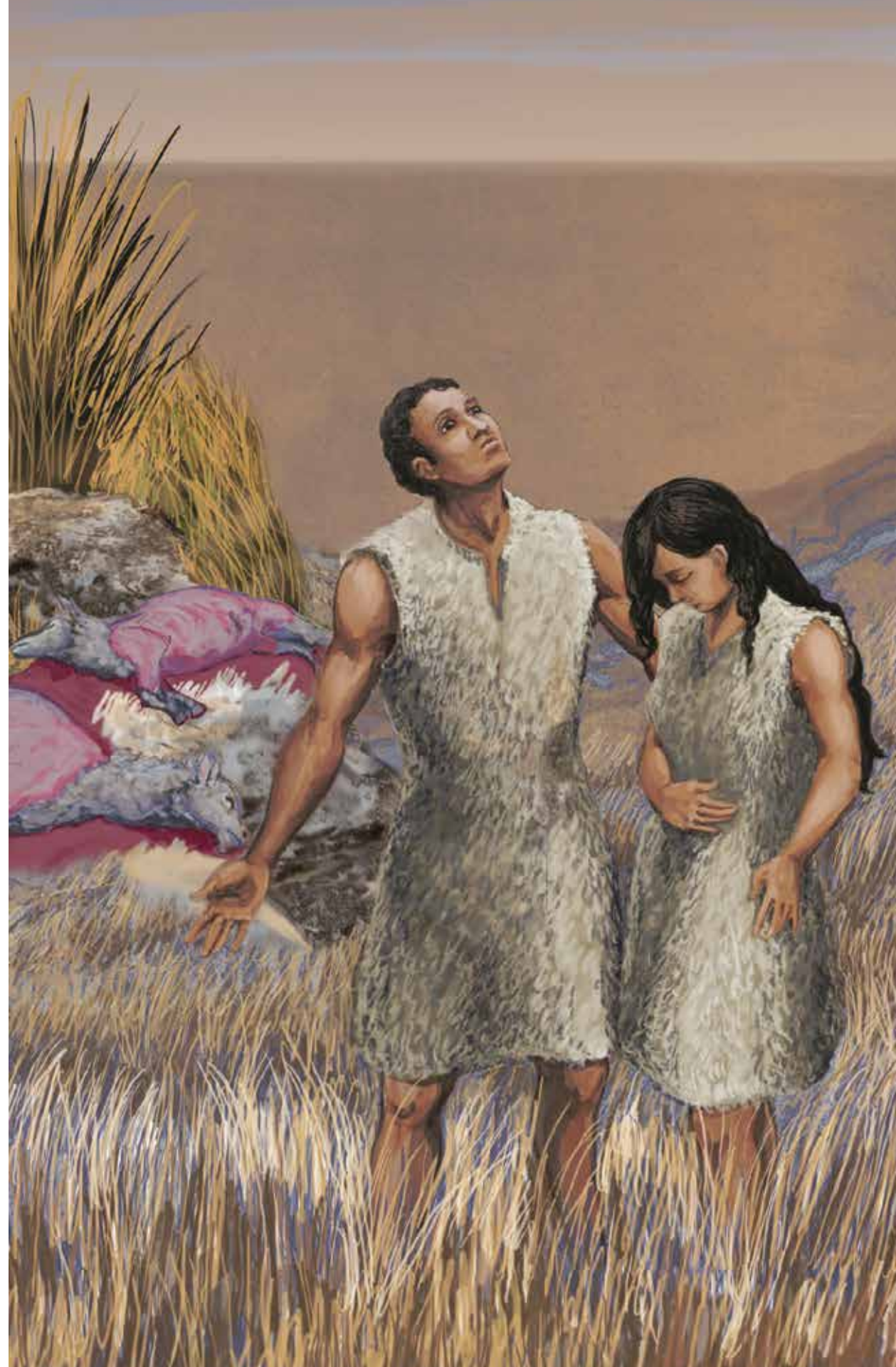
동물들의 피가 그들의 죄를 가려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그날 죽어야 마땅했지만 죄 없는
동물들이 그들 대신 죽은 거예요.

동물의 가죽으로 된 옷이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었어요. 다시 한 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수천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기록했어요.

내가 온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 주셨고, 의의 겹옷을 입혀 주셨다(이사야 61:10 쉬운성경)

죄인들을 다시 바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세요.





장면 19 쫓겨나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천사들을 하늘에서 쫓아내셨을 때 그들의 운명은 결정되었어요. 하늘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던 이 영적 생명체들은 그들의 죄에 대해 용서받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죄로 더럽혀진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획하셨어요.

그렇지만 죄에는 결과가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루시퍼와 그의 악한 천사들을 하늘의 낙원에서 쫓아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남자와 그의 아내를 땅의 낙원에서 쫓아내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쫓아 내신 뒤에 에덴 동산 동쪽에 천사들을 세우시고 사방을 돌며 칼날같이 타오르는 불꽃을 두시고,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습니다(창세기 3:24 쉬운성경)

생명나무는 동산 가운데 있던 또 다른 특별한 나무였어요. 완전한 사람만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더 이상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점점 늙어서 죽어야 했어요.

우리의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이것은 하나님이 흠이 없으시고, 깨끗하시며, 완전하시고, 의로우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거룩한 법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죽음으로 벌하셔야 해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위대”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법들을 무시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판사가 법정에서 법을 지키는 것을 거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 판사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축구 경기에서 주심이 경기 규칙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을 *위대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나쁜* 심판이라고 말하나요?

사탄은 하와가 자신의 창조주께서 규칙을 지키지 않는 분이라서 법을 어긴 사람들을 죽음으로 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나 의로우신 왕이요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자기가 한 말을 언제나 지키세요.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정의와 공정이 주님의 보좌를 받들고, 사랑과 신실이 주님을 시종들며
앞장서 갑니다(시편 89:14 새번역)

이 수수께끼의 답을 말해 보세요.: *사탄과 사람은 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나는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결코 번복하지 않는다.
내가 내 거룩함으로 맹세한 것이..., 거짓말이 되게 하겠느냐?”(시편 89:34-35 새번역)

우주의 왕께서는 자기가 하신 말씀을 결코 번복하지 않으세요.





장면 20 최초의 자녀들

동산 바깥의 세상도 역시 아름다웠지만 따가운 가시들과 귀찮은 벌레들, 무릎이 까지고 코가 막히는 것과 같은 좋지 않은 것들도 함께 있었어요. 많은 동물들이 이제는 친근하지 않았어요. 음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배고픈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들에게 행복하고 기쁜 순간들도 있었어요.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잠자리를 같이했습니다. 그러자 하와가 임신을 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가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 아이를 얻었다.”(창세기 4:1 쉬운성경)

하와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아기에게 얻었다는 뜻의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매우 소중한 보물이예요! 하와는 아마도 자기 아들이 약속된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곧 그 귀여운 아이가 자기 부모처럼 고집스럽고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다음에 하와는 둘째 아이를 낳자 그 이름을 *헛되다, 아무 것도 아니라는* 뜻의

아벨이라고 지어주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사람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죄 없는 여자의 후손을 결코 낳을 수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나타내기보다 죄로 뒤틀린 그들의 본성을 나타내었어요.

아담은...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다른 아들과 딸들을 또 낳았습니다(창세기 5:3,4 쉬운성경)

그림을 보세요. 가인이 자기 동생에게서 멜론을 뺏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가인은 그 부모들이 자기 것이 아닌 열매를 먹은 것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전염병처럼 그 자녀들도 타락하게 했어요.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습니다(로마서 5:12 쉬운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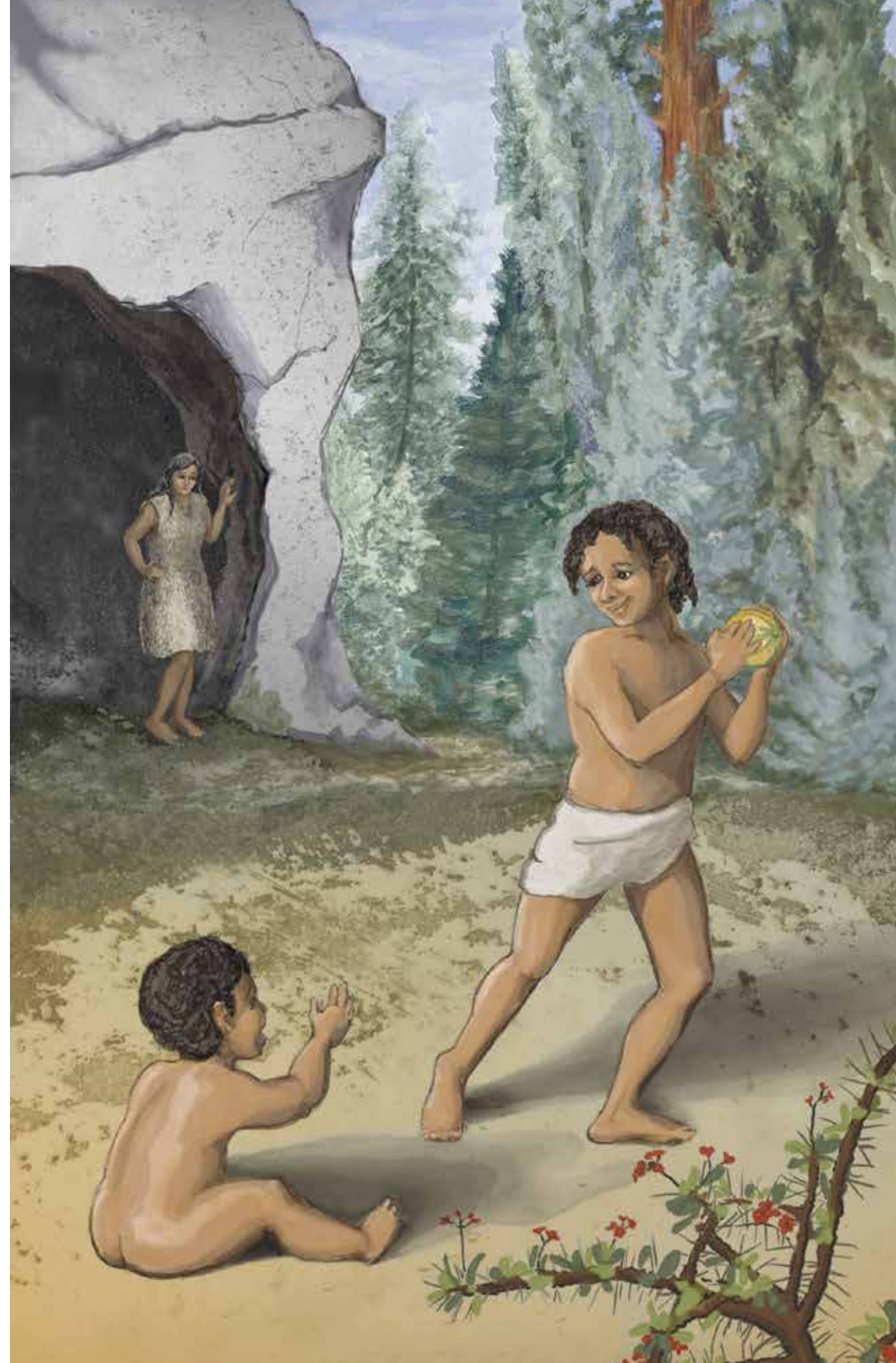
아프리카 속담에 *쥐는 구멍을 파는 새끼를 낳는다*는 말이 있어요. 아랍 속담도 같은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새끼 오리는 물에 뜬다*.

우리의 첫 부모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마치 나무에서 잘려나간 가지와 같았어요. 그 부러진 가지에 붙어 있는 모든 가지와 나뭇잎들이 다 영향을 받는 것처럼 아담의 가족이라는 가지에 붙어 있는 사람들은 모두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게 된 거예요.

아담이 죽은 지 아주 오랜 후에 선지자 다윗 왕은 기록했어요.

그렇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투성이였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임신했을 때부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시편 51:5 쉬운성경)

우리는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겠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장면 21 죄인들의 예배

아담과 하와가 아들과 딸들을 많이 낳았지만 성경은 첫 두 아들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아벨은 양을 치고, 가인은 농사를 지었습니다(창세기 4:2 쉬운성경)

가인과 아벨 두 사람 모두 열심히 일했어요.

두 사람 모두 그들의 창조주를 알고 있었어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했어요.

두 사람 모두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죄예요.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죄인처럼 살았어요. 그들이 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흠 없고, 사랑하시는 성품을 나타내지 못했어요. 온 우주의 왕은 그분의 책에서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로마서 3:23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어요. 하지만 그 비용이 아주, 아주 많이 들 거예요.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도 없습니다(히브리서 9:22 우리말성경)

결코 어길 수 없는 온 우주의 법인 죄와 죽음의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해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해요. 이것이 바로 왕께서 용서하실 때 죽음이라는 값이 필요한 이유예요. 당연히 죄인이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은 어린양과 같은 짐승들의 피를 받아 주세요.

어린양은 아프거나, 상처가 있거나 더러워서는 안 돼요. 반드시 건강하고 깨끗해야 돼요. 완전한 어린양이어야 돼요.

그 어린양은 죽어서 불에 태워질 거예요. 죄를 지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그 어린양이 죄인의 대체물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두 형제가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는데 한 사람만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세월이 지난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아벨은 처음 태어난 아기 양과 양의 기름을 바쳤습니다(창세기 4:3-4 쉬운성경)

하나님께서 어떤 제물을 받으셨을까요?





장면 22 속죄제의 법

이 형제들을 보세요.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는지 보세요.
제단을 보세요.

제단이란 보통 돌이나 흙으로 쌓아 올린 단이에요. 죽음의 장소이지요. 제단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물을 받들고 있는 거예요. 제단 위에 올려 진 것이 무엇이든 불로 태워질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를 지키시지만 자비를 나타내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두 가지를 다 하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인은 벌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벌하실 수 있을까요?

가인과 아벨의 시대로부터 오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레위기 17:11 바른성경)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어야 한다. 그러면 그를 위한 속죄제물로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다(레위기 1:4 우리말성경)

속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죄에 필요한 값을 다 냈기 때문에 죄가 덮여지고, 깨끗해지고, 용서되는 것을 말해요. 구약성경 시대에는 사람들의 죄 값으로 흠 없는 어린양이나 숫양, 염소, 황소 또는 비둘기의 피를 흘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피는 죄를 덮어주는 속죄를 해주지만,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정당한 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서 완벽한 제물을 주시는 그날까지 만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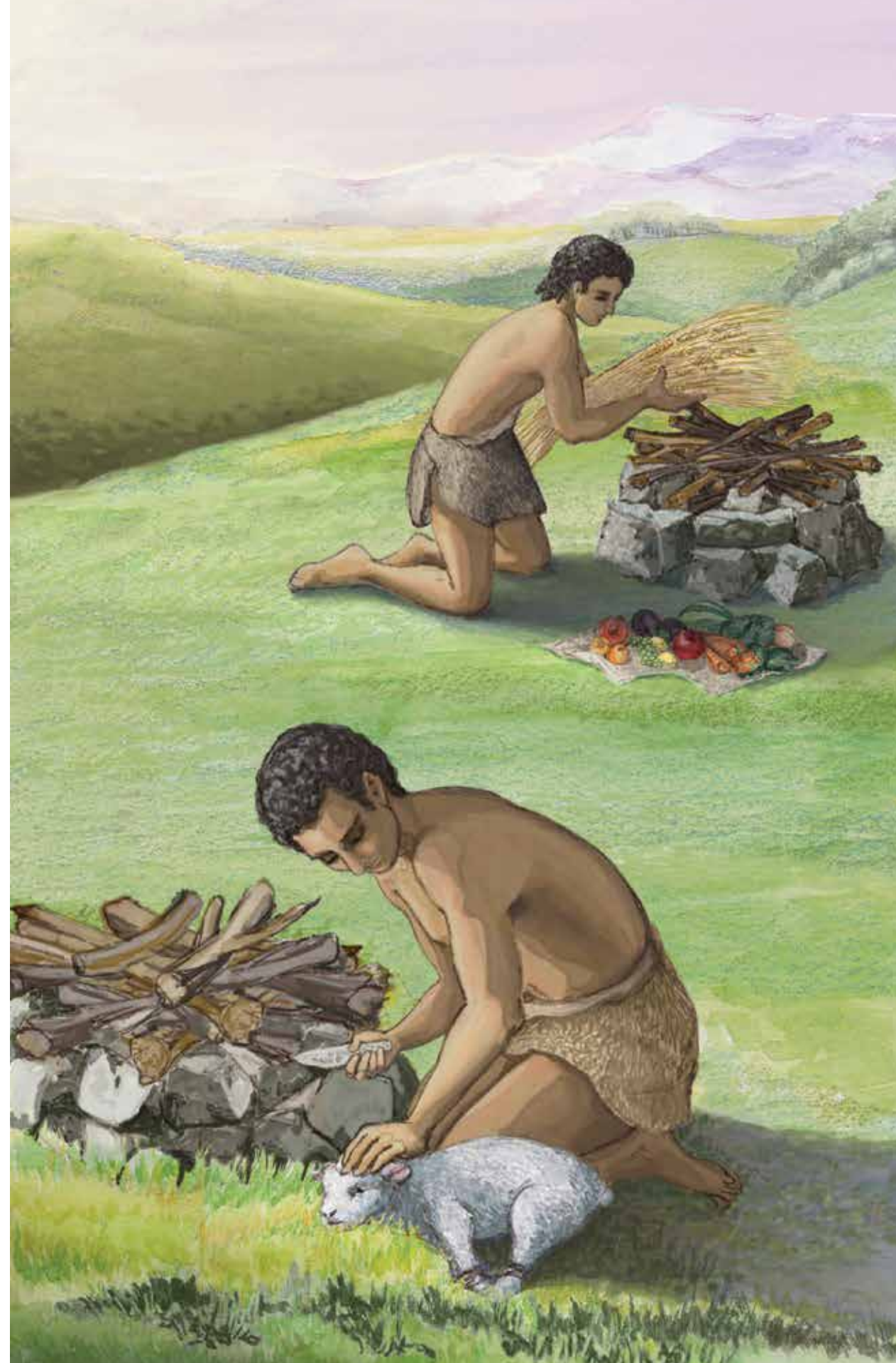
이제 가인과 그가 하나님께 드리려는 것을 보세요. 과일과 채소 중에서 정말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가 이 제물을 생산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제물에는 피가 없고 죽음의 값이 없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그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보세요. 정말 끔찍한 장면이에요! 어린양이 묶여 있고 곧 죽을 거예요. 아벨이 그 어린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어린양에게 놓으셨어요. 아벨 자신이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어린양의 피를 받으셔서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아벨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모든 죄인들은 죽음의 벌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공의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그들 대신 어린양의 죽음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속죄제의 법”이라고 불러요(레위기 6:25 바른성경).

속죄제의 법은 죄와 죽음의 법에서 아벨을 자유롭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어떤가요?





장면 23

받으심과 거절하심

가인의 제단이 보이나요? 그 위에 뭐가 있나요? 시들어 가는 농작물이에요. 이제 아벨의 제단을 보세요. 그 위에 뭐가 있나요? 피와 재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 두 형제와 그들의 예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여호와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창세기 4:4-5 쉬운성경)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거절하셨는지¹⁰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렇게 간단히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드린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그를 의인이라 부르셨습니다(히브리서 11:4 쉬운성경)

아벨이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받고 의인이라 불리게 되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선물이었어요.

하나님은 아벨의 죄를 그 어린양에게 얹으셨어요. 그 어린양은 아벨 대신 죽었어요. 그 어린양의 피는 흘러졌고 그 몸은 불에 타서 재가 되었어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노가 아벨 대신 양에게 쏟아졌어요.

왜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희생양을 기뻐하셨나요? 이 세상이 지은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어느 날 오실 구세주를 그 양이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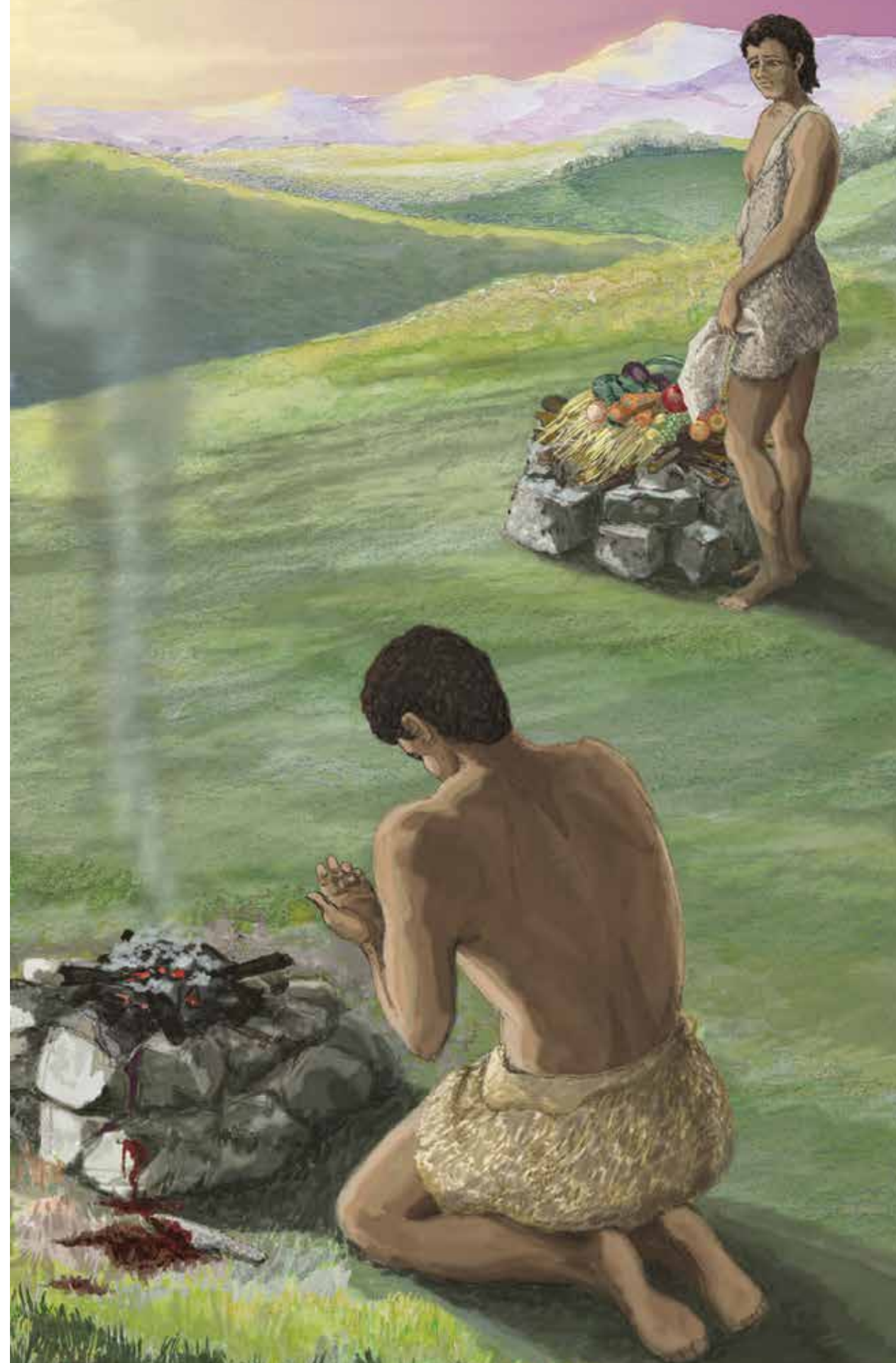
아벨이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나중에 아벨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와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 가는 거예요. 속죄제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을 이겼어요.

가인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벌을 받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어요. 가인은 종교적인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어요. 죄와 죽음의 법이 먹구름처럼 그를 계속 뒤덮고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지 않는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친구처럼 알 수 없어요. 그는 하나님을 심판자로 만나게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인을 변호하는 말을 해요. “가인은 농부였어요. 그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가인은 자기 곡식을 아벨의 양 하나와 바꿀 수도 있었고, 아벨의 양에 자기 손을 얹어서 같은 제단에서 예배할 수도 있었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나요?

가인이 회개하고 올바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나요?





장면 24 첫 살인

여호와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거절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가인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셨어요.

회개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이 어떤 도시로 여행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기차에 올라탔는데 보니까 기차를 잘못 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잘못을 인정하고 그 기차에서 내려 올바른 기차로 갈아 탈 거예요. 그것이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회개한다는 말은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 참된 것에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내 죄 때문에 내가 나를 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내 죄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봐야 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이 회개하여 자기 방법을 더 이상 믿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화가 났느냐? 왜 고개를 떨구었느냐? 만약 네가 옳다면 어째서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그러나 네가 옳지 않다면 죄가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창세기 4:5-7 우리말성경)

가인은 너무 교만해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가인은 동생에게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는 자기 방법대로 그 부끄러움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어요.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들로 나가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들에 나가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죽였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

가인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했느냐? 네 동생 아벨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호소하고 있다(창세기 4:8-10 쉬운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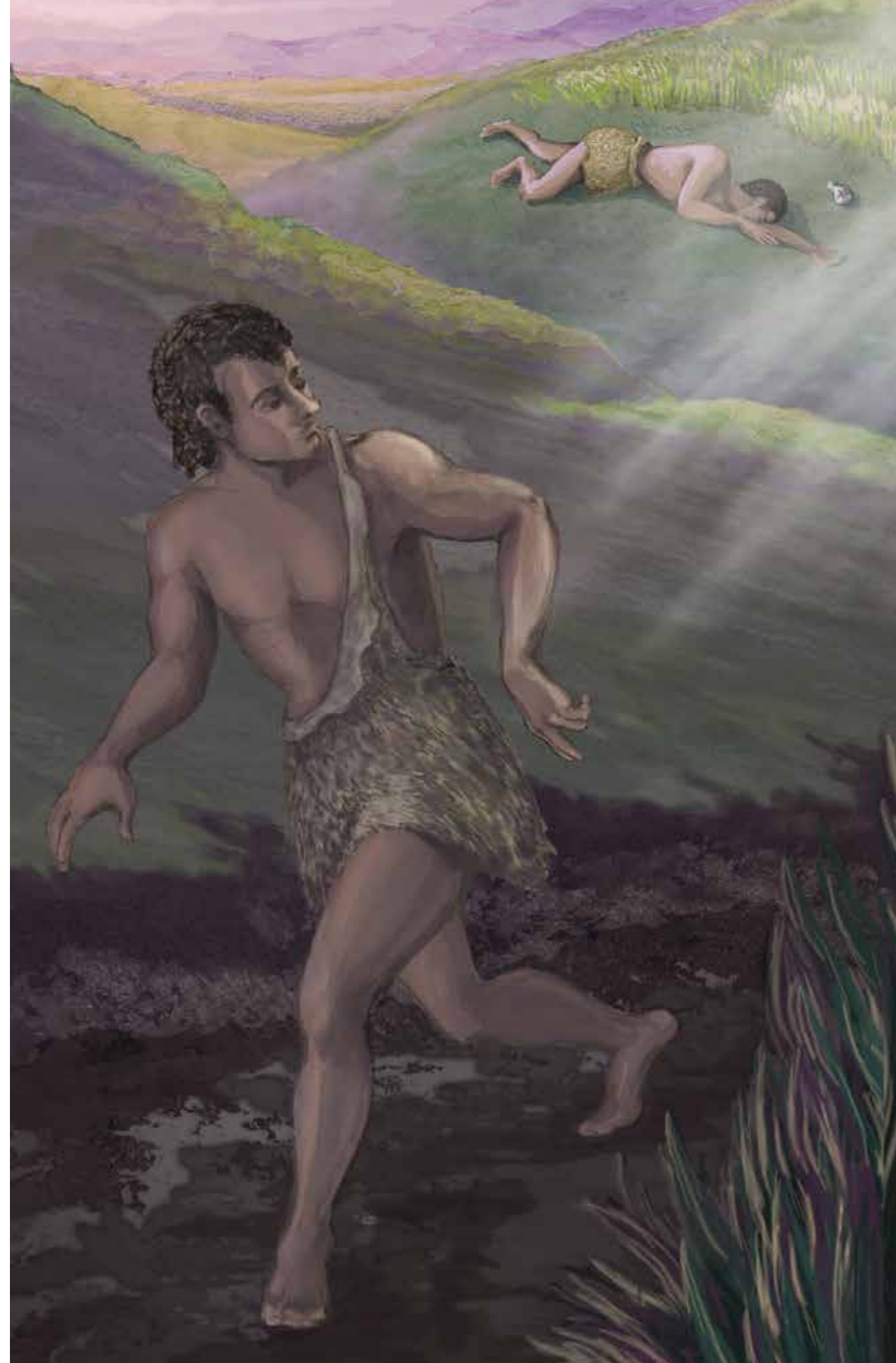
아벨의 혼과 영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갔지만, 그의 몸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나라에 맞는 영광스런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미래의 그날까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거절했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창세기 4:16 쉬운성경)

가인은 반항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동쪽으로 옮겨서 성을 쌓았어요. 가인과 그의 아내는 자녀가 많았어요. 그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아들의 손자들이 처음으로 쇠로 된 도구와 악기를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굉장히 똑똑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SCENE 25

인내와 심판

아담이 처음 범죄 한 이후 열 세대가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그 가족들에 대해 가슴 아픈 평가를 하셨어요.

사람의 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과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습니다(창세기 6:5 우리말성경)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육체의 끝이 이르렀다. 그들로 인해 땅이 폭력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다. 내가 곧 그들을 세상과 함께 멸절하겠다.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고 그 방주에 방들을 만들어라. 그 안쪽에 역청을 발라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은 이러하니...”(창세기 6:8, 13-15 우리말성경)

삼층으로 된 이 넓은 배는 길이가 축구장의 한 배 반 정도여서 모든 동물들 한 쌍씩과 속죄제를 위한 동물들이 일곱 쌍씩 들어갈 충분한 공간이 있었어요. 이 방주에는 환기 구조와 커다란 문이 하나 있어야 했어요.

한 세기 동안 노아는 자기 아내와 세 아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함께 방주를 지었어요. 노아가 일을 하면서 이 세상에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경고했지만 사람들은 노아를 놀릴 뿐이었어요.

마침내 방주가 준비되었어요. 노아의 가족들은 양식을 채워 넣었어요. 하나님은 동물, 파충류, 곤충과 새를 데려오셨어요. 그들이 방주로 들어가서 수많은 칸에 자리를 잡는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을 거예요!

노아와 가족들도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안전한 장소에 들어온 다른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어요. 성난구름이 지구를 감쌌고, 번개가 번쩍이고, 천둥은 요란한 소리를 냈어요.

그날에 거대한 깊음의 샘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비가 사십 일 밤낮으로 땅에 쏟아졌습니다(창세기 7:11-12 우리말성경)

이것은 역사적으로 가장 끔찍한 재해였어요. 방주 안에서 보호받은 여덟 명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했어요. 교만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이 진리를 배우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지질학과 화석 기록들은 성경의 기록을 지지하고 있어요. 사하라에서 히말라야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과 산맥에서 바다생물 화석들이 발굴되고 있어요.

자비 때문에 하나님은 인내하시지만, 공의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실 거예요.





SCENE 26 새로운 시작

그러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창세기 8:1 우리말성경)

거대한 방주는 떠내려 오다가 마침내 터키 동부의 커다란 두 개의 봉우리가 있는 아라랏 산에 멈추었어요.

노아는 세 번이나 비둘기를 날려 보내 마른 땅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는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요. 두 번째는 비둘기가 부리에 올리브 나무 잎사귀를 물고 노아에게 돌아왔어요. 세 번째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비둘기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은 거예요! 노아는 이제 방주에서 나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홍수가 시작된 지 꼬박 일 년이 지났어요.

노아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방주에서 나오게 한 뒤에 제일 먼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들과 정결한 새들 가운데 몇을 잡아 그 제단 위에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좋은 향기를 맡으시고...(창세기 8:20-21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는 변하지 않아요. 죄는 여전히 죽음으로 값을 치러야 했어요.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 올려 진 제단 위에서 죄 없는 동물들의 피를 흘리고 그 몸을 불로 태운 이유예요. 이런 희생은 죄에 대해 정확한 값을 치르기 위해 언젠가 이 세상에 오실 죄 없으신 메시아를 가리킨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창세기 9:1 우리말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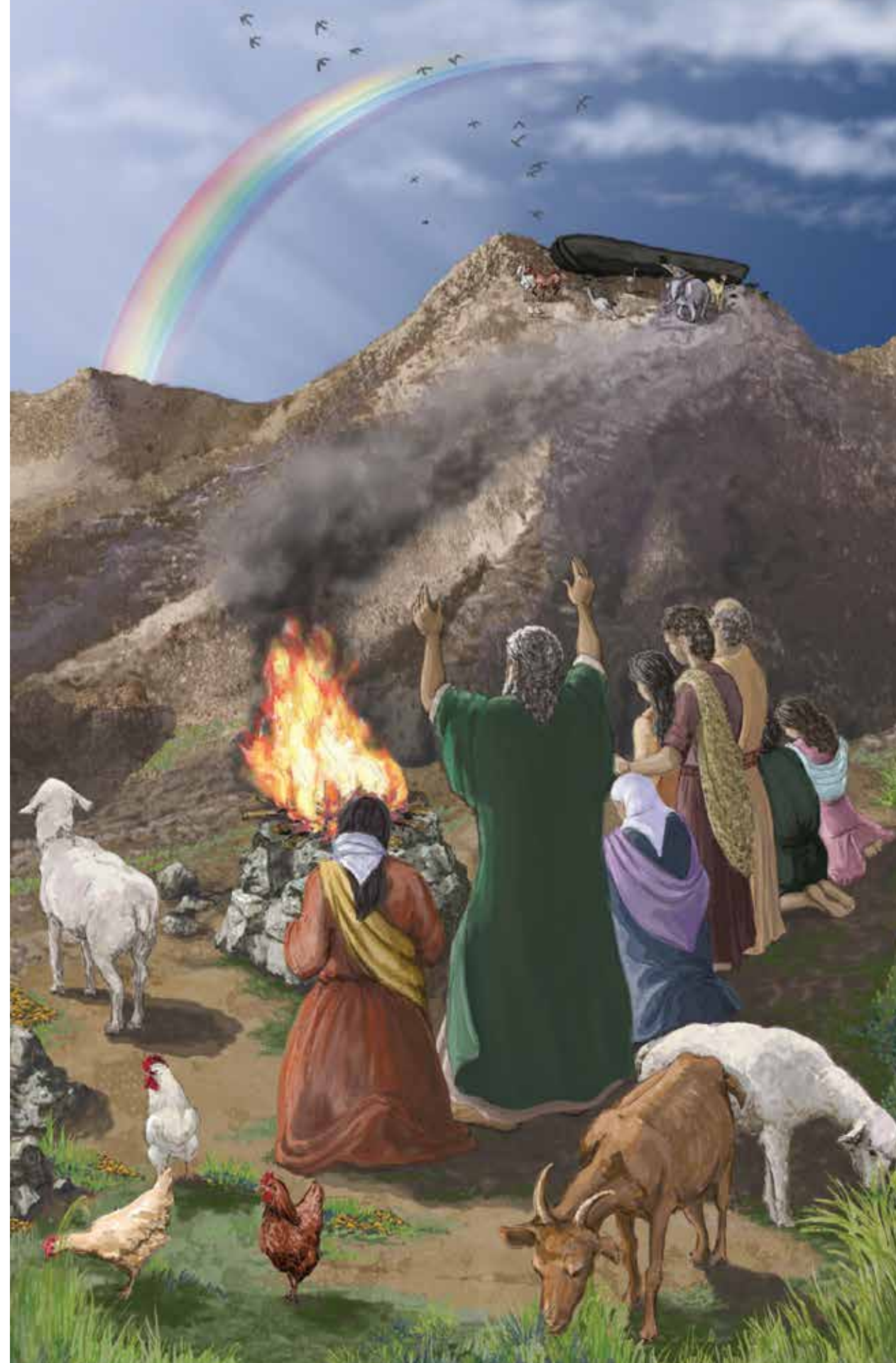
하나님은 지구 행성과도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구름 속에 내 무지개를 두었으니 그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물이 홍수가 돼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는 일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창세기 9:13, 15 우리말성경)

하나님은 그 언약의 표시로 하늘 구름 속으로 높이 솟은 영광스런 무지개를 드러내 주셨어요. 하나님은 다시는 전 세계적인 홍수를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벌하시든, 보호하시든 언제나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있어요.

언제든지요.





장면 27 교만의 탑

축 복과 함께 새로운 시작이 되었지만 몇 세대가 지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의 방법으로 살아갔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라.”(창세기 1:28; 9:1 우리말성경)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 가며 시날 땅[오늘날 이라크]에서 평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의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창세기 11:1-4 쉬운성경)

이 성의 건축자들은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는 대신 그들을 찬양하기를 바랐어요. 그들도 사탄처럼 교만과 반역의 마음에 이끌려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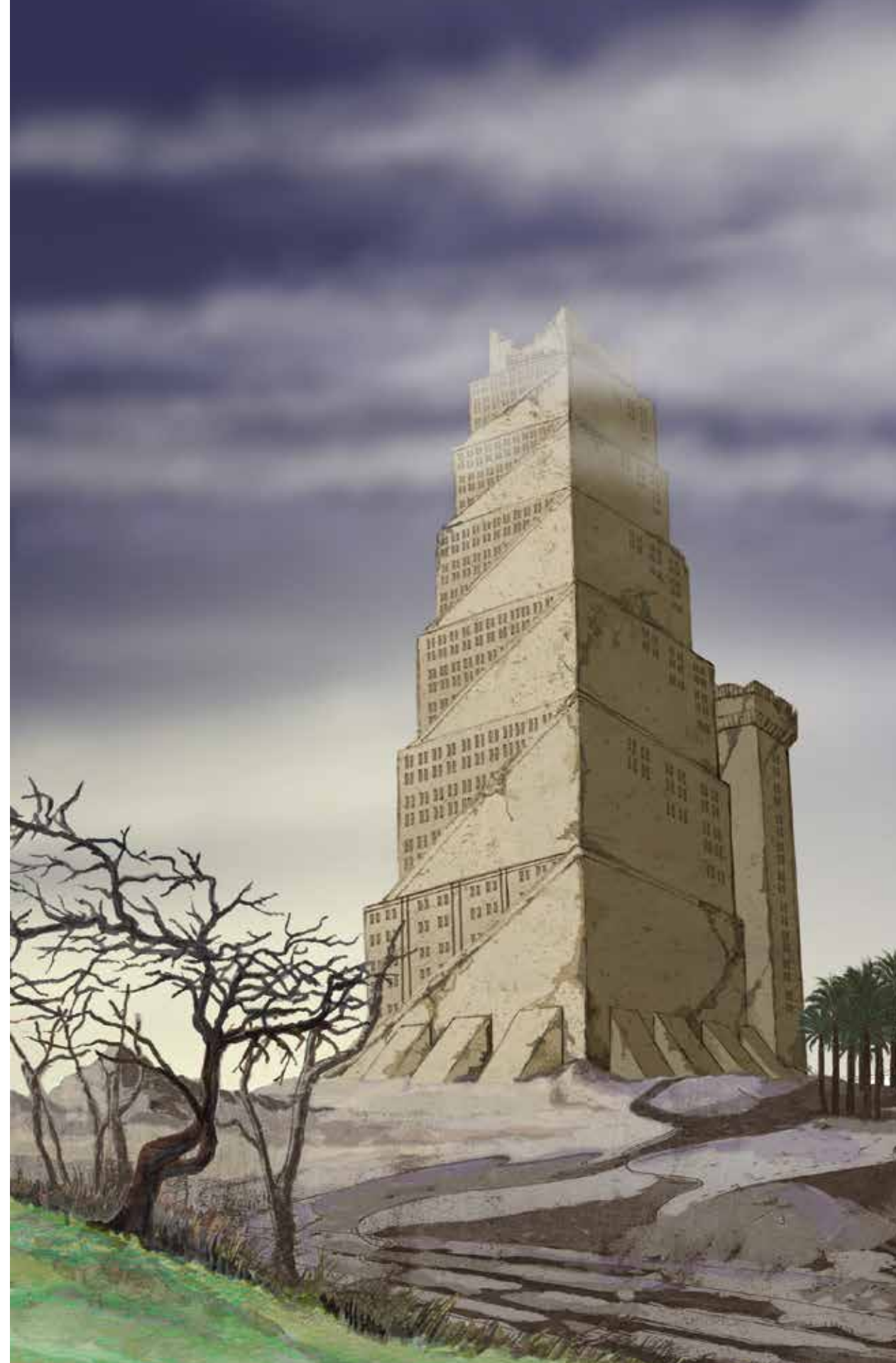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우려는 그 사람들은 오늘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나라에 이르려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닮았어요. 가인처럼, 그 사람들도 종교적이었지만 용서받고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분의 계획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언어를 혼란하게 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부터 온 땅에 흩어 버리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것을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바벨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언어를 혼란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창세기 11:7-9 우리말성경)

여호와 하나님이 각 가족이나 씨족들에게 서로 다른 언어를 주셔서 그들의 건축 계획을 멈추게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대로 바벨을 떠나 이 땅을 가득 채울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은 그들의 탑을 완성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장면 28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선 지자 노아의 시대로부터 열 세대가 지났어요. 사탄이 온 나라들을 꼭 쥐고 있었어요. 아니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 자기들의 종교를 믿었어요.

어떤 나라들은 태양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태양에게 예배했어요. 또 다른 나라들은 달에게 절을 했어요.

주전 1925년쯤이었어요.

아라비아의 동북쪽 땅에 아브람이라는 나이든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의 이름을 *많은 나라의 조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바꾸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75세였어요. 그의 아내 사라는 65세였는데 아이가 없었어요. 그들의 부모와 이웃들은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들을 예배하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어느 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고향, 네 친척, 네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기 12:1-3 우리말성경)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만약 그가 아버지의 가족을 떠나서 알려지지 않은 땅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가지 큰일을 해 주실 거예요.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실 거예요.
2. 그 새로운 민족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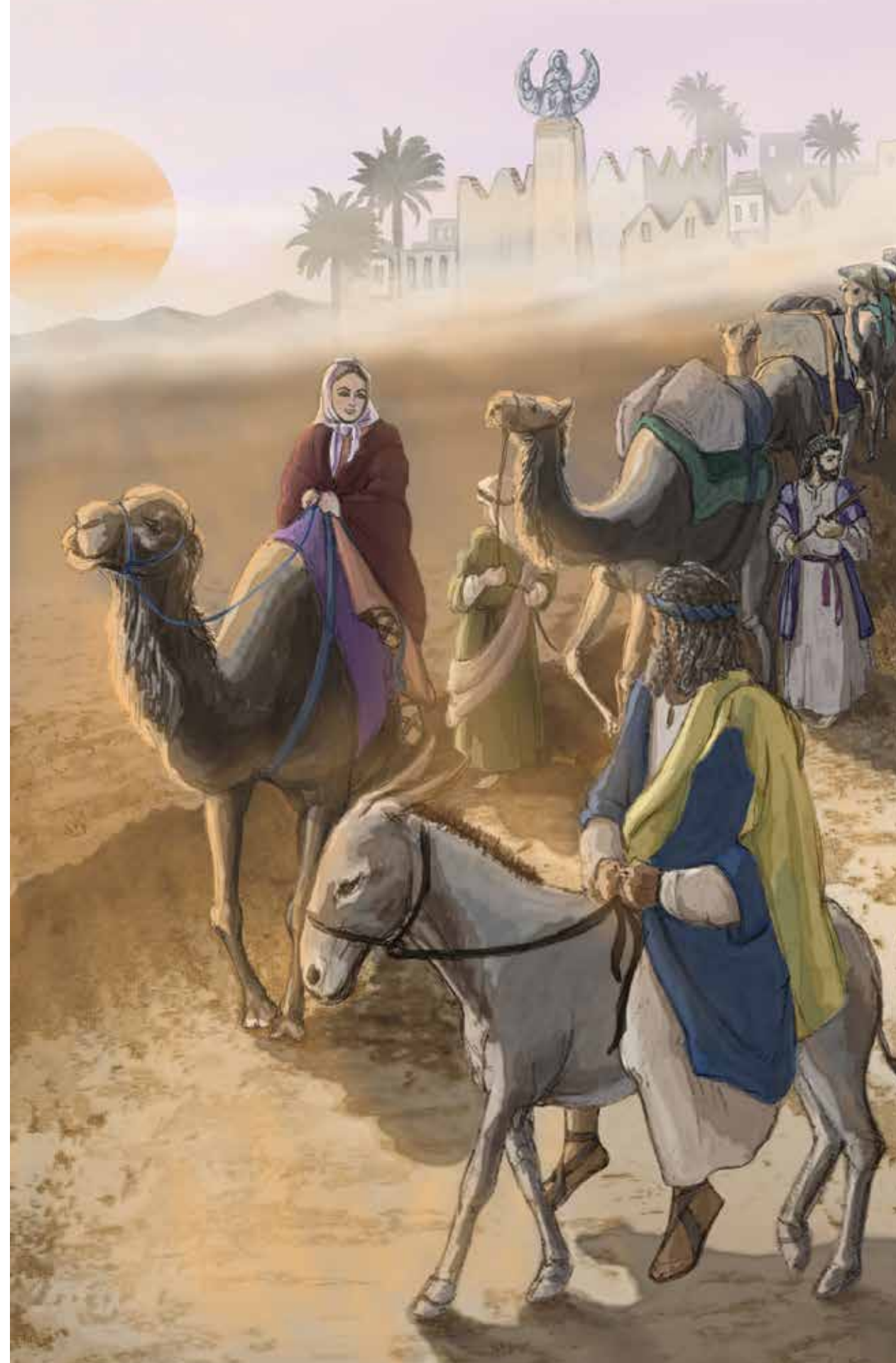
만일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 그는 선지자들과 성경과 세상의 구주가 나오게 될 한 민족의 조상이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가야 할 곳도 모른 채 자기 고향을 떠났습니다(히브리서 11:8 쉬운성경)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친척들을 떠나고, 가족들의 종교에 등을 돌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참되신 한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그 사람들에게 비난 받는 것을 견뎌내기로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항상 편한 길은 아니지만 항상 최고의 길이에요.





장면 29

약속을 지키시는 분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는 늙었고 자녀는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불가능한” 약속에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졌습니다(야고보서 2:23; 창 15:6 현대인의 성경)

모든 아담의 자손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죄인이었지만, 아벨과 노아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 있는 아브라함의 기록에 의롭다고 기록해 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의 아내 사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녀도 의롭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기다리는 것은 어려워요.

사라가 임신하게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오면서 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지낸지 십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로 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로 했어요. 그 지방 풍습에 따라 사라는 자기의 이집트인 하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잠을 잤고, 하갈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들은 그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어요.

13년 정도 지난 후에, 아브라함이 99세이고 사라는 89세일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 아이를 이삭이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에 관해서는...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는 네게 낳아 줄 이삭과 세우겠다(창세기 17:20-21 우리말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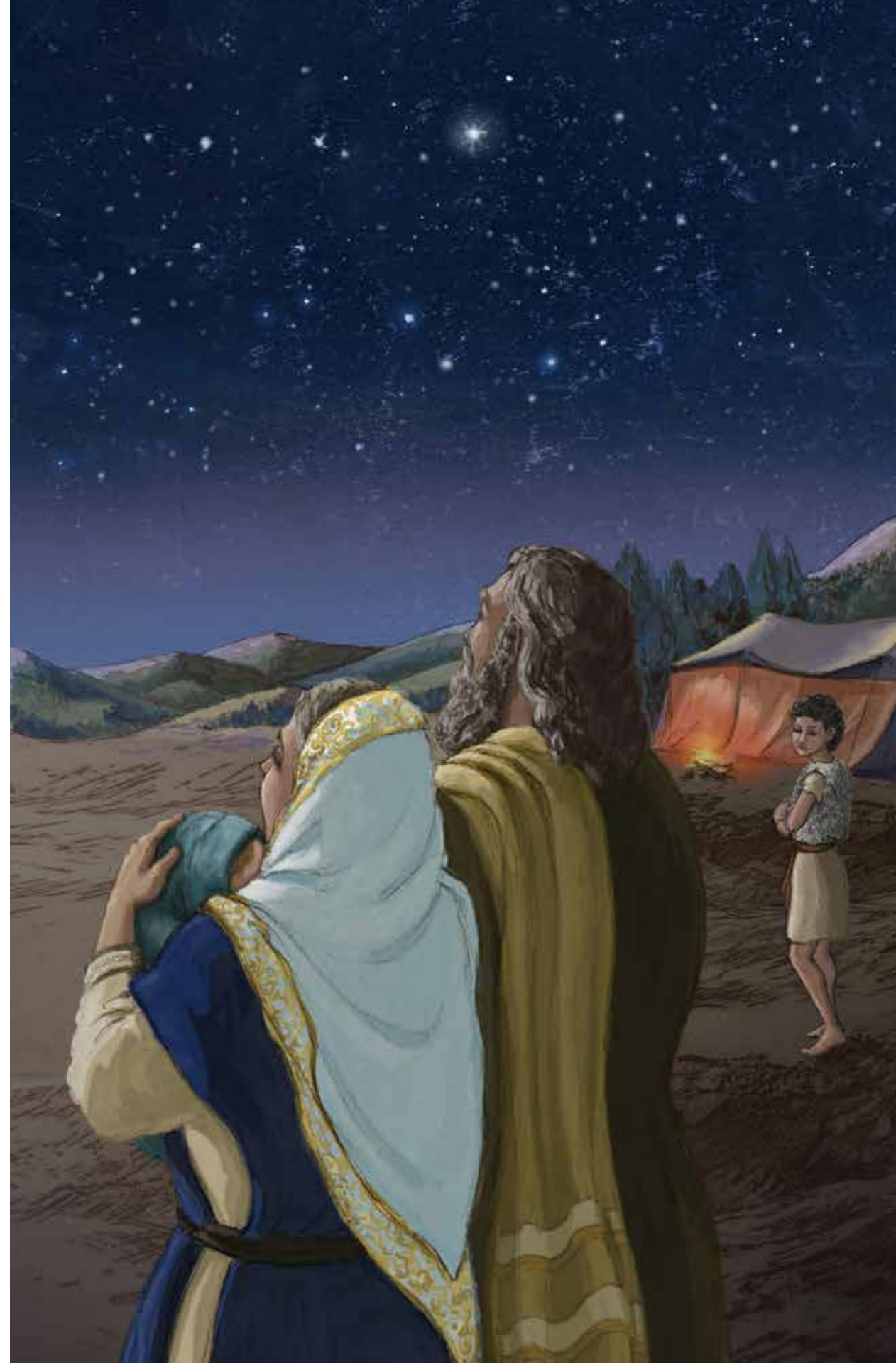
일 년 후 사라는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낳았어요.

그림을 보세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가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게 보이나요? 그들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하갈과 이스마엘은 내보내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선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아이가 자라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스마엘은 광야에서 살았고 훌륭한 활잡이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바란 광야에서 살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집트 땅에서 여자를 데려다가 이스마엘의 아내로 삼아 주었습니다(창세기 21:20-21 쉬운성경)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복을 주신 강대한 아랍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이삭은 집에 머무르면서 아버지의 소떼와 양떼를 돌봤어요. 때때로 이삭은 아버지를 도와 흠이 없는 어린양을 골라 그들의 죄를 위해 그 양을 죽이고 제단 위에서 태웠어요. 그렇지만 이삭도 그의 아버지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희생에 대해서는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장면 30 극한의 시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들을 사용해서 죄인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몇 가지 예언과 예표를 이 세상에 나타내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끔찍한 일, 그 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납득할 수 없는 어떤 일을 하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끝까지 시험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생애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성경에서 직접 보겠어요.

이런 일이 있는 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¹¹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엮고 하인 두 사람과 그 아들 이삭을 준비시켰습니다. 번제에 쓸 나무를 준비한 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해 떠났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 있으라. 나와 아이는 저기 가서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이 번제에 쓸 나무를 자기 아들 이삭의 등에 지웠습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둘이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삭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아들아?”

이삭이 말했습니다.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두 사람은 함께 계속 길을 갔습니다(창세기 22:1-8 우리말성경)





장면 31

죽기로 되어있는 아들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산에 오르기 전에 종들에게 한 말을 들었나요?

“우리가 경배한 다음 너희에게 함께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몸이 불에 태워진다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히브리서 11:19 우리말성경)

하나님은 이삭을 (약속하신 구원자가 오실)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삭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하는 제물을
받으신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숫양이나 어린양이 없이 제사 드리는
곳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내 아들아,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어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에 이르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들을 잘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 다음 자기 아들 이삭을 묶어 제단 위에,
쌓아 놓은 나무 위에 눕혔습니다.

아브라함이 손에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와와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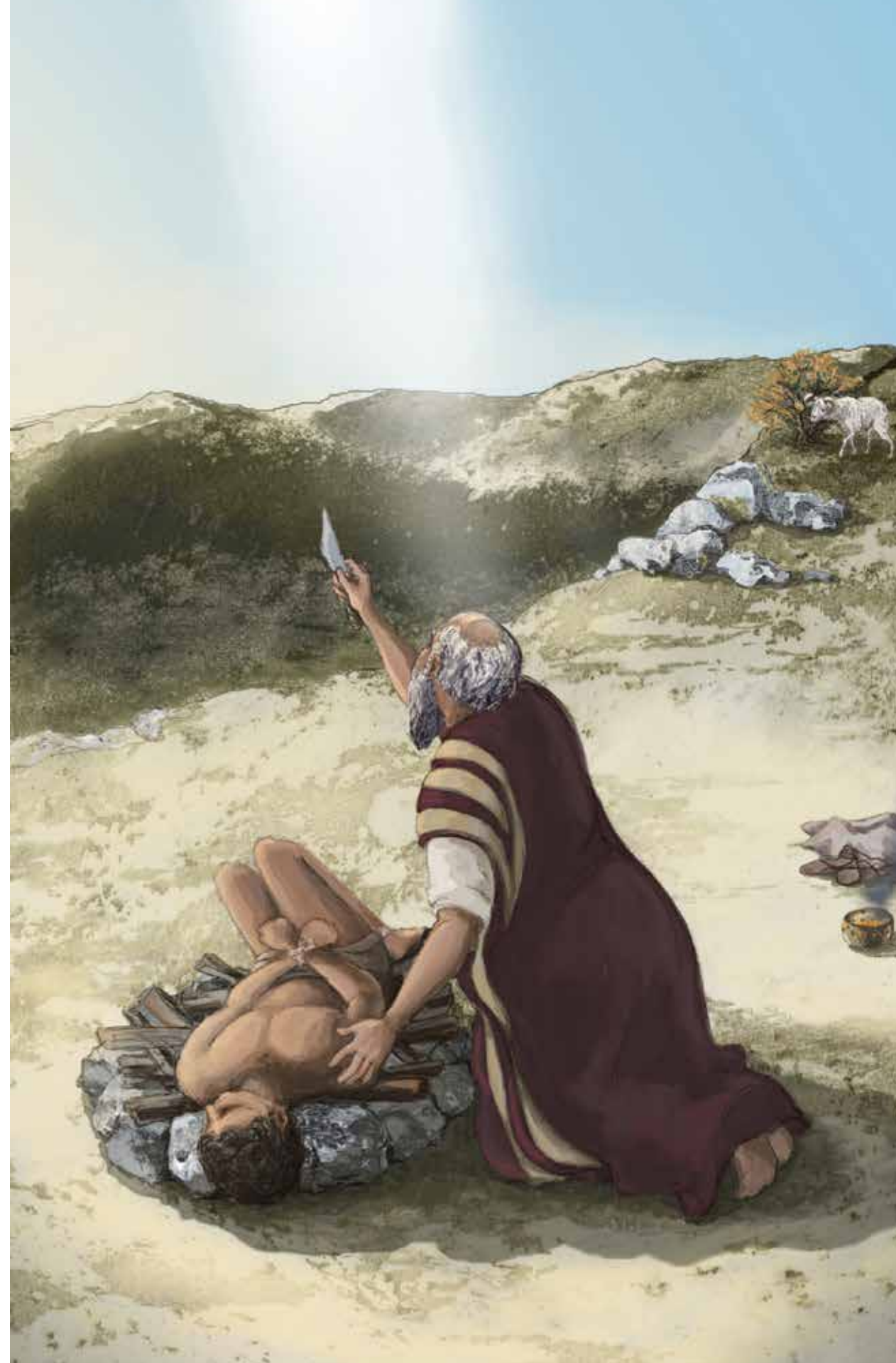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곧 네 외아들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았으니 이제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창세기 22:9-12 우리말성경)

아브라함과 아들은 너무나 기뻐요! 하지만 제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덤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창세기 22:13 우리말성경)

아브라함의 아들은 죽음의 형벌에서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대신할 제물을 이미 준비해 두셨어요.





장면 32

예표와 예언들

하나님께서 죽기로 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을 어떻게 구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흠 없고, 죄 없는 동물을 준비하셔서 그 대신 죽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고 보니 숫양 한 마리가 덩불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아들 대신 번제물로 드렸습니다(창세기 22:13 우리말성경)

이 사건은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키고, 온 세상 모든 민족의 죄인들을 구원하실 거룩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실 하나님의 계획을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이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창세기 22:14 우리말성경)

왜 아브라함은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해 주신 곳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몸값을 준비해 주시지 않았나요?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부른 것은 선지자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산에서 어느 날 온 세상의 죄의 빛을 완전히 갚기에 충분할 만큼 고귀한 피와 함께 누구든지 그 제물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을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그 제단 위에 숫양을 드린 지 약 1,900년이 지난 후에 약속된 구원자께서 친히 이 역사적인 사건을 되돌아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요한복음 8:56 쉬운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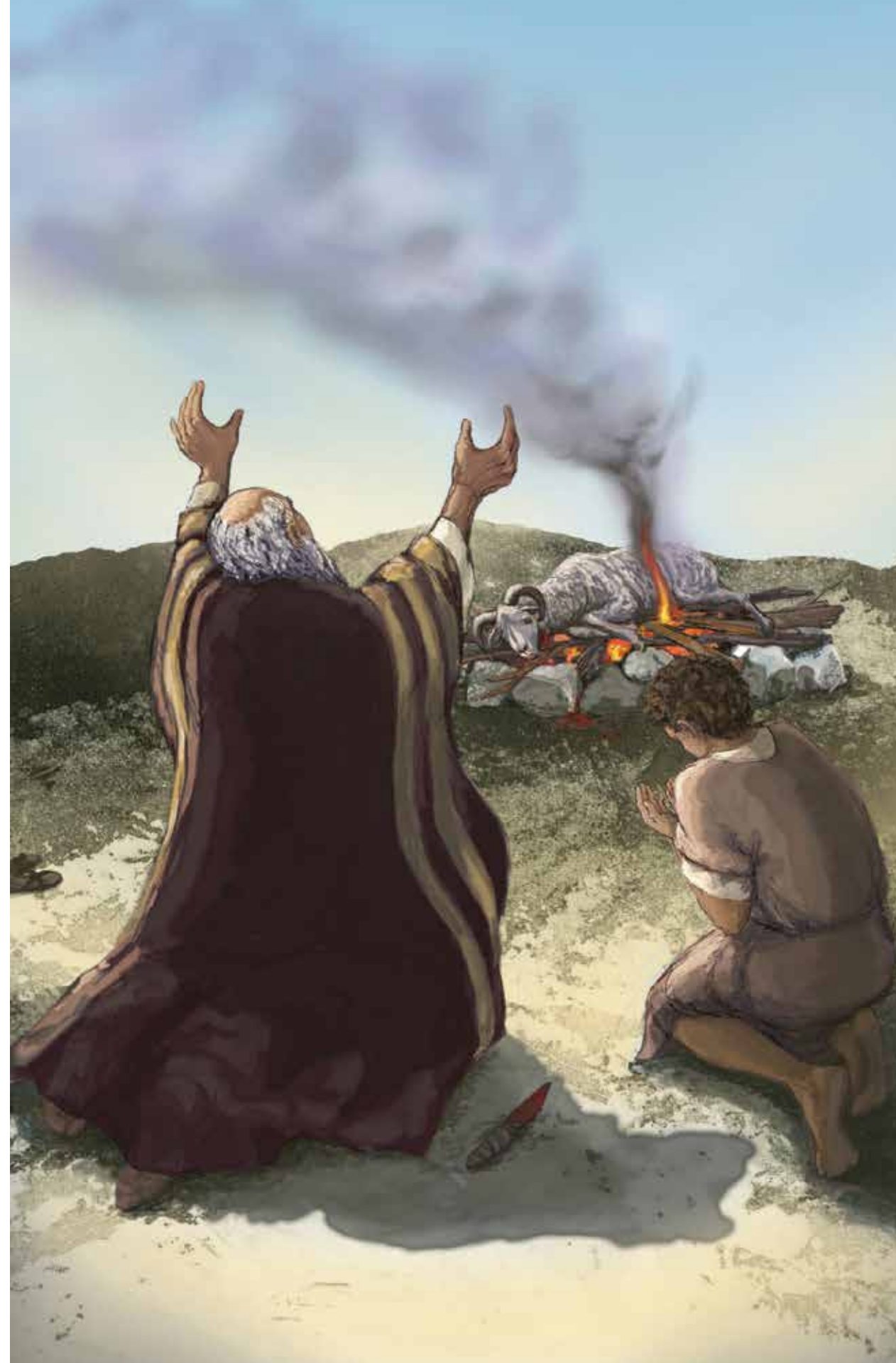
그 숫양의 연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 산 언덕에서 희생되어질 미래의 번제물을 살짝 보게 해주셨어요. “어린양은 어디 있나요?”라는 아들의 질문에 아브라함이 한 대답이 갑자기 더 깊은 의미가 있게 되었어요.

“내 아들이,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창세기 22:8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들에게 준비해 주신 것은 어린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숫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어린양은 어디에 있나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대답을 준비해 주실 거예요.





장면 33

믿음직스럽고 기록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 주신 두 가지 큰 약속을 기억하고 있나요?
첫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창세기 12:2 우리말성경)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열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들의 가족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창세기 12:3 쉬운성경)

하나님은 이 약속도 지키실 거예요. 하나님은 종종 반역적이기도 했던 이 특별한 민족과 함께 일하시면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지 보여주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보호하실 때마다 여러분과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호하고 계신 거였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민족에서 선지자들과 성경과 약속된 구원자가 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어요.

주전 1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모세를 그분의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모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을 기록했어요. 또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셔서 사백 년 동안 종살이 하던 아브라함의 자손 삼백만 명을 구해내셨어요. 그들이 거친 사막을 지나는데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준비해 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빛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팔로 홍해에 그들이 건너갈 길을 열어 주셨고, 먹을 양식을 하늘에서 내려주시고 마실 물을 바위에서 나게 하셨으며, 그들을 시내 산으로 데려 오셨어요.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게....나라가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출애굽기 19:6 바른성경)

하나님은 이 민족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어서 그들 주위의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백성들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이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진노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해 땅이 흔들리고 불이 타오르며 큰 나팔 소리가 나는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시내 산은 온통 연기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불로 시내 산 위에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연기가 화로 연기처럼 위로 치솟아 오르고 산 전체는 몸치 흔들리며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져 갔습니다. 그때 모세가 말했고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출애굽기 19:18-19 우리말성경)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가지 법을 주셨어요.

이제 이 새로운 민족에게는 열 가지 법을 주실 거예요.





장면 34 십계명

이 나라 대부분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만큼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시내 산에서 우레 같은 소리로, 그 다음에는 두 돌 판에 새겨 주셨어요.

십계명을 읽어 보세요.(오른쪽에 출애굽기 20장을 요약해 놓았어요).

하나님께서서는 그들이 이 열 개의 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지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신명기 27:26 바른성경)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들은 뒤에 어떻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들이 아직도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에서 살만큼 여러분이 충분히 선하다고 생각하나요?

제 일 계명을 다시 읽어 보세요. 항상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두고 있나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제 오 계명을 읽어 보세요. 만약 아버지나 어머니께 불순종한 적이 있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제 제 팔 계명을 보겠어요. 만약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쳤거나 시험 때 부정행위를 했다면 이 계명을 어긴 거예요. 거짓말을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제 구 계명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마지막 계명은 다른 사람의 것을 가지고 싶어만 해도 잘못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를 보고 계세요.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나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 계명을 어기게 되면 율법 전체를 다 어긴 자가 됩니다(야고보서 2:10 쉬운성경)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모른척 하실 수 없어요. 죽은 돼지의 썩어가는 시체와 한 방에서 지내야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 죄의 모습이에요. 악취나는 시체에 향수를 뿌린다고 방이 깨끗해지지 않는 것처럼 종교적인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거울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의 율법은 내 마음에 있는 죄를 나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거울이 내 얼굴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십계명도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지는 못해요.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다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뿐입니다

(로마서 3:20 현대인의 성경)

자신이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충분히 선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해요.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3.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5. 네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지니라

7. 간음하지
말지니라

8.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9.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10. 네 이웃의 아내나
네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장면 35 더 많은 예표들

십계명은 이 새로운 민족에게 옳고 그름의 분명한 기준을 제공해 주었어요. 그것은 좋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율법은 나쁜 소식도 가져왔어요. 율법은 그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죄 때문에 그들 모두가 반드시 죽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좋은 소식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덮어 주시기 위해 어린양이나 황소, 염소 그리고 비둘기가 흘린 피를 받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레 같이 십계명을 말씀하신 그날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단을 만들고 그 위에...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출애굽기 20:24 우리말성경)

모세가 어린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백성들이 어린양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이 보이나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분의 용서 방법을 믿기 때문에 죄 없는 어린양에게 그들의 죄를 올려놓은 거예요. 이제 그 어린양은 제단에서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 흘린 피가 백성들의 죄를 덮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양의 몸은 불에 타서 재가 될 거예요. 그 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용서되었어요!

죄 용서를 위해 동물의 피로 제사 드리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예표일 뿐이에요.

해마다 계속 드리는 똑같은 제사로는 예배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가능했다면 예배드리러 사람들이 단번에 깨끗하게 되어 다시는 죄의식을 갖지 않았을 것이며 제물을 드리는 일도 그만두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해마다 죄를 생각나게 할 뿐입니다.

그것은 황소나 염소의 피가 죄를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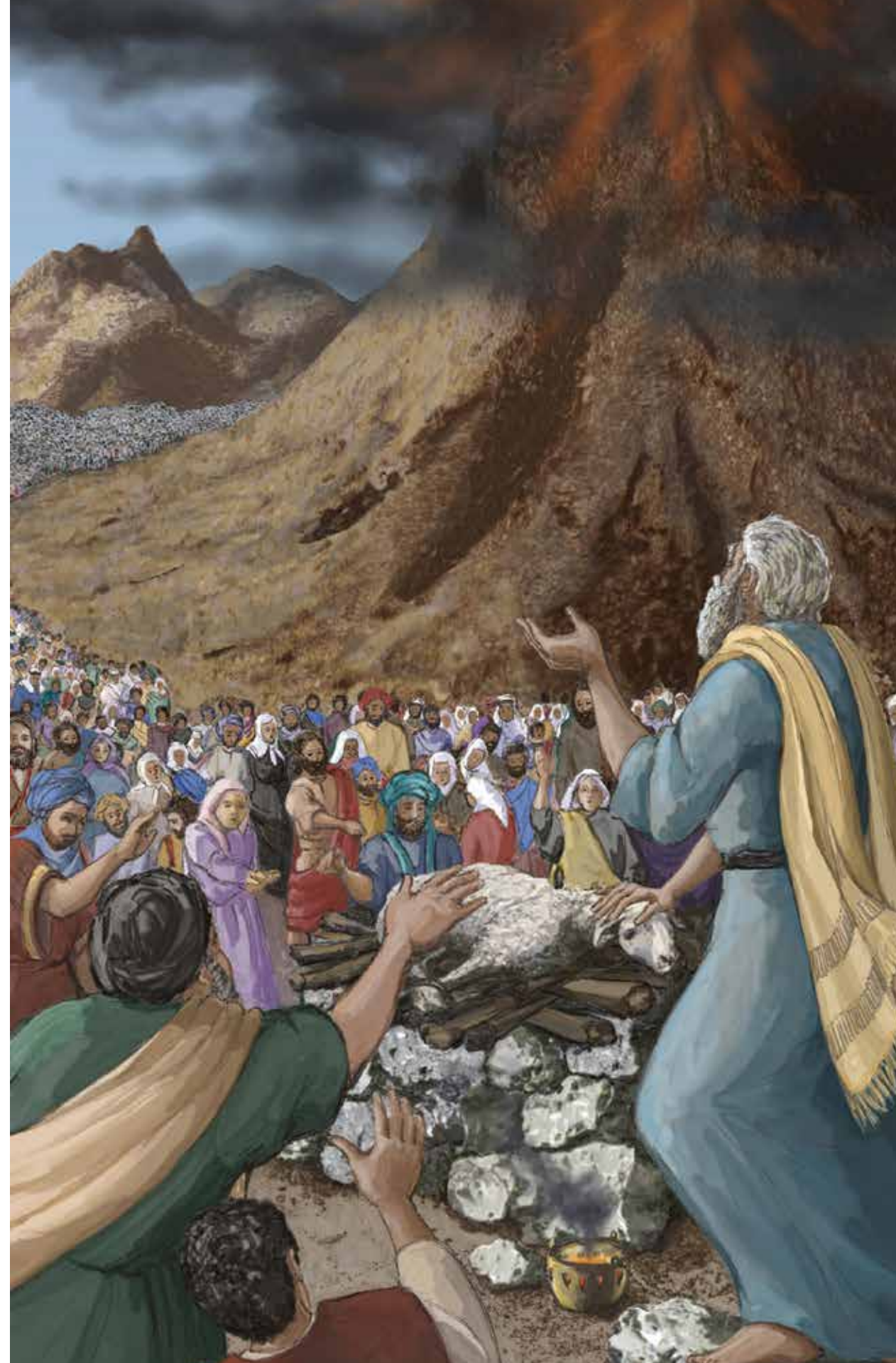
(히브리서 10:1-4 현대인의 성경)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지 않았어요.

어린양의 가치는 사람의 가치와 같지 않아요. 그것은 차를 사려고 할 때 장난감 자동차로 진짜 자동차의 값을 치를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린양의 피로는 죄와 죽음의 법이 요구하는 높은 값을 치를 수 없어요.

더 나은 제물이 필요했어요.

동물로 드리는 제사들은 온 세상이 진 죄의 빛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줄 수 있는 분에 대한 예표를 죄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장면 36

더 많은 예언들

구원자가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지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이 메시아 왕에 관한 예언들을¹² 더 많이 기록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약속들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 선지자 이사야 7:14 개역개정

“그러나 너 베들레헴...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의 근본은 먼 옛날,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간다.”

— 선지자 미가 5:2 우리말성경

한 아이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얻었다....그의 이름은 기묘자....전능하신 하나님....평화의 왕이라 불릴 것이다.

— 선지자 이사야 9:6 우리말성경

너희의....하나님께서 오셔서....너희를 구원하신다. 그때 눈먼 사람의 눈이 열리고 귀머는 사람의 귀가 뚫릴 것이다. 그때 다리를 절던 사람이 사슴처럼 뛰고....

— 선지자 이사야 35:4-6 우리말성경

그는....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고

— 선지자 이사야 53:7 바른성경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찢었습니다.”

— 선지자 다윗, 시편 22:16 바른성경

그 약속된 구원자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죠? 그분이 누구일까요?
이 예언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제 2부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왕

— 신약 성경 —



장면 37 계속되는 왕의 이야기

왕의 책 1부가 재미있었나요?
구약성경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약이라는 말은 **계약**,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신약성경을 주시기 아주 오래 전에 말씀하셨어요.

“그 날이 오면 내가...새 언약을 맺을 것이니”(예레미야 31:31 바른성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처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죄악 됨을 보여주는 많은 율법들을 주셨어요. 또한 장차 오실 구원자에 대한 많은 예표와 예언들도 주셨어요. 옛 언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메시아 왕이 **오신다**고 예언을 했어요. 하지만 새 언약에서는 메시아 왕이 **오셨다**는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신약성경에는 복음서가 들어 있어요. 아라비아어로 복음을 **인질(injil)**이라고 말해요. 두 가지 모두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복음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마태복음 1:1-2 우리말성경)

성경은 아브라함 자손들의 이름을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끊기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아브라함의 가족 계통을 통해 보내주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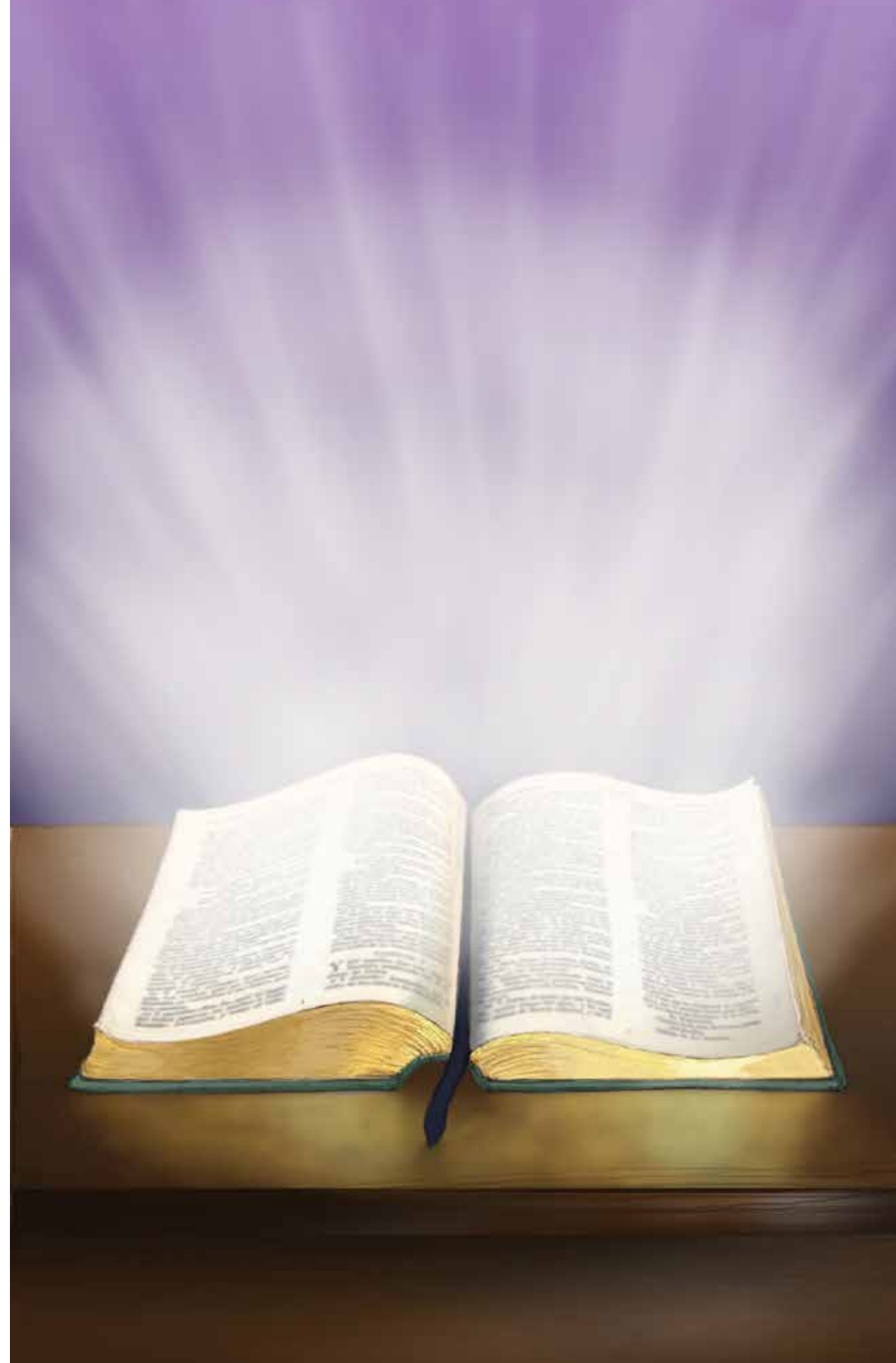
신약성경에는 네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왜 네 개일까요?
하나는 왜 안 되나요?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두 증인의 증언이나 세 증인의 증언으로 그 사건을 확정하여라.”(신명기 19:15 바른성경)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야기와 말씀을 입증하기 위해 단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을 택하지 않고 네 사람을 택해서 메시아의 삶에 대해 네 가지 다른 기록을 쓰게 하셨어요. 그들의 이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에요. 마치 네 명의 뉴스 기자가 같은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각자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지만, 네 가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경에는 모두 27권의 책이 있어요.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메시아께서 그의 사명을 마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전 폭행자였던) 바울과 (예수님의 동생들) 야고보, 유다 그리고 (어부) 베드로와 요한에게 영감을 주셔서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모든 책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왕과 왕의 계획에 대해 점점 더 많이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그분의 이야기의 나머지 부분을 볼까요.





장면 38 마리아 이야기

때가 되었어요. 수천 년 동안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 왕을 세상에 보내실 때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누구일까요? 그분이 어떻게 오실까요?

유대 헤롯 왕 때...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보내 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는데 그 처녀는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보아라. 네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는 위대한 이가 될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조상 다윗의 보좌를 주실 것이다... 그의 나라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처녀인 제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령께서 네게 임하실 것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누가복음 1:5, 26-27, 30-35 우리말성경)

가브리엘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얻어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예요*. 만일 여러분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왔다면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아프리카의 아들”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것이 아프리카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는 말인가요? 아니예요! 여러분이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는 죄로 멸망한 아담의 가문에 태어났지만 아담에게서 태어난 것은 아니예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요한복음 1:1-3, 14 우리말성경)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한 열매를 먹었던 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된 자손이 지금 한 처녀에게 잉태된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되는지 뒤에서 보게 될 거예요.





장면 39 요셉 이야기

마리아는 팔레스타인 북쪽의 국경 마을인 나사렛에 살고 있는 목수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유대인이었고,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윗 왕이고, 더 뒤로는 아브라함이에요. 요셉은 왕세자가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나라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 군인들이거리를 순찰했어요. 반역자로 의심되는 유대인들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처형 당했어요. 세무직원들은 백성들을 강탈했어요. 삶은 비참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들떠 있었어요. 이제 곧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게 될 거예요. 그는 결혼해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느라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땠을까요? 마리아가 그를 속인 것이 분명했어요.

요셉은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고 싶었어요. 그는 마리아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용히 약혼을 취소하기로 했어요.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라. 마리아가 가진 아기는 성령으로 임신된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예수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은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니다.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를 ‘임마누엘’이라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20-23 우리말성경)

요셉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어요. 너무나 영광스런 일이었어요! 마리아가 약속된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요셉 자신은 그 아이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메시아는 사람 어머니는 있지만, 사람 아버지는 없어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라고 할 텐데, 주께서 구원하신다, 간단하게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자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마태복음 1:24-25 우리말성경)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장면 40 오심

칠백년 전, 선지자 미가는 메시아 왕이 옛날 다윗 왕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마리아와 요셉은 북쪽으로 삼일정도 떨어진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질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로마 제국의 황제인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제국의 모든 백성들에게 즉시 조상의 마을로 돌아가서 세금 납부 등록을 하라고 법령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요셉과 만삭이 된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어요.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고
아기를 천으로 싸서 구유에 눕혔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빈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누가복음 2:6-7 우리말성경)

베들레헴은 (세금 신고를 하기 위해 마을에 온) 피곤한 여행객들로 붐볐지만 바로 그곳에서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어요. 복음서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첫아들을 낳고는(누가복음 2:6 우리말성경)

어머니 편에서 볼 때, 이 아기는 마리아의 첫 아들이었지만, 아버지 편에서 볼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바로 그 말씀이, 불타는 시내 산에서 우레같이 울리던 바로 그 음성이 이제는 한 아기의 부드러운 울음소리로 들려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나셨나요?

왕궁에서도 아니었고, 병원에서도 아니었어요. 길가의 여관에서도 아니었어요. 하늘나라에서 오신 왕은 아기 양이 태어나는 곳인 마구간에서 말구유를 침대로 삼아 태어나셨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분의 가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부요해지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고린도후서 8:9 현대인의 성경)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오심을 경축하기 위해 어떤 축하행사라도 준비할 수는 없었을까요?

준비하셨어요.





장면 41 목자들 이야기

하나님은 메시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 주셨나요?
황제인가요? 부유하고 유명한 사람인가요? 종교지도자들?

아니에요.

이 감격스런 소식을 가장 먼저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 제단에서 희생될 어린양들을
기르는 가난한 목자들이었어요.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 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완하게 둘러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 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¹³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싸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자 목자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 관해 들은 말을 알려 주었고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누가복음 2:8-18 우리말성경)

목자들이 한 이야기는 너무나 놀라웠어요!

구원자가 나셨어요! 우리가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졌어요! 천사가 그분이 주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천사 찬양대가 하늘에 가득하고, 밤이 낮처럼 환했어요! 메시야가
오셨어요! 그분이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신다구요!

몇 사람은 목자들의 말을 믿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지요. 하지만 믿든지 믿지 않든지
세계 역사를 돌¹⁴로 나누는 생일을 가지신 그 왕께서 사람들과 하나가 되셨어요.

태어난 지 팔 일째 되는 날에 아기는 할례를 받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 이름은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에 천사가
일러 준 것이었습니다(누가복음 2:21 쉬운성경)





장면 42 동방박사 이야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뒤에 요셉은 자기 가족이 머물 적당한 숙소를 마련했어요.

어느 날 박사들이(별을 연구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흥분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한 특별한 별의 인도를 받아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람들은 새로 태어난 왕을 찾아왔어요.

이 박사들에게는 한 가지 질문과 목적이 있었어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예수의 별을 보고 경배드리려고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헤롯은 몰래 박사들을 불러...말했습니다. “가서 살살이 뒤져 그 아기를 꼭 찾으라. 그리고 아기를 찾자마자 나에게도 알리라. 나도 가서 아기에게 경배할 것이다.”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서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춰 섰습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고 뿔 듯이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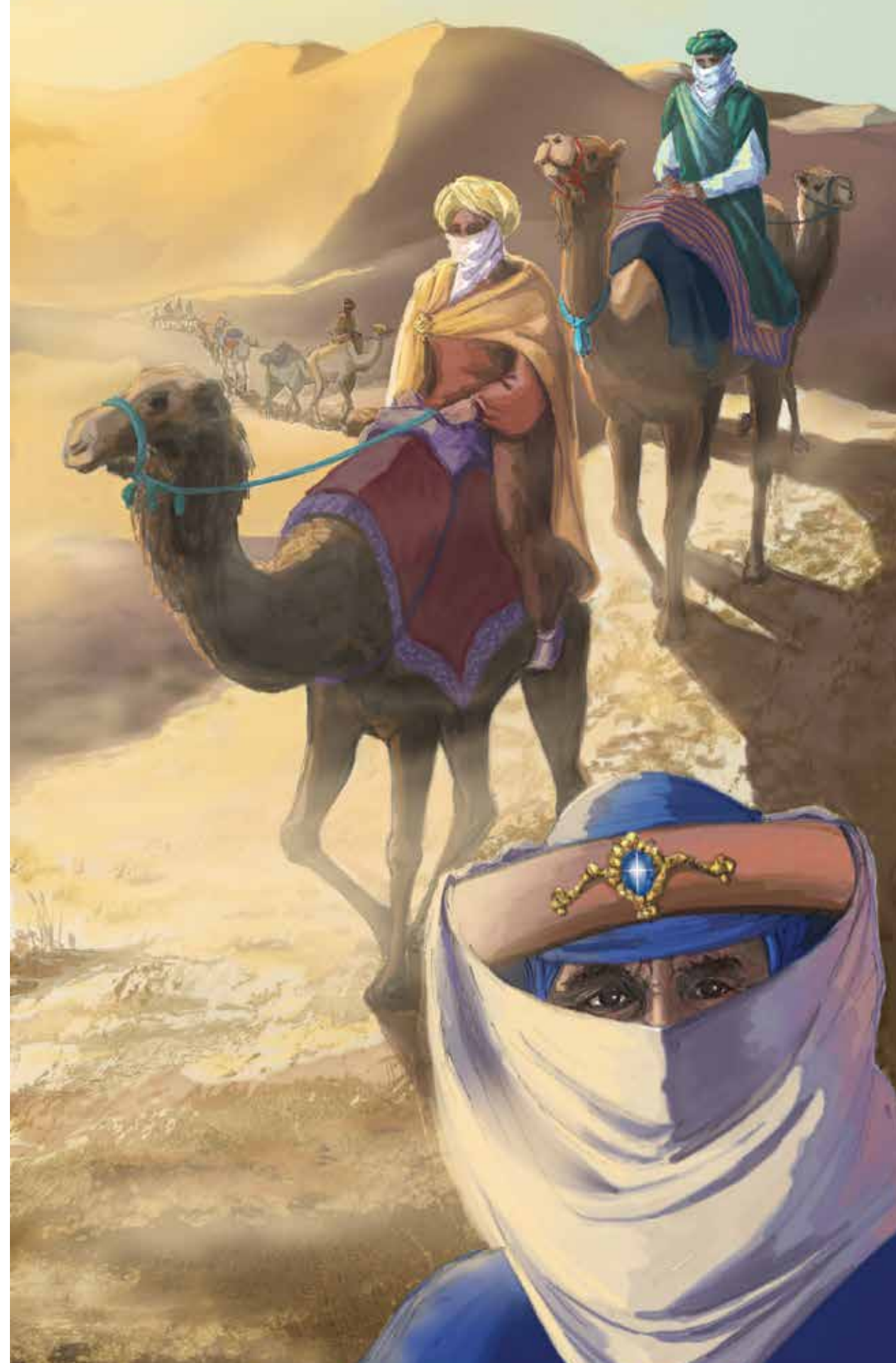
집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가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고 다른 길을 통해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박사들이 떠난 후 주의 천사가 요셉의 꿈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어서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여라.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으니 내가 말해 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마태복음 2:1-13 우리말성경)

헤롯은 그 아기를 죽이려고 애썼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그분을 무시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찾으려고 뜨거운 사막을 건너온 박사들은 그분에게 경배하고 왕에게 걸맞은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죽은 사람을 방부처리 하는 값비싼 향료를 드렸어요. 왜 방부처리 향료를 드렸을까요?

이 박사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위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장면 43 완전한 아이

천사의 경고를 받은 뒤에 요셉은 마리아와 아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잔인한 헤롯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천사가 이집트에 있던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거라.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죽었다.”(마태복음 2:19-20 우리말성경)

이것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고대 예언을 이룬 것이었어요.

이집트에서부터 내 아들을 불러 내었다(호세아 11:1 바른성경)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데리고 나사렛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자랐어요.¹⁵

여러 가지 면에서 소년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 비슷했어요. 먹고, 자고, 놀고, 공부하고 그리고 장사도 배웠어요.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예수님은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어요. 그는 결코 이기적이지 않았어요. 언제나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거짓말도 결코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어요.

그분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이 없고
죄인들과 구별되시며(히브리서 7:26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아이였어요. *완전하다*고 해서 그분이 결코 무릎이 까진 적도 없고 여드름도 없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분이 완전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말이에요. 그분은 완전하게 거룩하고 선하신 분이예요.

또한 능력과 지혜에 있어서도 완전하셨지만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스스로에게 어떤 한계를 두셔서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처럼 살 수 있게 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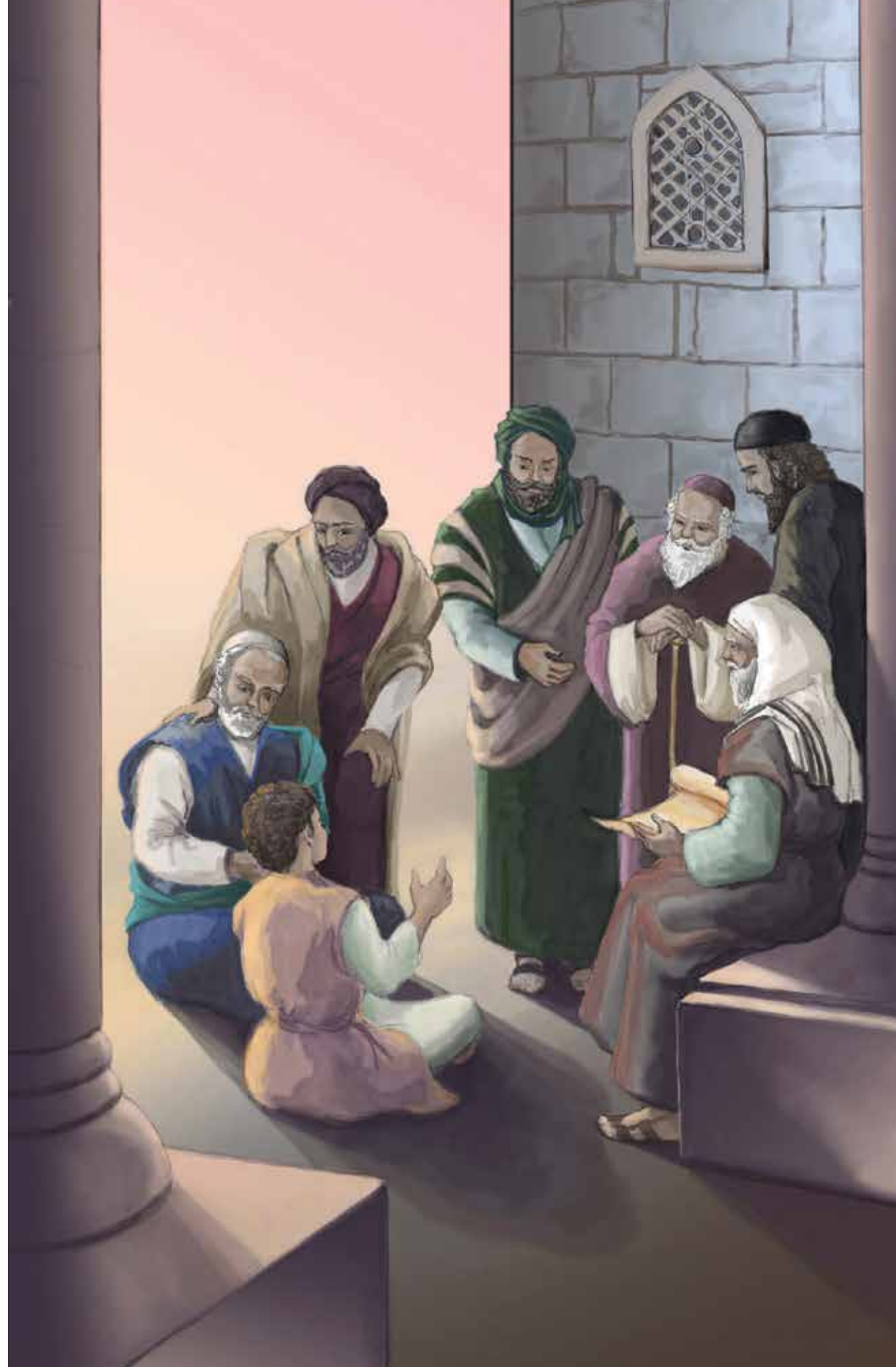
예수는 지혜와 키가 점점 더 자라 가며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누가복음 2:52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12살이 되자 부모님과 함께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유월절¹⁶이라는 매년 지내는 제사 절기를 지키러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친구들이 그 큰 성을 돌아다니는 동안, 성전 뜰에서 선생들과 함께 앉아서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하며 그 주간을 보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슬기와
대답에 놀라워했습니다(누가복음 2:47 쉬운성경)

성전은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단 위에서 어린양이 불태워지는 곳이었어요. 소년 예수님은 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주님은 마지막 어린양으로 드러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장면 44

하나님의 어린양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지 삼십 년이 지났어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그의 양자인 가이사 티베리우스가 로마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안티파스가 갈릴리를 다스렸어요.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선지자가 팔레스타인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며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침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로 옷을 지어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습니다(마태복음 3:1-4 우리말성경)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고 가장 좋은 음식을 먹었지만 요한은 검소하게 살았어요. 그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은 왕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수백 년 전, 이사야와 말라기라는 두 선지자가 이 메시아 왕의 오심에 대해 전해줄 미래의 선지자에 대해 기록했어요. 요한이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예전 선지자들은 *때가 되면 약속된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했지만, 요한은 *때가 되었다. 구원자가 오셨다!* 라고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을 들으러 광야로 몰려왔어요. 구원자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사람들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큰 빛을 씻어주시고 주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혀 주시는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었어요.

여러 날이 지나고, 여러 주가 지나도록 요한은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 그분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이다.”(마태복음 3:11 쉬운성경)라고 하늘로부터 오시는 오랫동안 기다려온 구원자에 대해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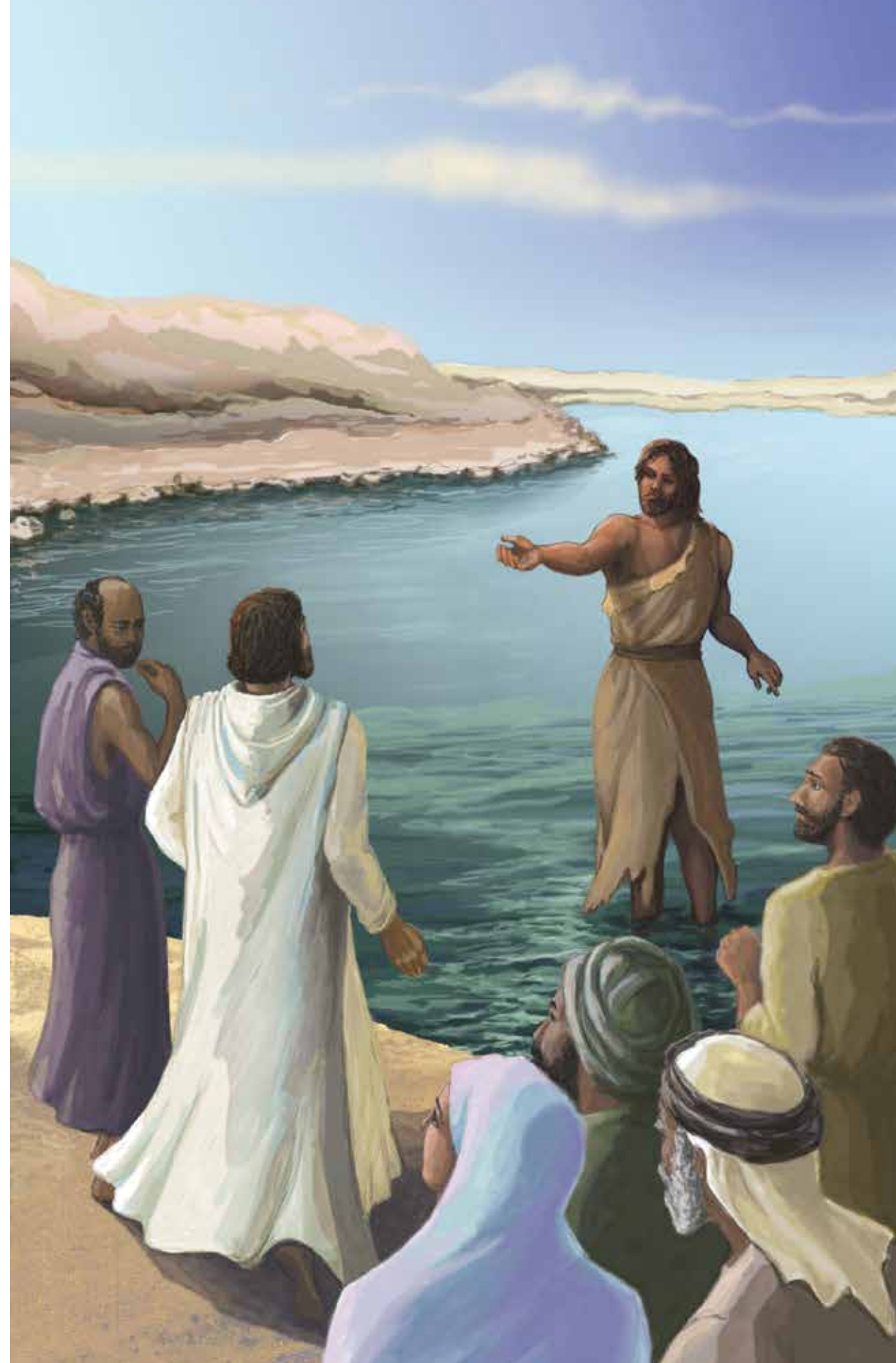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그 구원자가 언덕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을 지나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고 있는 곳으로 내려오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아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다.”(요한복음 1:29 바른성경)

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양이라고 불렀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이유를 안다면 여러분은 그 왕의 사명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장면 45 완전하신 아들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베풀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 왕께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요한은 거절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마태복음 3:15 우리말성경)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심으로 자기가 구원하러 온 그 사람들 속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요한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그분]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마태복음 3:16-17 우리말성경)

창조의 첫 날처럼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다시 드러났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 한분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지금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한분으로 일하실 거예요.¹⁷

우리는 (태초에 수면 위에 움직이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강 밖으로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어요.

지난 30년 이상 예수님은 이름도 없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사셨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땠나요?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모든 인류 역사 가운데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예요. 모든 것을, 언제나, 완전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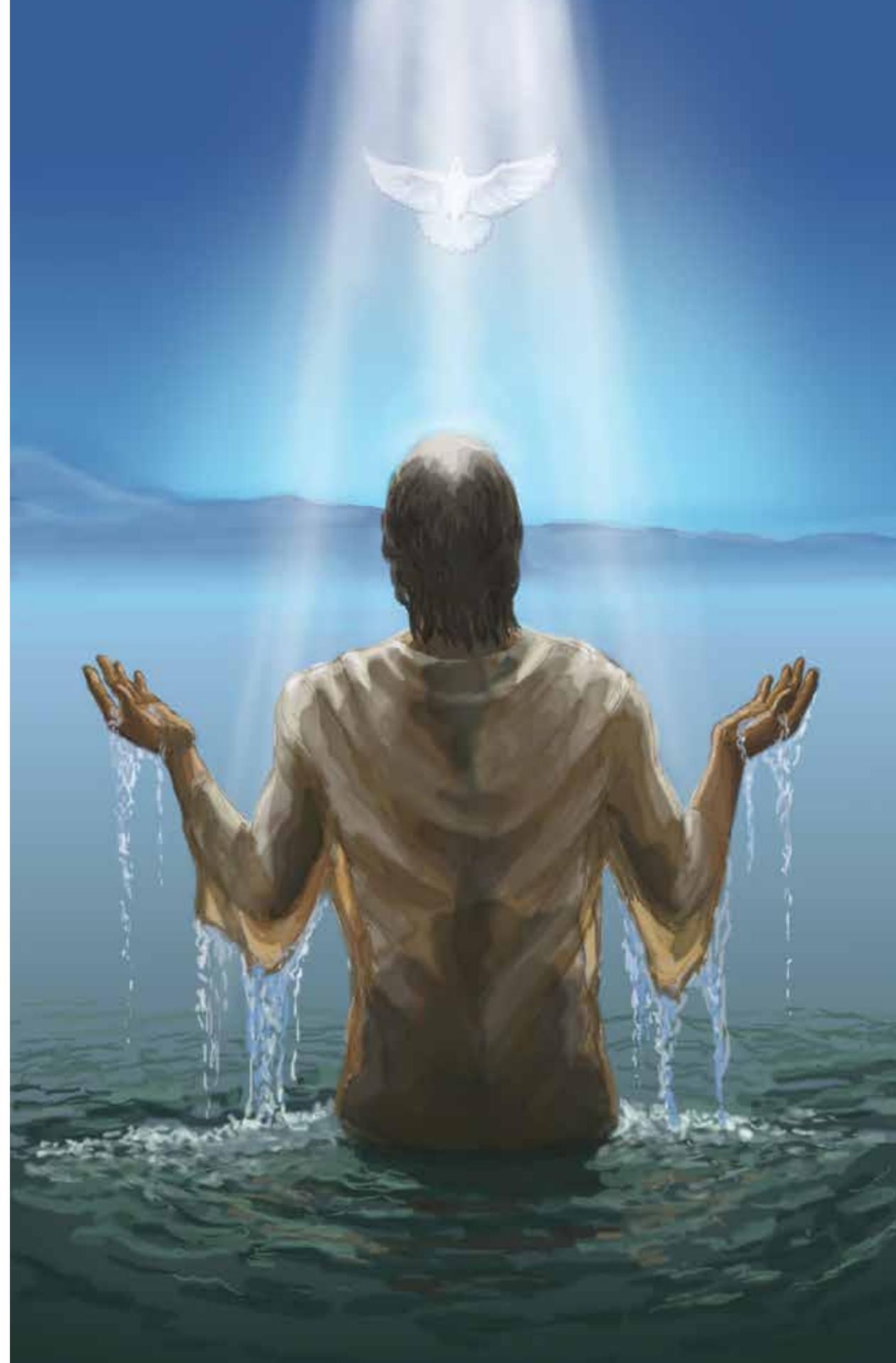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을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하셨어요. 아니 예수님은 나타내는 것 이상을 해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세요.

옛날에 여러 차례 여러 모양으로 예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한 그를 통해 모든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그분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불드시며...(히브리서 1:1-3 우리말성경)

나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놀라운 것이 아니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요한복음 10:30 새번역)

예수님은 완전하신 아들이세요.





장면 46 둘째 사람

사탄은 이 완전한 사람이 자기 왕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싫었어요! 그런데 이 마귀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었어요. 그가 첫 사람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처럼 이번에도 이 사람을 죄에 빠지게 하려는 거였어요.

사탄은 아담을 자기 지배 아래에 둔 것처럼 예수님도 자기 지배 아래 두고 싶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짓는 유혹에 빠진다면 그분은 더 이상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없게 될 거예요.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마태복음 4:1-3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배가 고프셨지만 마귀의 말을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서 벗어나는 행동은 하지 않으세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힘을 자기 인간적인 욕심을 만족시키는데 사용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마귀를 대적하려고 모세오경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마태복음 4:4; 신명기 8:3 우리말성경)

마귀는 어리석은 교만으로 거룩하신 분을 또 다시 유혹해 보았어요.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마태복음 4:8-9 우리말성경)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는 이 땅을 다스리는 권리를 잃어버렸어요. 사탄은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만들기 위해 그 지배권을 훔친 거예요. 지금 영광의 왕께서 그 지배권을 되찾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가 짓밟아 버릴 자에게 절하면서 되찾지는 않으세요.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마태복음 4:10 우리말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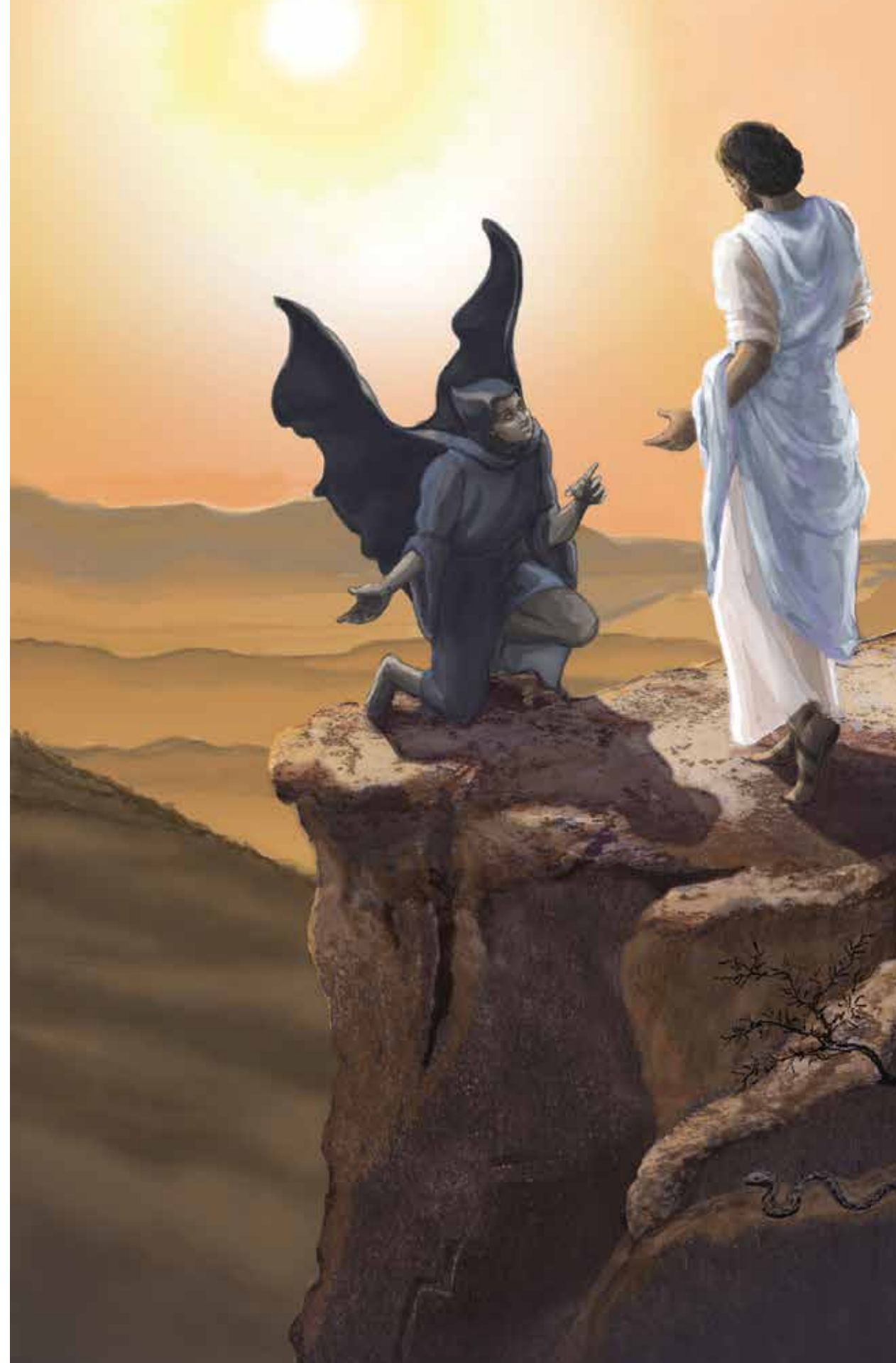
결국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사탄은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죄를 지으려는 욕심도, 가능성도 없는 사람을 유혹해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담과 그의 자손들과는 달랐어요.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므로 흠에 속한 사람이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왔습니다(고린도전서 15:47 우리말성경)

아담은 첫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두 번째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사탄이 아담을 죄에 빠지게 유혹했을 때, 아담은 졌고 사탄이 이겼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죄를 짓게 하려고 했을 때, 사탄은 졌고 예수님이 이겼어요.

첫 사람은 우리를 사탄의 죄와 죽음의 왕국으로 인도했어요.
둘째 사람은 우리를 그곳에서 건져 주시려고 오셨어요.





장면 47 메시아 왕

예수님이 죄를 짓게 만들려는 사탄의 헛된 시도가 있는 후에, 예수님은 그분이
자라나고 목수로 일하셨던 나사렛으로 돌아오셨어요.

안식일이 되자 예수께서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서서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누가복음 4:16 우리말성경)

회당은 매주 토요일에 성경을 읽고 설명해주는 예배하는 집이었어요. 이 특별한 토요일에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발표를 하셨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셨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으시고 두루마리를
펼쳐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아 읽으셨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서는
포로 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못 보는 사람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누가복음 4:17-18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성경에서 읽으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보여주시고, 죄인들을
사탄의 지배와 죄와 죽음 그리고 지옥에서 구원해주실 메시아 왕에 대한 고대의
예언이었어요.

예수께서는 두루마리를 말아서 시종들던 자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회당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일제히 예수를 주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누가복음 4:20-21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자신을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것을 이루기 위해 하늘에서 오신 메시아라고
선포하시자 그 이웃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들은 일어나서 예수를 마을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을이 세워진 산 벼랑으로 끌고
가서 그 아래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사람들의 한가운데를 지나
떠나가셨습니다(누가복음 4:28-30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통치권을 가지셨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죽어가는 자손들과는 달리
하나님에게 기름부음을 받은 메시아 왕¹⁸은 완전하게 지배하셨어요. 아무도 그분의 허락
없이 그분에게 손도 댈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그들을 만져주실 거예요.





장면 48

귀신들과 질병을 다스리심

선지자들의 성경에 있는 메시아의 이름 중 하나는 *여호와*의 팔이었어요(이사야 53:1 쉬운성경).
예수님의 기적들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여호와 팔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분의 손으로 만져주시거나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즉시 건강해졌어요.

큰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눈먼 사람,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예수의 발 앞에 데려다 놓았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5:30 우리말성경)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마태복음 11:5[이사야 35:4-6; 61:1]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고치지 못할 병은 없었어요.

어떤 나병 환자가 예수께 다가와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지만 하면 저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그러자 나병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가 깨끗이
나왔습니다(마가복음 1:40-42 우리말성경)

해질녘이 되자 사람들이 온갖 환자들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일일이 손을 얹어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게다가 귀신들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떠나가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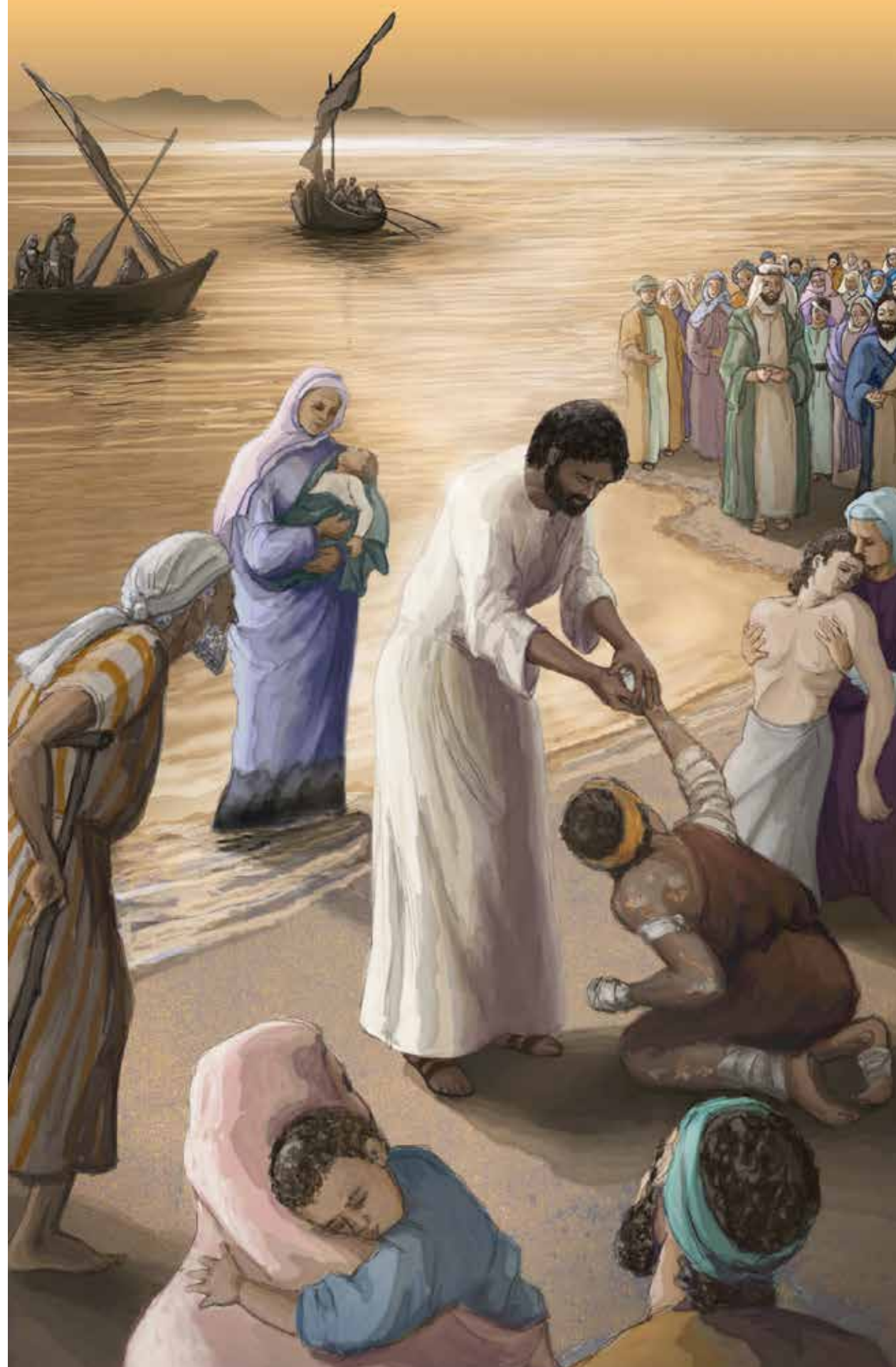
그러나 예수께서는 귀신들을 꾸짖으시며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신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누가복음 4:40-41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귀신들이 그분에 대해 증명해 주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 악한 천사들은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그분의 능력을 목격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하늘나라에서 쫓아내시던 그날을 생각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대장의 통치권은
허물어졌어요! 영광의 왕께서 그들의 세계를 침략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사탄의 능력은 약해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죄의 저주는 힘을 잃었어요.

기적들과 함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15 우리말성경)





장면 49

바람과 파도를 다스리심

예수님은 열두 명을 택하셔서 그분과 함께 다니고 배우게 하셨어요. 많은 여자들도 예수님을 따랐어요. 여자들은 음식과 돈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도왔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단순하게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5:27 쉬운성경)

하지만 그분의 부르심은 대가가 컸어요.

“누구든지 나보다 자기 부모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합당하지 않다. 나보다 자기 아들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마태복음 10:37 우리말성경)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어부였기 때문에 종종 갈릴리 바닷가로 내려가셔서 하루를 보내셨어요.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 왔어요.

예수께서 다시 호숫가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 주위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호수에 배를 띄우고 배에 올라앉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호숫가를 따라 앉아 있었습니다(마가복음 4:1 우리말성경)

그날의 가르침이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배에 앉아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리들을 뒤로 하고 출발했어요.

그때 매우 강한 바람이 불어와 파도가 배 안으로 들어쳐 배가 물에 잠기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배 뒷부분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빠져 죽게 됐는데 모른 척하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파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그러자 바람이 멈추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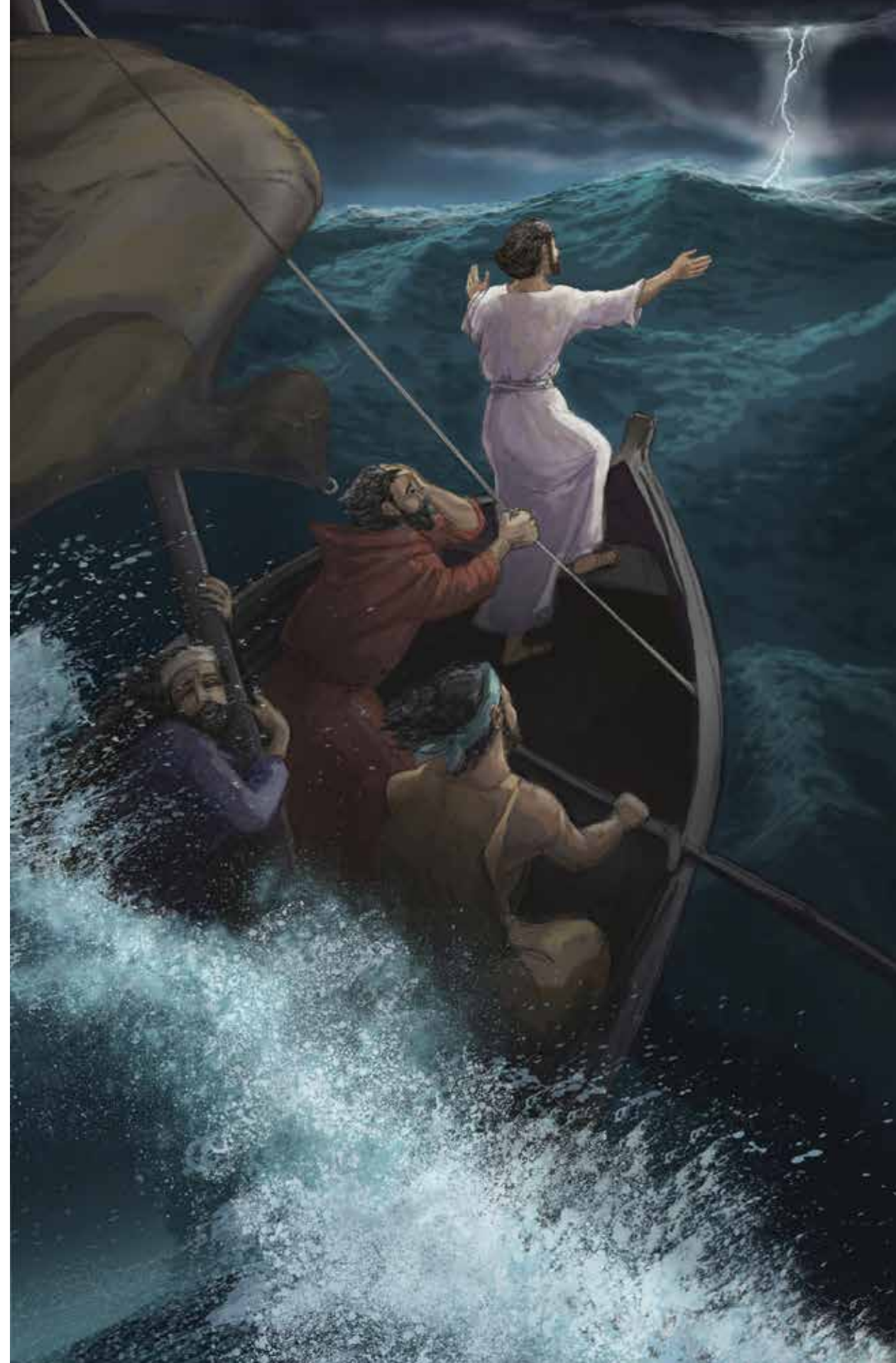
제자들은 크게 두려워하면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마가복음 4:37-41 우리말성경)

이분이 누구신가요? 천 년 전에 선지자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 이미 답을 해주었어요.

그 때에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시편 107:27-29 쉬운성경)

누가 바람과 파도를 단 한마디로 잠잠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을 창조하신 바로 그 음성이예요.





장면 50 죄를 다스리심

어느 날, 네 사람이 들것에 중풍 환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왔어요.

그들은 안으로 들어오려고 애를 썼지만 방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방 안에 예수님 바로 앞으로 들것을 내렸어요.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네 죄가 용서받았다.”(마가복음 2:5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받는 것임을 아셨어요.

거기 앉아 있던 율법학자들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는 이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마음으로 곧 알아채시고 율법학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중풍 환자에게 ‘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거라’는 말 중 어떤 말이 더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알려 주겠다.”

그리고 예수께서 중풍 환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 환자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런 일은 난생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마가복음 2:6-12 우리말성경)

율법학자들은 그들의 종교와 교만에 눈이 멀어 있었어요.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여,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하다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이 하나님 한 분 말고 아무도 죄를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은 옳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그들의 판단은 틀렸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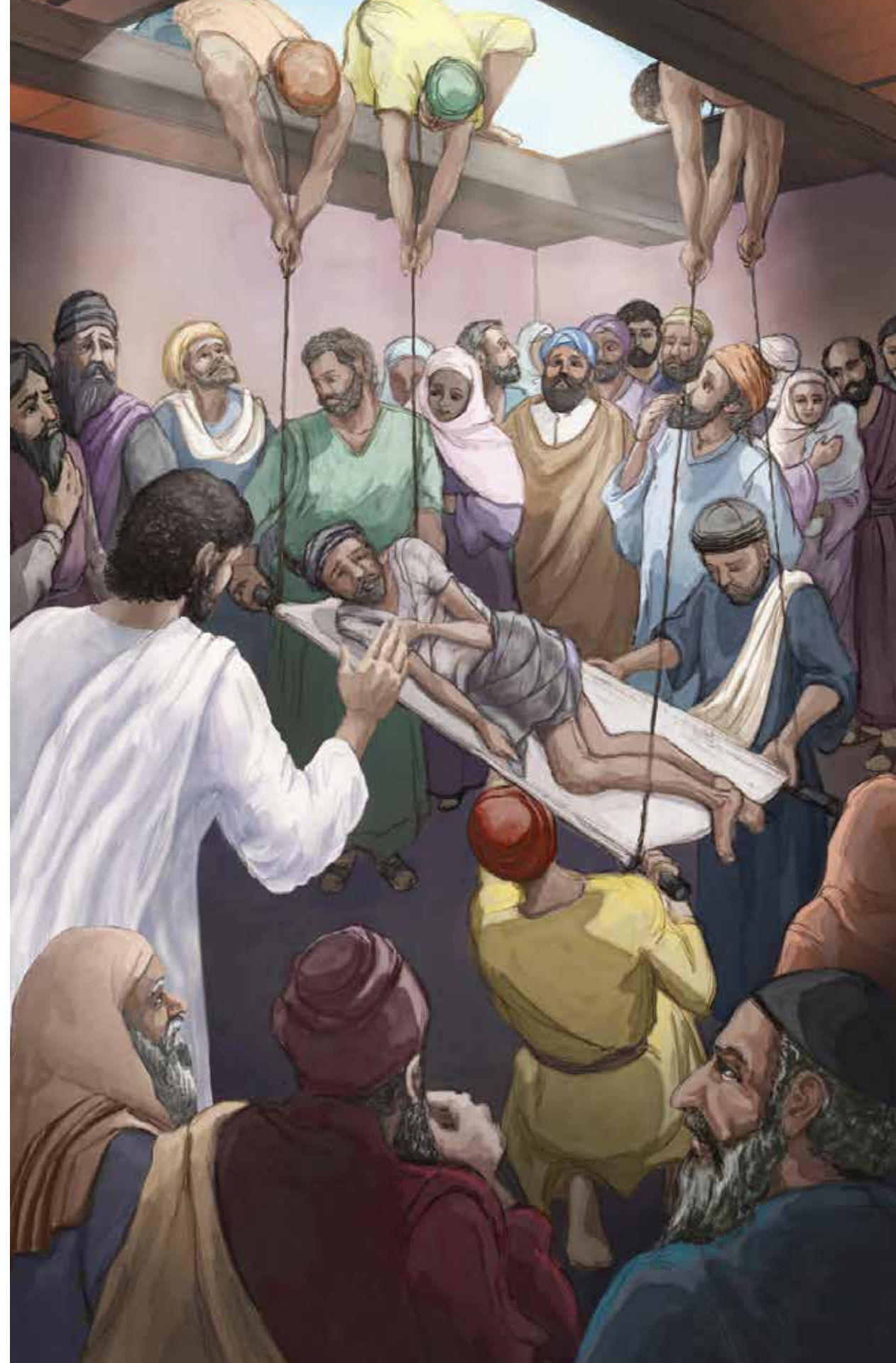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그분의 이름이 가진 의미를 기억하고 있나요?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팔레스타인 한 마을 사람들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심을 알게 됐소.”(요한복음 4:42 우리말성경)





장면 51

죽음을 다스리심

예수님은 창조세계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경배하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며 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셔서 사람들이 스스로 그런 결론을 내리게 하셨어요.

다음 두 가지 이야기를 볼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나요?

예수께서는 곧 나인이라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과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사람들이 죽은 사람 한 명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한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그 여인과 함께 상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 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가득 차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누가복음 7:11-16 우리말성경)

다른 날, 예수님은 슬퍼하고 있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 가셨어요. 나흘 전에 그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네,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께서는...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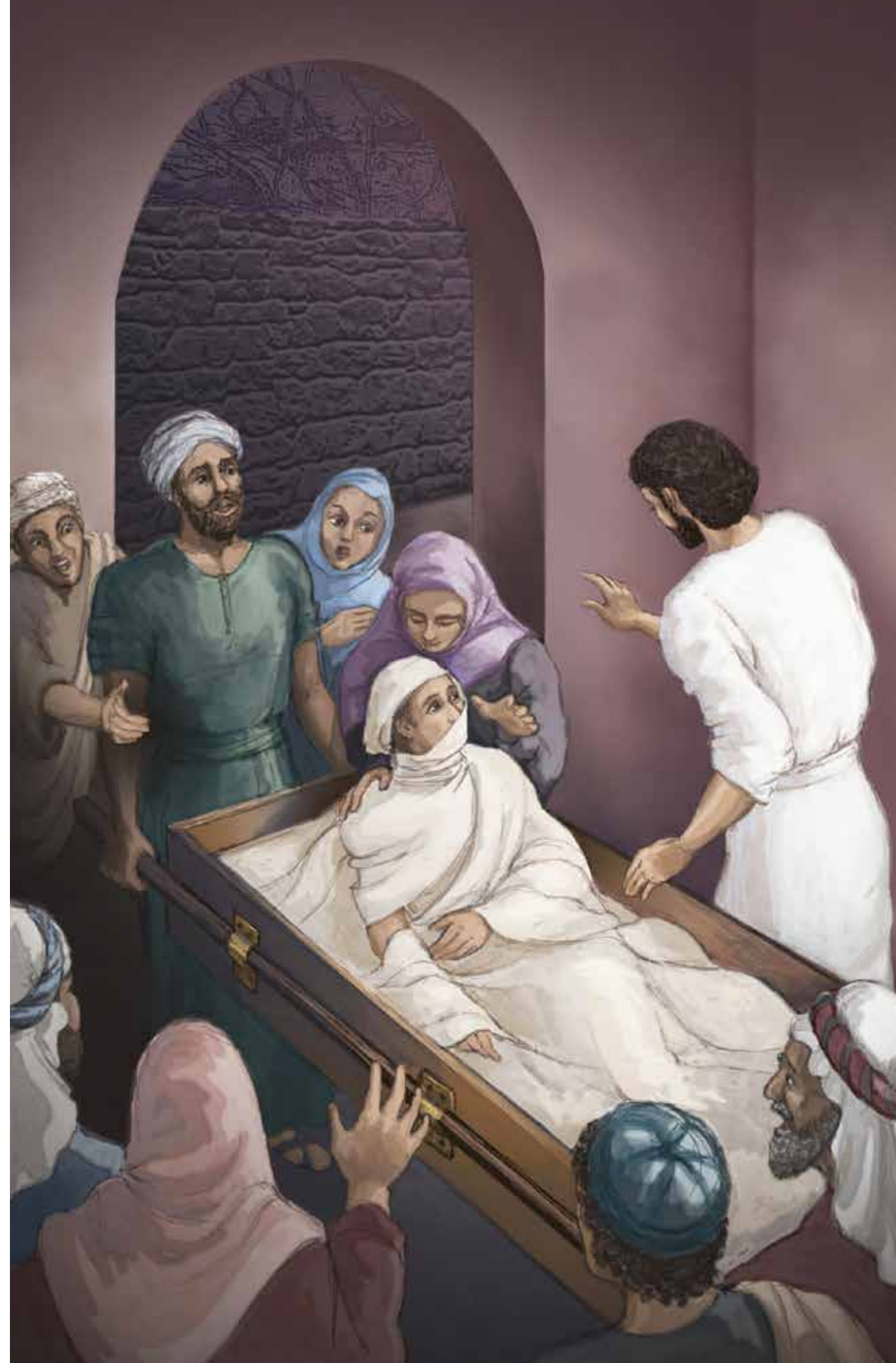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는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베에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싸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요한복음 11:21, 25-27, 38-41, 43-44 우리말성경)

주 예수님은 역사상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었어요.





장면 52 공급자

만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때로는 며칠씩 함께 다니기도 했어요. 가끔 사람들은 예수님을 광야 땅에서 만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곳에 가시기도 했어요. 어떤 때는 그 사람들이 굶기도 했어요.

이 일은 갈릴리 바닷가 동쪽 언덕에 5,000명이 훨씬 넘는 사람들이 모였던 어느 오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제자 중 한 사람인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곳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 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 보니 보리빵 다섯 개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요한복음 6:5-13 우리말성경)

다음 날 무리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 왔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왕으로 모시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해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좀 더 줄 수 있기를 바랐을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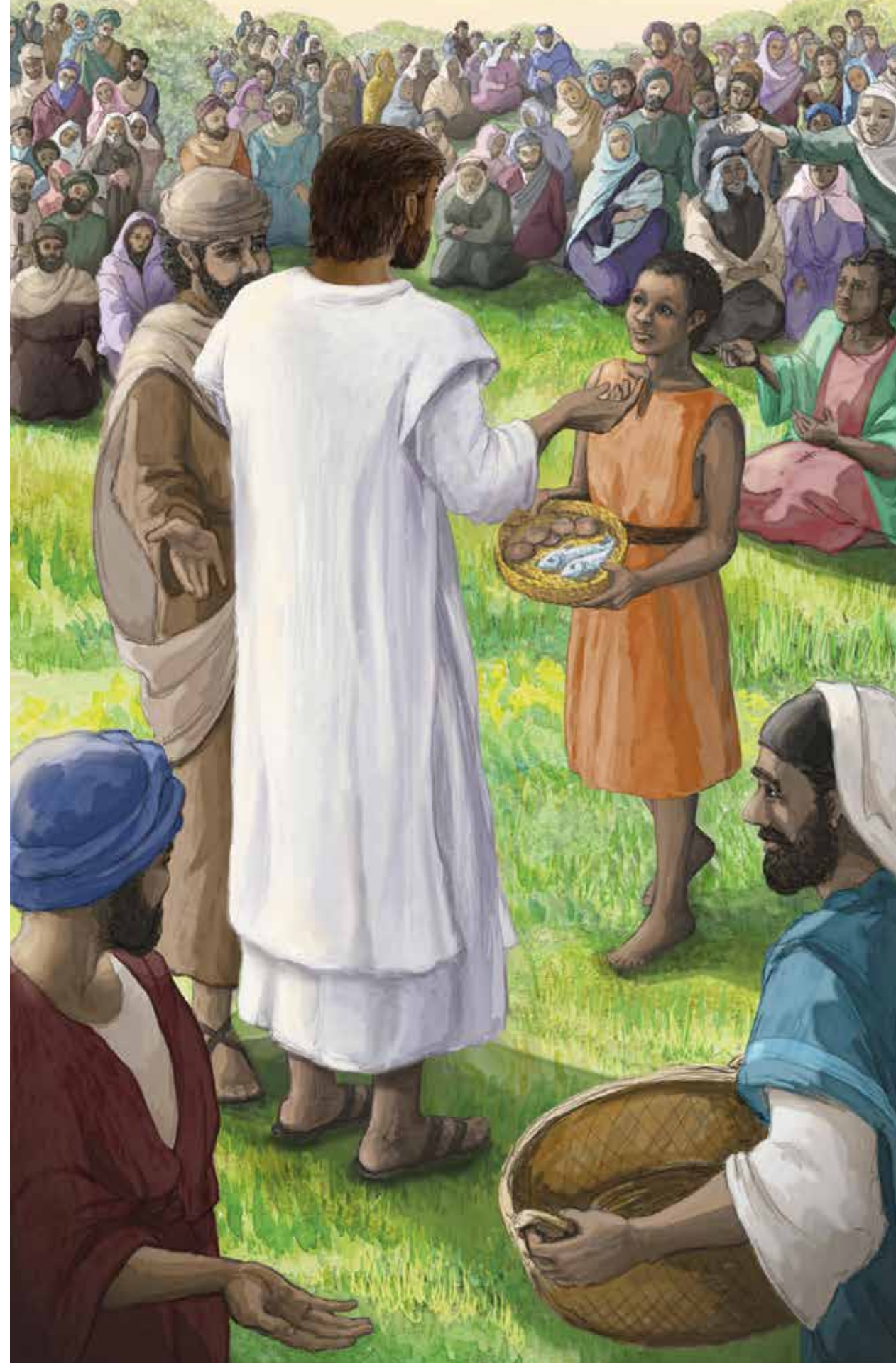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 애써라. 이 양식은 인자¹⁹가 너희에게 주려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요한복음 6:27, 35 현대어성경)

음식은 여러분의 몸을 잠깐 동안 살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주 예수님만이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있는 참된 생명을 주실 수 있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장면 53 선생님

예수님은 “이것을 해라! 저것을 하지 말라!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거야!”라고 말하는 율법 선생님들과 같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복음 14:6 쉬운성경)

또한 예수님은 자신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려야 했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했던 선지자들과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마태복음 5:17 현대어성경)

예수님은 종종 제자들에게 하늘 왕국의 시민들이 왕의 성품과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기도하기를 좋아한다....너는 기도할 때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하게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은밀하게 계셔서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내려주시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오직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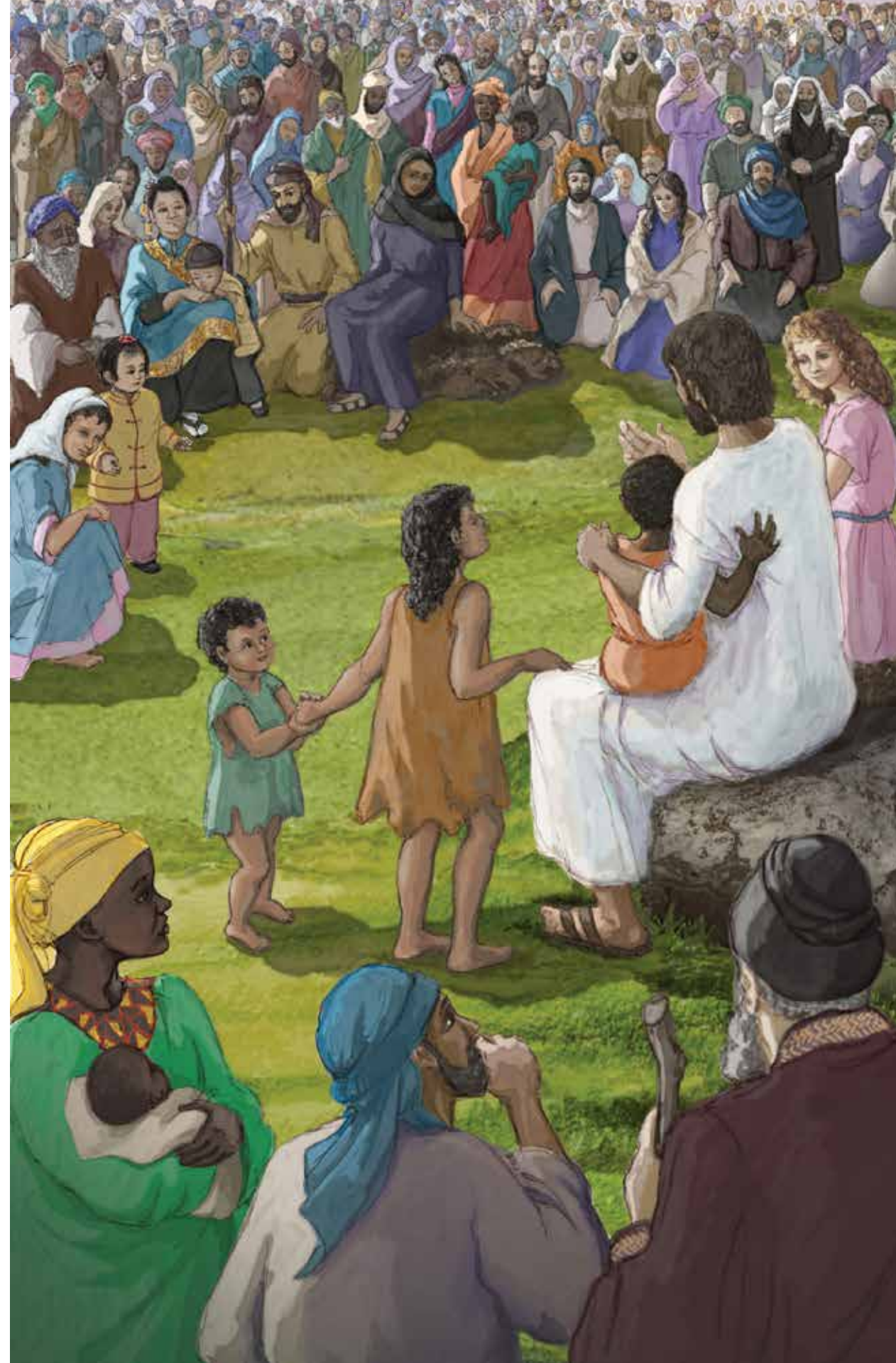
“거짓 예언자를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털을 쓰고 다가오지만 속은 사나운 늑대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치니 그 집은 여지없이 모두 다 무너졌다.”

(마태복음 5:43-44; 6:5-6, 9-11, 31-33; 7:15, 24-47 우리말성경)

이제껏 하늘에서 오신 이 선생님처럼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장면 54 왕의 위엄

유대인의 선생님들과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볼 때 기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을 듣기를 바랐어요. 그분이 아니지요!

어느 날 대제사장들이 성전 수비대를 보내서 예수님을 체포해 오라고 했지만 수비대가 체포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돌아오자 제사장들이 물었어요. “왜 그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수비대가 대답했어요.

“지금까지 이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요한복음 7:46 현대인의 성경)

선지자들도 예수님처럼 말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들은 어두운 세상에 희미한 빛을 비춰주는 촛불과 같지만, 메시아는 “의의 태양”(말라기 4:2)이었어요. 태양이 떠올랐는데 누가 촛불이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복음 8:12 새번역)

예수님은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외쳤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분은 육체적, 영적 빛의 절대적인 근원이세요.

메시아께서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거의 다 되었을 때,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께서는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모돼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새하얗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소리를 듣고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가와 그들을 어루만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마태복음 17:1-3, 5-8 우리말성경)

그 제자들은 그날 본 것을 절대 잊지 못했어요. 후에 베드로는 “우리는 그분의 크신 위엄을 직접 본 사람들입니다.”(베드로후서 1:16 우리말성경)라고 기록했고, 요한은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요한복음 1:14 우리말성경)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아들의 영광은 육체의 몸 속에 감추어져 왔어요.

왕께서 그 사명을 완성하실 때가 되었어요.





장면 55 왕의 사명

삼년 동안 주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여러 곳을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하였고,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고쳐 주셨”어요(사도행전 10:38 쉬운성경). 일반 백성들은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자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습니다(누가복음 9:51 우리말성경)

만약 여러분이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악한 무리들이 여러분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려는 계획을 하는 것을 안다면 그곳에 가려고 하겠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21 우리말성경)

이것은 제자들이 바라던 왕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메시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선택 받은 분이 그런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놔두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했어요.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마태복음 16:22-23 우리말성경)

제자들은 메시아 왕이 로마 정복자들을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에 새 정부를 세우기 원했어요. 제자들은 여행을 하면서도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논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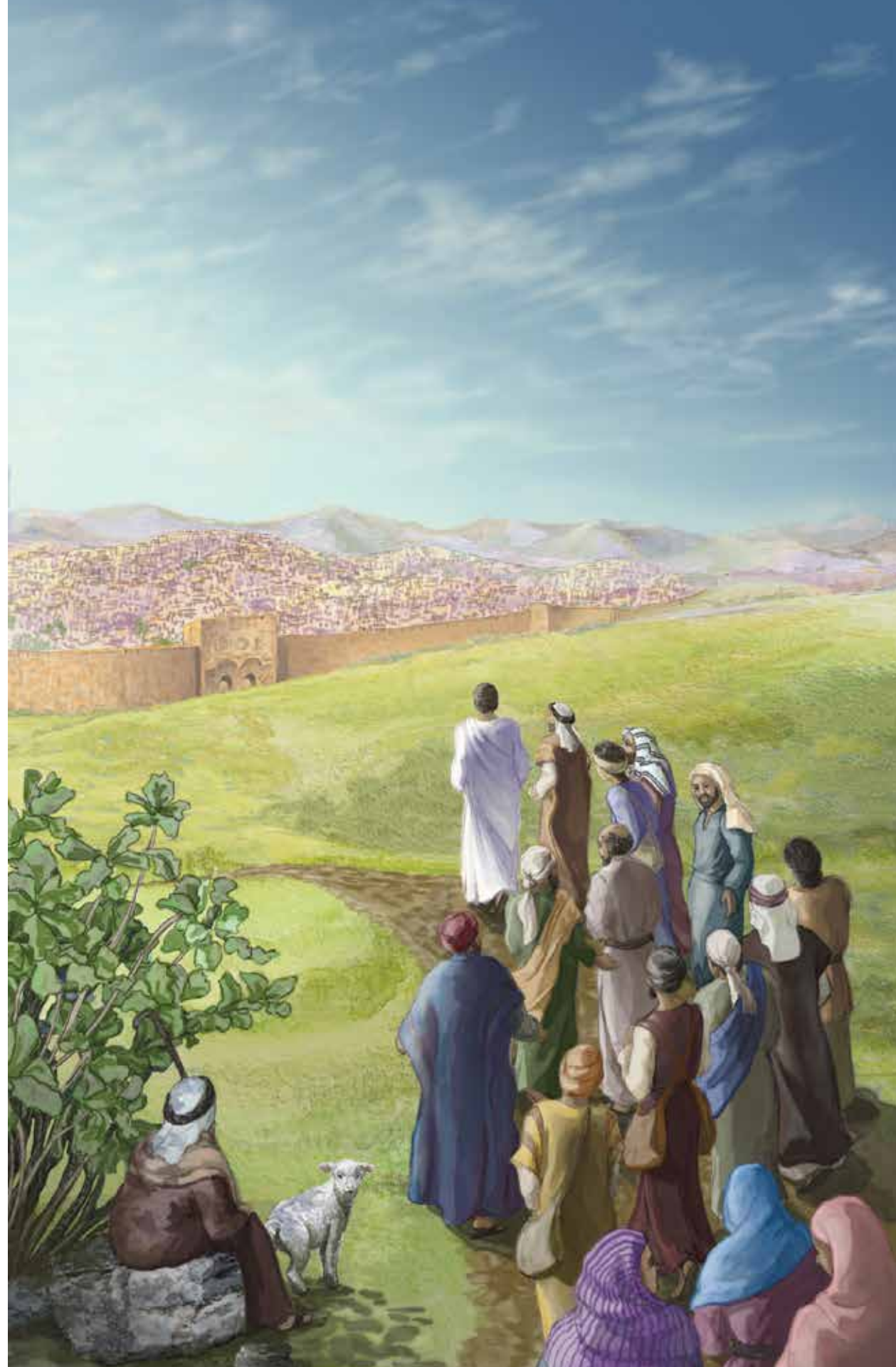
“누구든지 너희 중에서 큰 사람이 되려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인자 역시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온 것이다.”(마태복음 20:26, 28 우리말성경)

메시아께서 이 땅에 첫 번째 오셨을 때 그분은 정치적인 왕국을 정복하거나 세상의 보좌들을 다스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사탄을 정복하고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누가복음 17:21 바른성경)

그렇지만 하늘에서 오신 왕께서 마음을(그리고 나중에는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게 되기 전에 세상의 모든 죄의 빛이 갹아져야 하고, 죽음은 정복되어야 해요.

그것이 그분의 사명이예요.





사명 56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왕

모든 것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제자 두 사람에게 한 가지 일을 시키셨어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그 곳에 들어가면 아무도 타 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 이리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나귀를 푸시오?’ 하고 묻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라고 말하여라.”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나귀 새끼를 풀자, 주인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귀 새끼를 푸시오?”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제자들이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겹옷을 벗어 나귀의 등에 펴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때에 사람들이 겹옷을 벗어 길에 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리브 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에게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러자 사람들 사이에 있던 몇몇 바리새파²⁰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누가복음 19:30-40 쉬운성경)

얼마나 특별한 왕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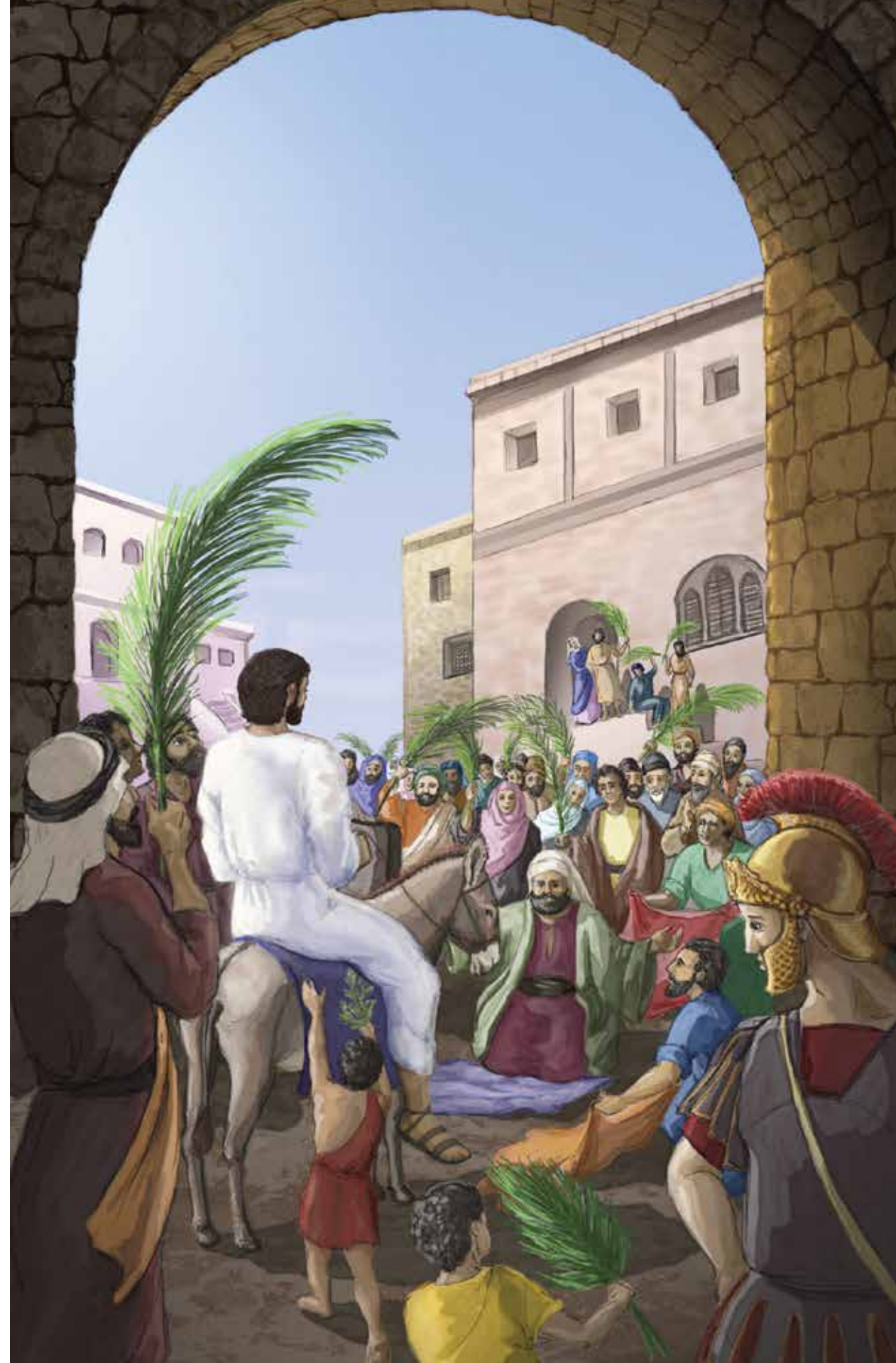
메시아 왕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강한 군대를 이끌고 수도를 공격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용맹스런 전투마를 타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분은 오백 년 전에 선지자 스가랴가 기록한 예언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동물, 등과 어깨에 독특한 십자가 무늬를 하고 있는 동물인 초라한 나귀, (걸어차고 뛰어 오르기도 하는) 길들여지지 않은 나귀, 그 나귀의 새끼를 타셨어요.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쳐라. 보아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시니, 그분은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그분은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실 것이니,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이다(스가랴 9:9 바른성경)

왜 메시아 왕은 강한 전투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으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분은 백성들을 로마 정복자들에게서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자신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장면 57 질문을 받으신 왕

그 다음 며칠 동안 예수님은 소년시절 깊이 있는 질문과 지혜로운 대답으로 학자들을 놀라게 했던 그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지금 성전지도자들은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누가복음 19:14 현대인의 성경)

그래서 그들은 격렬한 질문들로 예수님을 공격하며, 백성들이 그분을 등지기를 바랐어요.

기회를 엿보던 그들은 첩자들을 보내어 의로운 사람들인 체 행동하도록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아 결국 권력 있는 총독에게 넘겨주려는 속셈이었습니니다.

첩자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말씀과 가르침이 옳은 줄 저희가 압니다. 또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고 언제나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는 것도 압니다. 저희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누가복음 20:20-22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셔야 했을까요? 만약 “그렇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라”라고 대답한다면, 유대인 무리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신앙을 배반했다며 고소할 거예요. 반대로, 만약 “아니다, 세금을 바치지 마라”라고 대답한다면, 로마 총독이 듣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반역자로 판결할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겉과 속이 다름을 꿰뚫어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데나리온을 나에게 보여 다오. 동전에 있는 얼굴과 새겨진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그들은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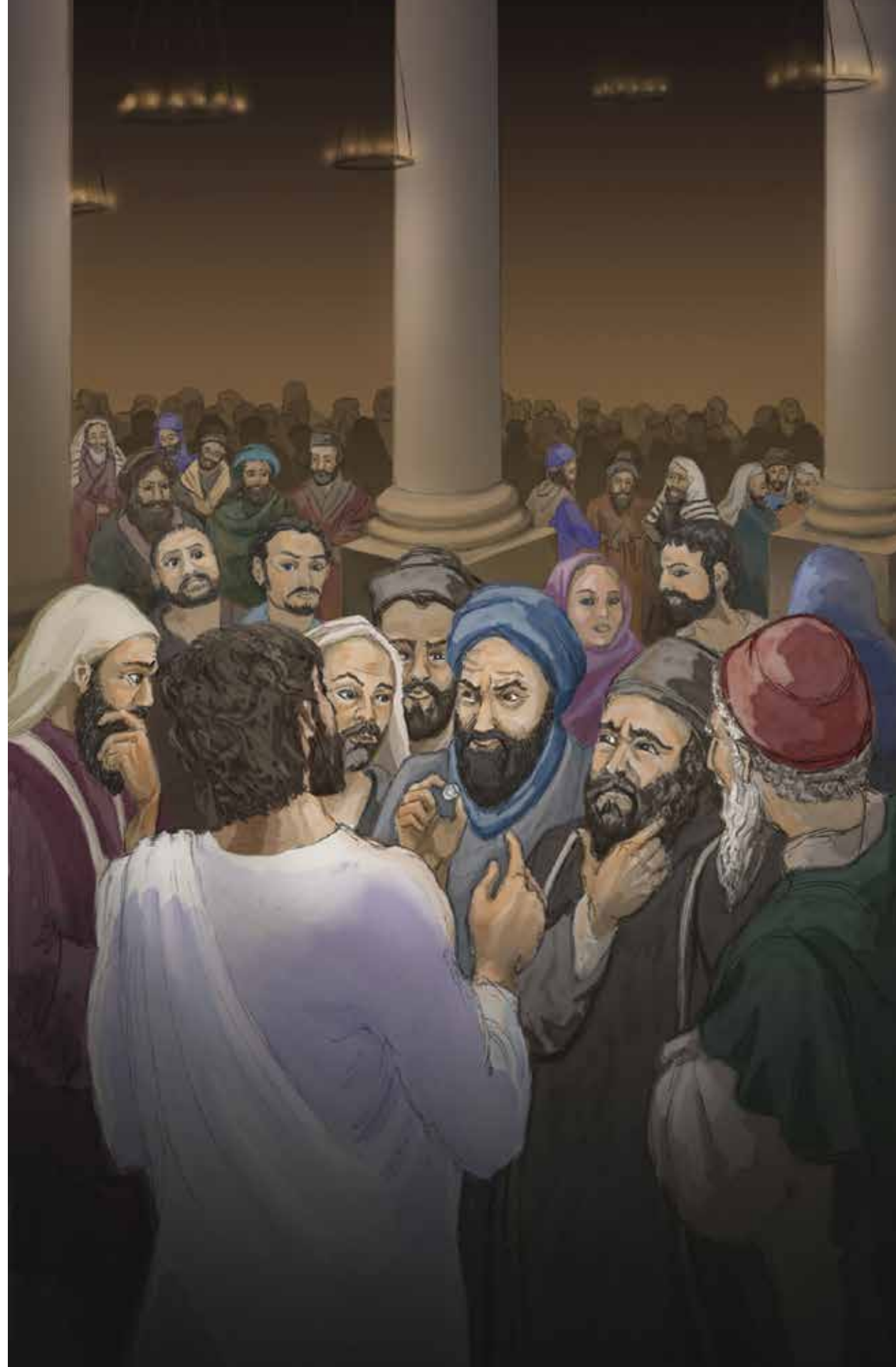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대답에 놀라 말문이 막혀 버렸습니다(누가복음 20:23-26 우리말성경)

계속해서 여러 무리의 종교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옹아매려고 했지만, 매번 예수님은 완전한 지혜로 그들에게 대답하셨어요.

그날 이후로는 감히 예수께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마태복음 22:46 우리말성경)

부끄러워진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를 잡아 처형하려는 음모를 꾸미기 위해 슬그머니 빠져나갔어요. 얼마나 무지한가요! 이 제사장들은 성전 제단 위에 제물을 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그 제물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다 되었어요.





장면 58 체포된 왕

유 월절¹⁶이라는 제사 명절의 전날이었어요. 다음 날이면 수천 마리의 어린양들이 죽게 될 거예요.

예수님은 다음날 자신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아셨지만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시면서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식사하는 도중에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드리고, 나눈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어요. 또한 잔도 돌리셨어요. 예수님은 그 나누어진 빵이 예수님의 몸을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고, 붉은 좁은 죄 용서를 얻게 해주는 새로운 언약을 위해 흘리는 예수님의 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밤중에 예수님은 겻세마네라는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서 끔찍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했어요.

그때, 마치 신호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이 무기를 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로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는데 너희가 그때는 나를 체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예언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해 일어난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이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습니다(마태복음 26:55-56 우리말성경)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묶어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려가게 놔두셨어요.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자 대제사장이 그들 앞에 서서 예수께 물었습니다. “아무 대답도 안할 작정이냐? 이 사람들이 너에 대해 이렇게 불리한 진술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께서는 묵묵히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네가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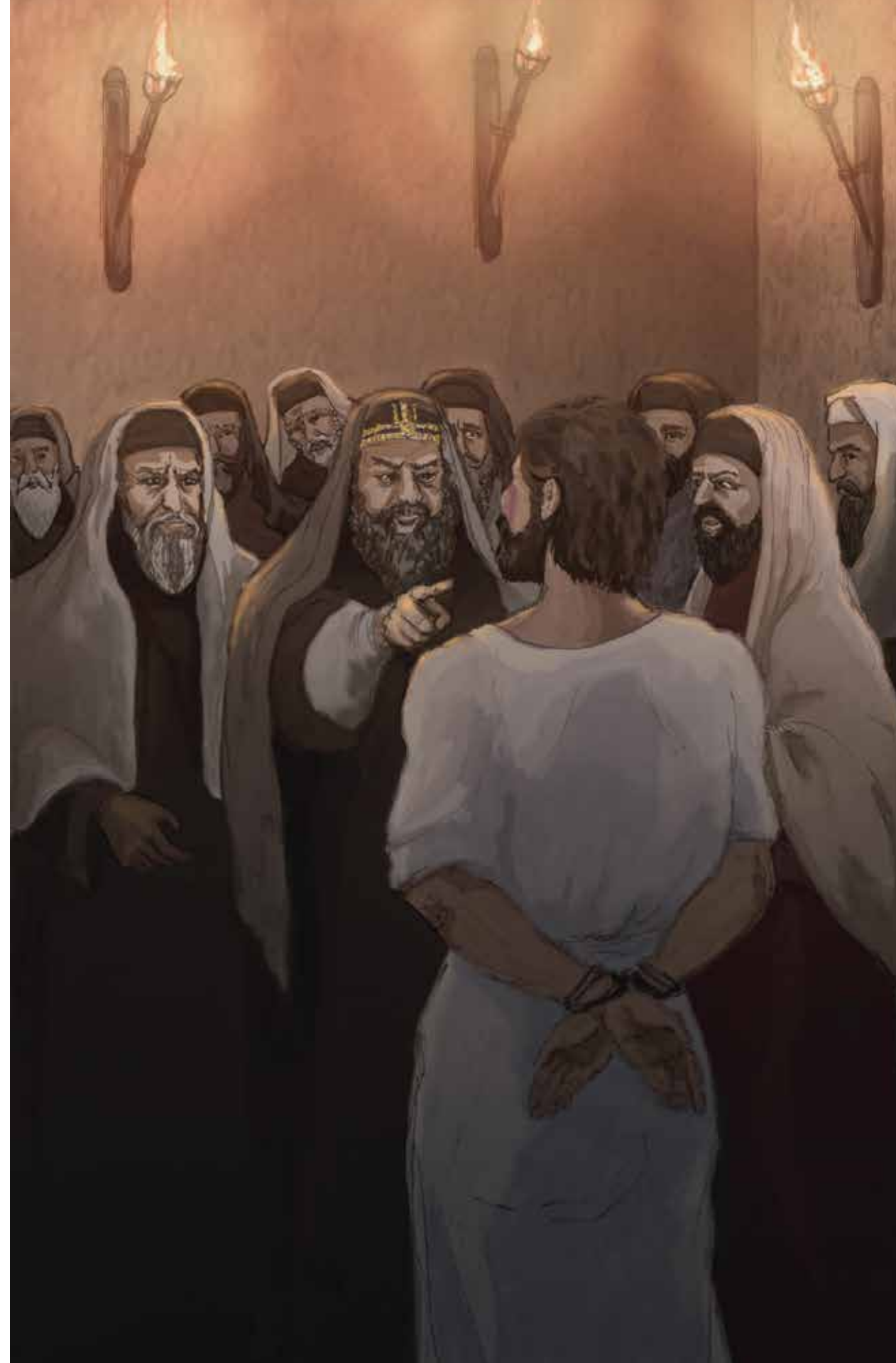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는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무슨 증인이 필요하겠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말을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들은 모두 예수가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정죄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 침을 뱉었습니다. 또 예수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때리며 말했습니다. “누가 때렸는지 예언자처럼 맞춰 보아라!” 경비병들도 예수를 끌고 가 마구 때렸습니다(마가복음 14:56, 60-65 우리말성경)

유대 법정은 사형 선고를 통과시켰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은 없었어요. 로마 법정에에만 권한이 있었어요.





장면 59 사형 선고받은 왕

이런 아침, 유대인 지도자들과 점점 모여드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끌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의 궁으로 갔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를 바랐어요.

예수께 대한 고소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어지럽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가이사께 세금을 바치는 것을 반대하며 자칭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심문한 후에]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런 죄목도 찾지 못하겠다.”(누가복음 23:2, 4 우리말성경)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라면 총독님께 넘기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다시 관저로 들어가 예수를 불러다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 사람들의 왕이냐?...네가 저지른 일이 대체 무엇이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종들이 싸워 유대 사람들이 나를 체포하지 못하도록 막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지금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왕이란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나는 왕이다. 나는 진리를 증거하려고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거하려고 이 세상에 왔다. 누구든지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말을 듣는다.”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빌라도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요한복음 18:30, 33, 35-38 우리말성경)

그러나 무리들은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그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말했습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그러느냐? 나는 이 사람에게서 사형에 처할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래서 나는 그를 매질이나 해서 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더욱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기고 말았습니다(누가복음 23:21-23 우리말성경)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님께 사형선고를 내렸어요.





장면 60 가시관을 쓰신 왕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로마법에서 가장 엄한 벌을 선고했어요. 심하게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형벌이었어요. 사형을 선고받은 죄수들은 날카로운 쇠조각이 박힌 채찍으로 맞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보다 칠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를 때리는 사람들에게 내 등을 내주었고 내 수염을 뽑는 사람들에게 내 뺨을 내주었다. 조롱하고 침을 뱉는데도 나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다.”(이사야 50:6 우리말성경)

주님께서 채찍에 맞은 다음 일어난 일에 대해 복음서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총독의 군인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가자 총독의 모든 군대가 예수를 둘러쌌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옷을 벗기고 자주색 옷을 입혔습니다.

또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는 그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며 말했습니다. “유대 사람의 왕, 만세!” 그들은 예수께 침을 뱉고 갈대를 뺨아 머리를 때렸습니다(마태복음 27:27-30 우리말성경)

군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에 눌러 씌운 가시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가시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에 나타난 저주의 일부분이었어요. 이 거룩하신 영광의 왕께서 우리를 위해 죄의 저주를 받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렇게 희롱하고 나서 군인들은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의 옷을 도로 입혔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예수를 끌고 나갔습니다(마태복음 27:31 우리말성경)

사형선고를 받은 두 죄수들도 예수님과 함께 끌려 나갔어요. 각각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사형집행 장소로 가야 했어요.

이 잔인한 행렬 도중에 로마 군인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온 한 남자에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은 혼잡한 예루살렘 거리를 지나서, 성곽 밖으로 나가, 골고다라고 불리는 언덕으로 올라갔어요. 모리아 산의 북쪽 지역인 이곳에서 약 1,900년 전에 선지자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창세기 22:8 우리말성경)

이제 어린양이 죽을 때가 되었어요.





장면 61

십자가에 못 박힌 왕

십자가 형벌은 지금까지 만들어진 형벌 중에서 가장 끔찍한 국가 사형 방법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사형수들의 손과 발을 십자가나 나무에 못으로 박기 전에 그 극심한 고통에 공개적인 부끄러움을 더하려고 그들을 벌거벗겼어요.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죄수도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때 군인들은 제비를 뽑아 예수의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백성들은 서서 지켜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심지어 예수를 조롱하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구원했다지. 자기가 택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면 자기도 구원하라지.”(누가복음 23:33-35 우리말성경)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들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찢었습니다....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시편 22:16-18, 6-8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모든 세세한 것까지 다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선지자 아브라함이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창세기 22:8, 14 우리말성경)라고 말한 바로 그 산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어린양인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죽기로 되어 있던 아브라함의 아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어떻게 죄 없는 숫양이 제단 위의 나무에서 제물로 드려졌는지 기억하고 있나요? 지금 하나님의 죄 없는 아들이 죽기로 되어 있는 아담 자손들의 몸값을 치르기 위해 나무 십자가 위에서 제물로 드려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은 살리셨지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셨어요(로마서 8:32 우리말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요한복음 3:16 개역개정)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생활 방식에서 여러분이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베드로전서 1:18-19 우리말성경)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장면 62 구원자 왕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주 예수님께서 죄가 가져온 부끄러움을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셨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날, 하나님은 어느 날 메시야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알려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자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창세기 3:15 우리말성경)

사탄이 구원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신비한 고대의 예언은 하나님의 어린양이 “그가 상처 입은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사야 53:5 쉬운성경)이라는 십자가에서 받으실 고난과 부끄러움을 미리 말해준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 지혜를 몰랐습니다.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진리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고린도전서 2:8, 1:18 현대인의 성경)

예수님의 십자가는 두 죄수 사이에 놓여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린 죄수 중 하나가 예수를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구원해 보아라!”

그러나 다른 죄수는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너도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저지른 짓이 있으니 마땅히 받을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분은 잘못된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네게 말한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누가복음 23:39-43 우리말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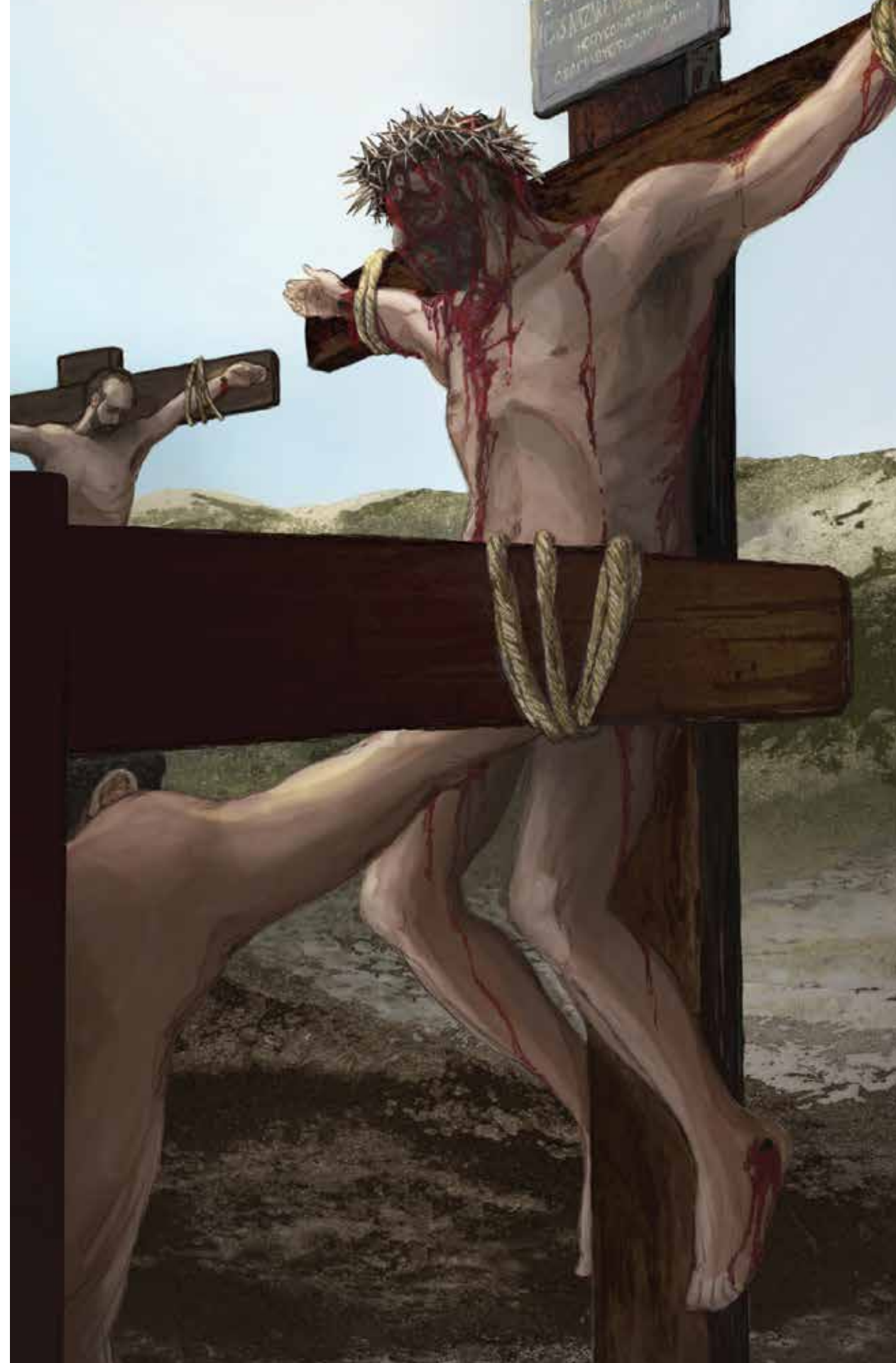
첫 번째 죄수는 단지 자기의 육체적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했어요. 그는 자기 대신 죽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죄수는 똑같이 예수님을 모욕했었어요. 하지만 그가 죽음을 앞두자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는 자신을 사탄의 왕국에서 건져주실 주님이 필요했어요. 그는 왕께서 자신을 받아 주신다면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 되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누가복음 23:43 우리말성경)

그날 저녁, 두 죄수 모두 죽었어요. 한 사람은 지옥에 갔고, 다른 사람은 낙원에 갔어요.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나요?

한 사람은 구원자이신 왕을 믿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은 그분을 믿었지요.





장면 63 마지막 제물

한 낮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지 이미 세 시간이 지났어요. 어두운 구름이 몰려왔어요. 낮이 밤처럼 되었어요. 두려워진 구경꾼들이 흩어졌어요. 기분 나쁜 침묵이 언덕에 가득 찼어요. 다시 세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외치셨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마태복음 27:46 우리말성경)

십자가 제단에 못 박히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떨어지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어두움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다가 그 거룩하신 아들에게 지우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지워졌을 때, 하늘의 하나님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기(하박국 1:13 우리말성경) 때문에 눈을 돌리셔야만 했어요. 장장 세 시간 동안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번제물에 불같이 쏟아졌어요. 제단 위에서 희생된 어린양처럼, 하나님의 어린양은 하늘과 땅 사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있는 십자가 위에 매달리셨어요. 영원하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잠간동안 지옥을 겪으셔서 우리가 영원히 지옥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다 끝났어요.

죄인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신이 받으셨고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이루셨다는 것을 아신 예수님께서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후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떠나가셨습니다(요한복음 19:30)

바로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쪽으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흔들리며 바위가 갈라졌습니다(마태복음 27:51 우리말성경)

수백 년 동안 어린양들이 죽임을 당해 성전 제단에서 태워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해마다 죄를 가리기 위해 피가 뿌려지던 특별한 방을 가렸던 휘장을 하나님께서 찢어 여셨어요. 휘장을 찢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 **다 이루었다! 죄 값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나의 어린양이 온 세상 죄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렸다. 나는 더 이상 죄를 위한 짐승의 피를 받지 않겠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 마지막 제물이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늘나라의 문이 활짝 열려있다!**(신약성경 히브리서를 보세요.)

이보다 칠백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가 찢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방황하여 각기 제 길로 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넘겨씩으셨다(이사야 53:5-6 바른성경)

이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장면 64

무덤에 묻히신 왕

나 사렛 예수님이 죽었어요. 한 군사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어요.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제자들의 희망도 사라져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로마제국을 무너뜨리고 이 땅 위에 그분의 왕국을 세우실 거라고 생각하던 제자들은 삼일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난다고 하신 약속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어요.

십자가형을 당한 죄인의 시체들은 일반적으로 성 밖에 있는 쓰레기 버리는 곳에 던져 버리거나 공동묘지로 가게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시체는 그렇지 않았어요. 칠백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했어요.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이사야 53:9 개역개정)

하나님께서서는 그 아들이 영예로운 무덤에 묻히도록 계획하셨어요.

날이 저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한 부자가 왔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하자 빌라도는 내주라고 명령했습니다(마태복음 27:57-58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죽기 전, 아리마대 요셉과 그의 친구 니고데모는 그분의 숨은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것을 본 이후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닦고, 몰약 35 킬로그램과 함께 깨끗한 세마포로 싸어요. 몰약은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것과 같은 값비싼 방부처리용 향료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시체를 요셉의 새 무덤에 놓았어요. 무덤 입구를 커다란 돌을 굴러 막은 후에 집으로 갔어요.

이것은 왕에게 걸맞은 왕실 장례식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갔어요.

“총독 각하, 저 거짓말쟁이가 살아 있을 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기억납니다. 그러니 3일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 놓고는 백성들에게 ‘그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났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번의 마지막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빌라도는 “경비병들을 데려가 무덤을 지키게 하라.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단단히 무덤을 지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서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세워 무덤을 단단히 지키게 했습니다(마태복음 27:63-66 우리말성경)

한편, 무덤 안에서는 예수님의 시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장면 65 빈 무덤

아담이 죄를 지은 날 이래로 죽음은 잔인한 왕처럼 사람들 위에 군림해왔어요. 만약 예수님이 죄를 지은 적이 있었다면 죽음이 그분의 시체도 썩고, 악취가 나고, 천천히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 거예요. 하지만 1,000년 전에 선지자 다윗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주께서...주의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사편 16:9-10 우리말성경)

죽음과 무덤은 결코 죄를 짓지 않은 분에게는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묻힌 지 삼일째 되는 날, 이른 일요일 아침에, 몇 명의 여인들이 경의를 표하려고 무덤에 왔어요. 갑자기 큰 지진이 있었고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돌을 옆으로 밀어 놓고 그 위에 앉았어요. 군사들은 기절했는데, 그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찾고 있는 것을 안다. 예수께서는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여기 와서 예수께서 누워 계셨던 자리를 보라. 그리고 빨리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그곳에서 너희가 예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라....”

그러자 여인들은 서둘러 무덤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에 가득 차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뛰어갔습니다.

그때 갑자기 예수께서 여인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하나?” 그들은 예수께 다가가 예수의 발을 붙잡고

예수께 절했습니다(마태복음 28:5-9 우리말성경)

한편, 군사들은 성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 했어요. 그러자 그 지도자들은 아주 많은 돈을 군사들에게 주면서 말했어요.

“‘예수의 제자들이 밤중에 와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 시체를 훔쳐 갔다’ 고 말하라.”(마태복음 28:13 우리말성경)

하지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진실을 숨길 수는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 주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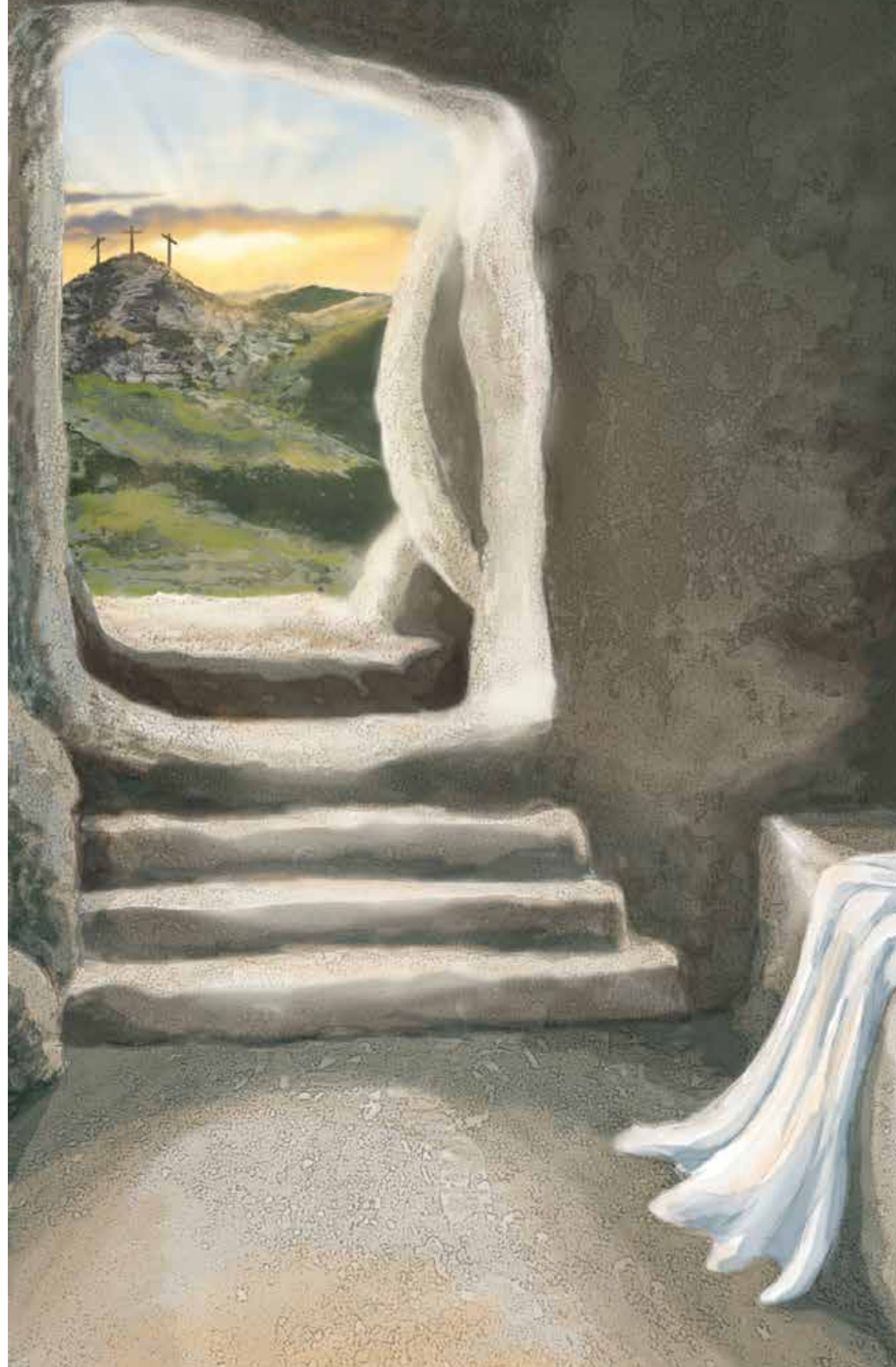
무덤에 묻히심으로, 예수님은 죽음과 썩음의 구렁이에 내려가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고 지금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 있는 자다. 나는 죽었었으나 보라, 나는 영원토록 살아 있는 자니 나는 죽음과 음부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다.”(요한계시록 1:17-18 우리말성경)

이 좋은 소식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은 단지 왕이 계신 곳으로 들어가도록 열린 문일 뿐이에요. 왕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요한복음 14:19 우리말성경)





장면 66

선지자들이 말해준 것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날에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여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열 두 제자들에게...

그 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당신들이 걸어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 섰습니다. 그 가운데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다녀오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यो?”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누가복음 24:13, 15-19 쉬운성경)

그 여행자들은 나사렛 예수님이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실 메시야가 되어 주시기를 바랐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무덤이 비어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예언자를 들어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고 했던 엠마오 마을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그 곳보다 더 멀리 가려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와 함께 묵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머무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순간, 예수님께서서는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누가복음 24:25-32 쉬운성경)

그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제자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주님께서 살아 계세요! 그분은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예요! 그분이 제사들에 예표 된 어린양이에요! 그분이 바로 주 하나님이세요!

마침내 선지자들이 전해준 말이 다 이해되었어요.

완전하게 이해되었어요.





장면 67 변화된 몸

일요일 저녁이었어요.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함께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방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요한복음 20:19-20 우리말성경)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는 그날 저녁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어요.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돼라.”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요한복음 20:24-29 우리말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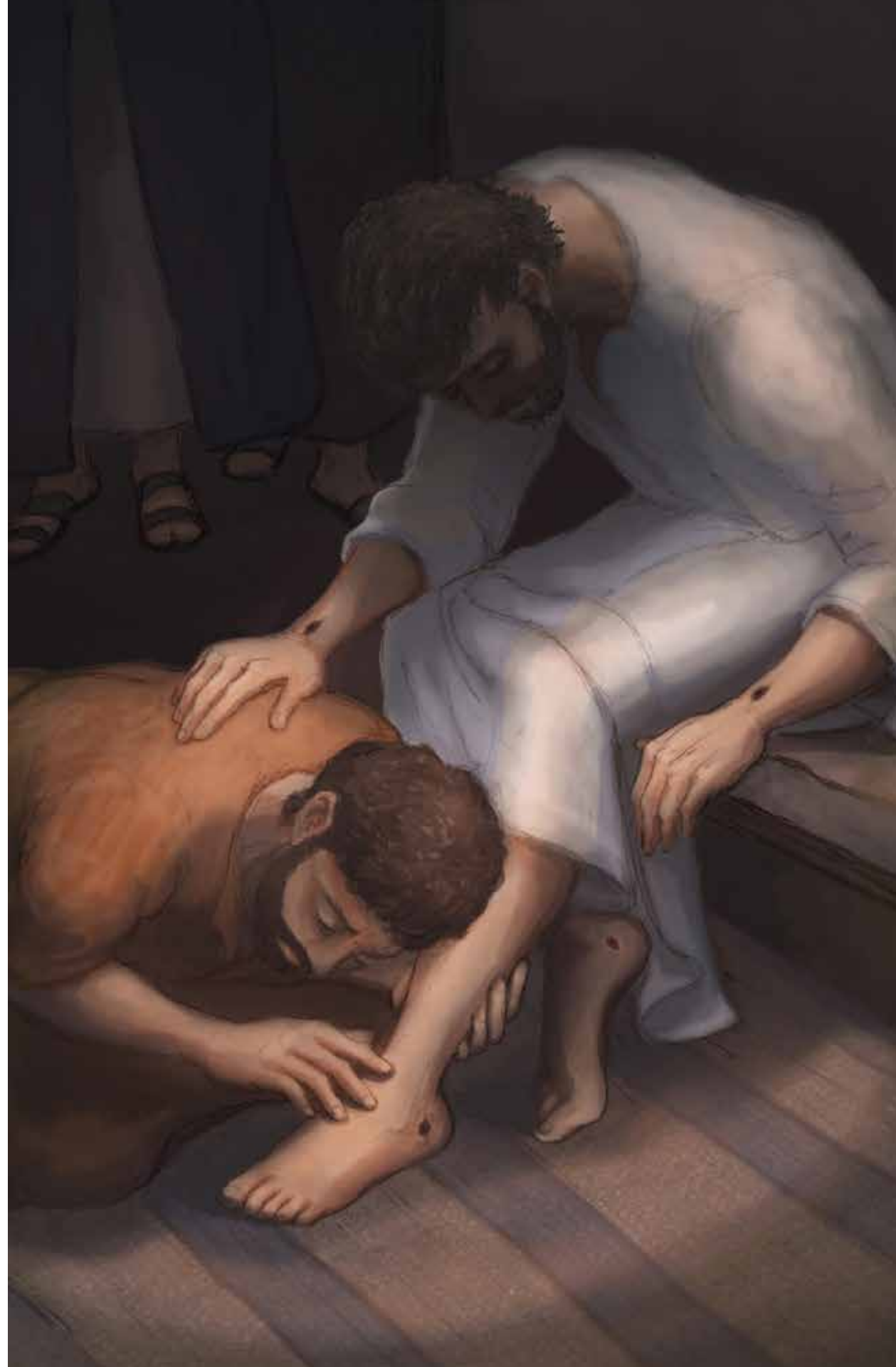
그 후 사십 일 동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야기를 하시고는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벽을 통과하기도 하고 생각하는 속도만큼 빨리 이동할 수 있었어요. 그런 몸을 가지신 것은 예수님이 처음이지만 마지막 분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흠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으니 한 사람으로 인해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옵니다. 곧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고린도전서 15:49, 21-22 우리말성경)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자격을 결코 얻을 수 없는 쓸모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나요?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 나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음을 이기신 것을 믿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더 이상 *아담*에게 속해 있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님 안에서* 의로운 사람으로 보고 계세요. 언젠가 여러분도 주님의 몸처럼 변화된 몸을 받게 될 거예요.

물론 못 자국은 없을 거예요.





장면 68 떠나심

아담이 사탄에게 잃어버렸던 지배권을 예수님이 되찾으셨어요. 예수님은 마귀와 귀신들, 바람과 파도, 질병과 배고픔, 죄와 죽음을 다루는 전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통제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종교지도자들과 군사들이 그분을 붙잡아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그분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²¹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마태복음 28:18-20 우리말성경)

또한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복음 13:34-35 우리말성경)

예수님이 부활한지 사십 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을 예루살렘 밖에 있는 감람산으로 불러 모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사도행전 1:7-12 우리말성경)

한편, 하늘에서는 이제 왕께서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실 때가 되었어요(시편 8:5; 히브리서 2:9 현대인의 성경).





장면 69 승리의 기념식

그 웅장함을 상상해 보세요. 색깔들. 음악. 열광. 수십억이 넘는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께서 돌아오고 계셔! 그런데 모습이 달라지셨을 거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영원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거래!**

하늘 도성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갑자기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침묵이 깨지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 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시편 24:7-8, 10 우리말성경)

하늘의 떠나갈 듯한 찬양과 함께 문들이 활짝 열리자 승리자이고 어린양이며 전쟁에 상처를 입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이 경배하는 군중들 사이로 걸어서 아버지의 보좌까지 나아오셔서 돌아서서는 값 주고 산 아담의 자손들을 대면하시고 앉으시자,

사명이 완수되었어요.

이 후에, 하늘의 시민들은 사랑하는 왕께 이 새 노래로 노래해요.

“주는...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셨고”(요한계시록 5:9 우리말성경)

그리고는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요한계시록 5:12 우리말성경)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자손들 대부분이 죄와 죽음으로 저주받은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요한복음 14:1-3, 6 우리말성경)





장면 70 다시 오시는 왕

세상은 헛된 추구와 거짓 종교들로 분주하지만, 이러한 때에 영광의 왕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거예요. 천한 당나귀를 타시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시거나 가시관을 쓰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부활하신 왕께서 요한이 그 미래의 날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베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9:11-14, 16 우리말성경)

왕께서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 노릇 하실 것이다.”(요한계시록 11:15 우리말성경)

왕의 원수들은 그분 앞에서 사라져 버릴 거예요. 왕께서 사탄을 결박한 다음, 이 지쳐버린 세상에게 의로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 때가 이 땅의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받으실 것이다(스가랴 14:9 우리말성경)

심판의 날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의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 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 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다니엘 7:9-10 우리말성경)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은 “불타는 유황 못에 던져”질 거예요(요한계시록 20:10 우리말성경). 결국 뱀의 머리는 영원히 부숴져 버릴 거예요.

빛의 왕국의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요한계시록 21:1, 2-4 우리말성경)

결국, 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마태복음 6:10 바른성경)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인가요? 여러분은 영광의 왕께 엎드려 절한 적이 있나요?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신가요?





마치기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 영광의 왕, 예수님 (요한복음 5:24)

참빛이 되신 말씀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통하여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 복음서 (요한복음 1:10,12)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고요?

예 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행복한 결말이 있는 사랑과 구원에 관한 이야기들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은 유일하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악에서 건짐받아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은 갈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영광의 왕이 하신 이야기는 사람들이 지어낸 상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어낸 이야기는 40명의 선지자들에 의해 1500년 이상 걸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책은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소설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고고학적인 증거들에 의해 증명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렇게 확인되었어요.



지어낸 영웅은 역사를 나누는 기점이 되지 않지만 예수님은 역사를 나누는 기점이에요. 공상소설은 우리의 죄와 부끄러움을 없애주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며,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강으로 가득찬 새로운 마음을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선지자들의 성경을 다 이루셔서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의 창조주-왕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분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담이 이 땅의 동산에서 사는 것에 관해 한가지 분명한 법을 주셨던 것처럼, 아담의 후손들이 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서도 한가지 분명한 법을 세우셨습니다.

깨끗하지 못하고 부끄러운 것이나 거짓말한 자들은 이 성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요한계시록21:27)



어린양의 생명책은 아담이래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기록된 천국 등기부입니다. 영광의 왕께서 여러분을 사탄, 죄, 죽음과 지옥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하신 일과 그분 자신을 믿으라고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에게 강요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분의 왕국에는 마지못해 있는 백성들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왕은 아무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책을 끝내시면서 초청과 경고 그리고 약속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생명수를 마음껏 마시십시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다른 것을 덧붙이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신 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요한계시록 22:17-20)

아담이 죄를 지은 후, 하나님께서 동산에 오셔서 아담을 부르실 때 아담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지요? 아담은 부끄러워하며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습니다”(창세기 3:10)

그런데 지금, 아담의 후손 중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세상에 다시오신다는 약속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들은 기뻐하며 대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요한계시록 22:20)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심판자 앞에 서는 것을 더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걸까요? 왜 그들은 왕을 대면하게될 때를 들뜬 마음으로 기다리나요?

그것은 그들이 그분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믿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기록하기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1, 6)

이사야는 왕의 이야기와 메시지를 세 개의 글로 요약했습니다.



1.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길을 따르느라 하나님의 길을 떠났습니다.”



2.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3. 우리는 선택을 해야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러분은 왕을 믿나요?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한1서 5:9-13)

그렇지요, 여러분은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왕은 여러분이 그냥 추측만 하도록 놔두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인간의 종교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영원히 행복하게 말이에요.

나쁜 소식

우리가 왕의 책 시작 부분에서 읽은 것처럼, 우주의 왕께서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들은 그분의 소중한 보물이고, 가까운 친구이며, 그의 빛의 나라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었지요. 그러나 먼저 시험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에게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한 작은 시험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이 이 법을 어기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나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기도문을 외우거나 금식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한 만큼 착한 일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2:17)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요. 인간은 창조주이신 왕에게 불순종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날 죽었나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그것을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무엇을 뜻하나요?



그림을 보세요. 나뭇가지에게 무슨 일이 있나요? 나뭇가지가 부러지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살 수 있나요? 아니면 죽나요?

나뭇가지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근원에서 분리 되었기 때문에 죽을 거예요.

죽음의 의미는 분리입니다. 이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했을 때, 그들과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거예요. 나무에서 잘려진 가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는 분리되었어요. 그들은

더이상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숨으려 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다만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을 갈라 놓은 것이며, 너희 죄 때문에 주께서 너희에게 등을 돌리셨고, 너희 말을 들어 주지 않으신 것이다(이사야 59:2)



또한 아담과 하와는 신체적으로도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부러진 가지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이 바로 말라버리지 않는 것처럼 범죄한 바로 그 날 그들의 몸이 흙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늙어가기 시작했지요. 그들은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나쁜 소식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 않으신다면, 아담과 하와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마태복음 25:41)에 들어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야 했지요.

어떤 사람들은 죄로 더럽혀진 영혼들이 영원히 격리되는 불못인 지옥이라는 개념을 조롱합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조롱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사람인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조차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노아가 방주를 짓고 다가올 홍수에 대해 사람들에게 경고할 때에도 그들은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방주의 문이 굳게 닫히고 홍수가 나자, 사람들은 그들이 조롱하던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이와 같이 오늘날 사람들도 지옥에 들어가게 될 때에야 그 심각한 논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데살로니가후서 1:9)

왕은 죄가 그분의 세계를 영원히 더럽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죄는 이 세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힘으로 엄청난 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재앙입니다. 죄는 모든 악의 근원이지요.



아담의 죄는 전염병처럼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부러진 나뭇가지에 붙은 각각의 잔가지와 잎사귀가 죽었듯이 우리 각자도 아담의 죄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이라는 나뭇가지의 각 부분입니다.



한 사람(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로마서5:12)



모세의 시대로 돌아가보면, 당시 사람들도 지금 사람들처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자비를 베푸실거라 기대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시려고 시내 산에



타오르는 불가운데 내려오셔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십계명을 모두 완벽하게 지키지 않는다면, 죄가 있어 죽어 마땅하다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십계명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여러분의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을 볼 수 있게 하지만, 거울이 더러운 것을 없애주지는 않아요. 이처럼 계명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계명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에서 살만큼 의로운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벽한 구원자가 필요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23 쉼성경)

나쁜 소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좋은 소식은 역사 가운데 그 기준에 달하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것이구요.

그분의 이름은 예수님이예요.

좋은 소식

여호와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공의는 나의 죄에 대해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벌이 완전히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자비는 율법이 요구하는 형벌을 나에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벌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 답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인들을 구하시기 위해 **속죄제에 대한 법**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값으로 죄없는 동물의 피를 받으셨지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벌하지 않으시면서 죄를 벌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린양 한마리가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공평한 것인가요? 아니에요. 동물의 피는 단지 공의가 정말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그림일 뿐이에요.

어떤 피가 세상의 모든 죄의 값을 갚을 수 있었을까요? 오직 완전하고 영원한 사람의 피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14)



어린양들이 흘렸던 피는 단지 죄를 가리는 것 뿐이었어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 (요한복음 1:29)이십니다.



아벨을 기억하지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죄를 어린양에게 옮기셨어요. 어린양은 아벨의 죄를 임시로 맡은 것이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짊어지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게 하셨어요.



어린양은 아벨을 대신하여 죽어 재가 되도록 태워졌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모든 형벌을 받으신 것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죽으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요한복음 19:30)고 승리를 외치신 거예요.

공의가 만족되었어요. 자비도 이루어졌구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말씀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그리스도께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것과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삼 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과

(고린도전서 15:2-4 쉬운성경)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을 생각해봅시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산으로 보내 제사를 드리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께서 세상 죄를 대신해 죽으러 가실 바로 그 장소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왜 그 산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산이라고 불렀을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산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인 제물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었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 무엇을 예비하셨나요? 솜양이에요. 여러분을 심판에서 구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어린양이에요.



여러분은 죽음과 심판이 두려운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완전히 신뢰한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 값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치르셨고,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볼까요. 그들은 죄와 부끄러움 때문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했어요. 공의로움과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을 드러내었고, 동물들을 희생시켜서 그 가죽으로 그들에게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동물들이 흘린 피는 그들의 죄를 가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나타내 주고, 동물들의 가죽은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지 나타내 주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조상들의 죄와 수치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이르지 못해요.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만큼 의로운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수치를 십자가로 가져 가셨다는 거예요. 그 어둠의 시간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그분은 죽으셨어요. 주님은 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무덤에 묻혀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옷을 입혀 주셨어요. 여러분의 죄악을 주님의 의로움으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로 더러워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의로운 행동도 더러운 옷과 같고, 죽은 앞사귀 같습니다(이사야 64:6 쉬운성경)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이사야 61:10)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린도후서 5:21)



심판날에 여러분은 종교적인 노력이라는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설 건가요?

아니면 순수한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라는 옷을 입고 설 건가요?

왕께 드리는 답변

외 딴 숲을 혼자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은 누구를 만날 것 같나요? 양일까요 아니면 사자일까요?



영광의 왕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왕*이라고 불렸어요.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왕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자*로 불릴 거예요. 그분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준엄한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세주이신 왕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까요? 아니면 심판자이신 왕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될까요?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어요.

예수님께서 다니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실 때 처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마가복음 1:15)

“회개”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에 대해 *마음을 바꾸는 것*을 뜻해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을 말해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여러분에게 새생명을 주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를 *믿으라*는 의미예요. 누군가를 믿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제가 서 아프리카에서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예로 들어볼게요. 파투와 빈투라는 두 여자의 이야기예요.

두 여자는 모두 심한 눈병에 걸렸어요. 파투는 병원에 갔지요. 의사는 항생제가 들어있는 안약을 주었어요. 파투의 눈은 다 나아왔어요. 빈투는 민간요법을 쓰는 치료자에게 갔어요. 그는 그가 쓰는 “약”으로 빈투의 눈을 문질러 주었어요. 빈투의 눈은 하얗게 변하여 결국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파투와 빈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두 여자가 자기들이 믿고 있던 치료자에게 간 것은 둘 다 자기들의 믿음에 따라 행동한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영원을 맞이할 때가 되면 모두들 어떤 것이나 또는 누군가를 의지해요. 많은 사람들은 조상들이 따르던 종교에 희망을 걸어요.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삶이 끝난다고 말하는 사람들 편에 서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삶과 죽음과 영원에 대한 자기들의 생각을 떠올리지요. 결국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여러분은 진리를 선택했나요?”

저는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저는 왕을 의지해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요한복음 18:37)

그분은 제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 분이예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분이예요(갈라디아서 2:20).

그분은 *그냥* 왕이 아니예요. 그분은 *나의* 왕이세요!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어요. 그 형상은 죄 때문에 망가졌지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골로새서 1:15)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고 오셨어요.



여러분이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여러분을 *아담* 안에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의 피로 사신 소중한 보물이예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로 태어난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특권에는 큰 책임이 뒤따르지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베드로전서 1:14-15)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므로 모든 사람들,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5)

여러분이 주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이 복음을 믿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주 예수님의 영이 여러분을 도와서 죄를 이기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게 하실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라디아서 5:22-23)

왕의 자녀인 여러분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예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에 보내진 왕의 대사예요. 왕을 제대로 대신해주세요. 어느날, 여러분은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분과 같게 될” 거예요(요한일서 3:2). 그때까지 항상 그분과 이야기하세요. 어떤 상황이라도 그분을 찬양하세요.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분을 예배하고 섬기세요. 날마다 성경을 공부하세요(누가복음으로 시작해서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성령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이세요. 성경은 여러분의 영의 양식이고 사탄을 대적할 무기예요. 사탄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수록 여러분은 영적으로 더 강해질 거예요.



저는 시편에 있는 이 그림 같은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시편 42:1)

여러분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폴 D. 브람슨



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 신약성경에서
(에베소서 2:8-10; 로마서 5:1-2)

이 목록은 70개의 장면마다 한 두 개의 질문을 제공하고 있어요. 해답은 해당 장면의 내용에 들어있어요. 이 질문들은 자유롭게 복사해서 그룹 토의에 사용할 수 있어요. 더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www.one-god-one-message.com으로 오세요.

장면 번호 • 질문

- 1 • 영광의 왕께서는 수 천 년이 걸려서라도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이것이 왕에 대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2 • 성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그 두 부분은 어떻게 다른가요?
- 3 • 여러분은 성경의 첫 번째 구절(창세기 1:1)을 믿나요?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4 • 하나님은 홀로 계실 때에도 하나님은 절대 혼자가 아니셨다는 말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 5 •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나요?
- 6 •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동물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말해보세요.
- 7 •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동산에서 살고 싶은지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 8 • 죄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규칙을 어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셨나요? 죽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 9 • 아담처럼 하와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 10 • 천국에서 가장 매력적인 것은 무엇인가요?
- 11 •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나요?
- 12 • 여호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나요? 사탄은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했나요?
- 13 • 죄가 어떻게 이 가족에게로 들어왔나요?
- 14 • 죄의 첫 번째 결과는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부끄러움이 영광을 대신하게 만들었나요?
- 15 • 어떻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죄를 지은 날 죽은 게 되었나요? 어떻게 그들이 굶어 버린 나뭇가지처럼 되었나요?(160쪽을 보세요)
- 16 • 죄의 저주가 처음 세상을 망가뜨려 놓은 몇 가지를 말해 보세요.
- 17 • 하나님의 비밀스런 계획에 여자의 후손(사람 어머니는 있지만 사람 아버지는 없는)으로 태어나실 구세주가 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 18 • 아담과 하와의 죄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공의와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나요?
- 19 • 하나님은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셨나요?
- 20 • 아담과 하와의 죄는 어떻게 그들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쳤나요? 또한 우리와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나요?(161쪽을 보세요)
- 21 • 하나님께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려고 받으시는 양은 어떤 양인가요?
- 22 • 속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왜 하나님은 죽음으로 그 값을 받으실까요?
- 23 • 하나님은 아벨의 죄를 어떻게 하셨나요?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무엇이 문제였나요?
- 24 •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하나님은 가인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지요? 가인은 무엇을 했나요?
- 25 • 노아 시대에 있었던 전 세계적인 홍수를 통해 하나님의 인내와 심판에 대해 교훈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26 • 노아와 그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 27 • 바벨탑은 어떤 면에서 잘못된 종교에 대해 설명하고 있나요?
- 28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신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 29 •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셨나요?
- 30 • 아브라함의 아들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산에 올라갈 때 아버지에게 무엇을 물어보았나요?
- 31 • 하나님은 이삭을 새로운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삭을 제단에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 생각했나요?
- 32 • 아브라함은 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곳”이라고 불렀나요? 그 날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어린양이 죽었나요?
- 33 •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두 가지 큰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나요?
- 34 •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만큼 충분히 선행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십계명이 거울과 같나요?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십계명이 어떻게 알려주고 있나요?
- 35 • 동물로 드리는 제사로는 온 세상이 진 죄의 빛을 갹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36 • 두루마리에서 예언 하나를 골라서 그것이 어떻게 오실 구세주를 가리키고 있는지 말해 보세요.

- 37 • 하나님은 왜 한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을 사용하여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를 기록하게 하셨나요?
- 38 • 천사 가브리엘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나요?
- 39 •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가요?
- 40 •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서 제일 좋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 41 •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라고 말했어요. 목자들은 이 소식을 듣고 왜 기뻐했을까요?
- 42 •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것은 옳은 일이었나요? 왜 그런가요? 아니라면 왜 그렇지 않은가요?
- 43 •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달랐나요?
- 44 • 선지자 요한의 메시지는 앞선 모든 선지자들과 어떻게 달랐나요? 요한은 왜 예수님을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라고 말했나요?
- 45 • 이 장면을 다시 한 번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에 대해 성경에서 알게 된 것을 말해 보세요.
- 46 • 사탄은 왜 예수님이 죄를 짓게 하려고 애를 썼나요?
- 47 • 예수님은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 읽으신 후에, “오늘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왜 이웃들을 화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나요?
- 48 • 예수님은 어떻게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팔이셨나요? 왜 귀신들은 예수님을 두려워했나요?
- 49 • 예수님께서 폭풍에게 명하여 “고요하라! 잠잠하라!”고 명령하시자 제자들은 “도대체 이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가?”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 50 • 율법학자들은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비난했나요?
- 51 •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52 • 다음 날 음식을 좀 더 얻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 53 • 이 장면을 다시 보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웠던 것 한 가지를 말해 보세요.
- 54 •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의의 태양”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어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어떻게 달랐나요?

- 55 • 제자들은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나요? 메시아는 무엇을 하려고 오셨나요?
- 56 • 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강한 전투마 대신 초라한 나귀를 타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57 • 종교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의 말씀에 트집을 잡을 수 없었나요?
- 58 • 대제사장과 유대 지도자들은 왜 예수님이 사형 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나요?
- 59 • 빌라도는 왜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나요?
- 60 •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눌러 씌웠어요. 가시는 무엇을 생각나게 해주나요?
- 61 • 아브라함의 예언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나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가 있나요?
- 62 • 두 죄수가 예수님 곁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늘 한 사람은 (주님에게서 영원히 분리될) 지옥에 가고 다른 한 사람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천국에 갔어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나요?
- 63 • 주 예수님이 어둠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예수님께 무엇을 지우셨나요? 왜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셨나요? 왜 하나님은 성전의 휘장을 찢으셨나요?
- 64 •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했나요?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했나요?
- 65 • 일요일 아침 여자들이 무덤에 갔을 때 무엇을 보았나요? 종교 지도자들은 그 빈 무덤에 관해 어떤 일을 했나요? 만일 내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을 완전히 믿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 66 • 엠마오로 가는 두 여행자에게 주 예수님께서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67 • 부활하신 구원자께서 방에 나타나셨을 때,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주시며 내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그의 주시며 그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것은 옳은가요 아니면 잘못된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68 •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늘로 돌아간 후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나요?
- 69 • 영광의 왕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은 그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 70 • 왕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은 행복할까요? 두려울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림 뒷 이야기: ¹이상의 나라의 엘리스는 약 200개 정도의 언어로 번역되었지만, 성경은 전체번역과 부분번역을 합하면 2,5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어요.

²성경은 고고학, 일반 역사, 예언의 성취 그리고 거의 2,000년 이상 걸쳐서 기록되어 내려온 다양한 이야기들이 완벽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의해 증명되었어요.

장면 2: ³왕은 우주의 창조자이고 유지자일 뿐만 아니라 그분의 책의 저자이며 보호자세요. 사해 사본은 오늘날 사용하는 구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시대 전에 존재했던 성경과 일치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이후 초기 몇 세기에 기록된 수천 개가 넘는 고대 필사본들을 통해 증명되었어요. 원전(original texts)이 사람들에게 의해 조작되고 변질되었다는 일반적인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One God One Message 책의 3장을 보세요. www.one-god-one-message.com

장면 5: ⁴육일 동안의 창조에서 보여진 하나님의 속성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싶다면, One God One Message 8장을 보세요.

장면 6: ⁵하나님께서는 한 분이신데 왜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답은 하나님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엘로힘(Elohim)인데, 이것은 복수 명사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구절에서 “하나”라는 단어는 에차드(echad)인데 이것은 복합적인 개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들이나 인간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신 아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를 나누셨어요.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선지자 욥기 36:26)

장면 7: ⁶몸을 이루고 있는 동일한 화합물질들이 지구의 흙 속에 모두 있어요. 이것은 최근에 과학에 의해 인정된 사실이에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관찰과 이론(인간의 생각)에 자기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관찰과 계시(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지식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장면 11: ⁷사탄의 기원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One God One Message 11장을 보세요.

장면 16: ⁸만약 불의 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과 인간의 영원성, 죄의 심각성, 영원의 개념에 대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영원이라는 말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우리는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원은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분은 시간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으세요(베드로후서 3:8-9). 영원은 몇 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영원은 영원한 지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죄인들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중대한 이론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장면 17: ⁹구속이라는 말은 요구하는 값을 지불하고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One God One Message의 18장에서 저자는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통해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소년시절 캘리포니아에서 살면서 작은 개 한 마리를 키웠어요. 나는 그 개를 먹이고 돌보며 함께 놀았어요. 그 개는 늘 나를 따라다녔고 내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면 기쁘게 반겼어요. 그런데 그 개는 가끔 옆 동네를 돌아다니는 못된 버릇이 있었어요. 하지만 항상 다시 돌아오곤 했어요. 그 날까지는 말이에요.

내가 학교에서 집에 돌아왔는데 개가 저를 반기려 나오지 않았어요. 잘 시간이 되었지만, 어디서도 개를 찾을 수 없었어요. 다음날 아버지는 지역 동물 보호소에 전화해 보라고 했어요. 그곳에는 길 잃은 개나 고양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얼마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 동물들은 안락사를 시켰어요.

나는 보호소에 연락을 했어요. 내가 설명하는 것에 딱 맞는 작은 개 한마리가 있다고 했어요. 떠돌이 개를 잡는 공무원이 잡아 온 거예요. 그 개는 스스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누군가가 구해주지 않으면 그 개는 죽게 될 거예요.

나는 보호소에 갔어요. 우리 개를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안내 창구의 직원이 그 개를 돌려받으려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개를 제멋대로 돌아다니게 두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어요. 요구한 값을 내자 개를 풀어 주었어요. 그 개는 그 끔찍한 우리에서 벗어나 자기를 돌봐 주는 주인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너무 기뻐했 거예요! 그 개는 구속받았어요. 결길로 갔던 개를 다시 샀던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은 우리들이 놓여 있는 형편에 대해 어렵פות한 개념을 제공해 주었어요. 우리는 반역하여 저주받은 죄인이기에 죄의 형벌과 죄와 죽음의 법에서 자신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죄의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필요해요.

장면 23: ¹⁰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와 솔로몬 그리고 엘리야 시대에 하신 것과 같은 방법으로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레위기 9:24; 역대하 7:1; 열왕기상 18:38)

장면 30, 장면 61: ¹¹모리아는 여호와께서 선택하셨다는 뜻이에요. 이곳은 나중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진 지역이에요. 오늘날 모리아 산은 솔로몬의 성전이 서 있던 곳이에요(역대하 3:1). 이 산의 경계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해골이라 하는 곳”(누가복음 23:33)이 있어요.

장면 36: ¹²예언 성취는 성경이 세상의 모든 책과 다른 점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은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증명하신 방법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이사야 46:10)실 수 있는 있는 분이예요. 메시아 예수님은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둔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요한복음 13:19)고 말씀하셨어요. One God One Message의 5장을 보세요.

장면 41: ¹³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인데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선택된 자라는 뜻이에요.

¹⁴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의 연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지자 아브라함은 주전 약 2,000년(그리스도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이 책(영광의 왕)은 주후 2011년에(그리스도가 태어난 지 2000년이 더 지나) 쓰여졌어요. 영어로 AD는 아노 도미니(Anno Domini, 우리 주님의 해라는 라틴어)의 약자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약자에서 그리스도의 의미를 빼기 위해 BCE(Before Common Era, 서기 전)과 CE(Common Era, 서기)라고 쓰기도 하지만,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장면 43: ¹⁵“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나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마가복음 6:3) 요셉은 예수님의 친 아버지(낳아준 아버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머니 쪽으로만 형제자매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Son of God)이자 사람의 아들(Son of Man, 인자)이셨어요. 주 19를 참조하세요(장면 52).

장면 43, 장면 58: ¹⁶매년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에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할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기념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은 어린양을 죽여 집의 문설주에 그 피를 발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출애굽기12:13)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한밤중에 여호와 하나님은 문설주에 어린양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모든 집의 장자들을 죽이셨어요.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400년 동안 노예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들을 구해내셨어요.

장면 45: ¹⁷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하나는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삼중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간은 길이, 넓이, 높이. 사람은 영, 혼, 육. 원자는 전자, 양자, 중성자. 태양도

셋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별을 태양이라고 하고, 그 빛도 태양이라 하며, 그 열기를 또한 태양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태양은 하나이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원하신 아버지, 영원하신 아들, 영원하신 성령님이세요. 빛과 열이 태양에서 나왔듯이, 하나님의 아들(말씀)과 하나님의 성령님은 하나님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세요 (신명기 6:4 개역한글). 장면 4와 주 5(장면 6)를 보세요. 하나님의 복합적인 모습과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것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One God One Message의 9장과 17장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을 읽어 보면 더 좋아요.

장면 47: ¹⁸메시아는 선택받은 자, 문자 그대로 한다면 기름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고대 동방에서 새로운 왕이 취임을 하면,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그가 왕국의 새로운 통치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의 머리에 특별한 위임식 기름을 부었어요. 예수님은 이 기름부음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고 성령님에게서 받으셨어요(장면 45를 보세요).

장면 52: ¹⁹예수님은 종종 자신을 인자(사람의 아들)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아들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말씀이에요(요한복음 1:2; 창세기 1:3). 하지만 사람의 아들로서 그분은 육체가 되신 말씀으로서 세상의 구원자-심판자-왕으로서 하나님께 선택된 분이세요(요한복음 1:14; 다니엘 7:13-14).

장면 56: ²⁰바리새인들은 한 열성적인 유대교 분파의 일원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루에 여섯 번씩 기도를 하고, 일 년에 삼 개월을 금식하며,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기가 번 돈의 십분의 일을 드렸어요 (누가복음 18:9-14).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공허한 의식일 뿐이에요. 그들은 종교적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았어요.

장면 68: ²¹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니에요. 침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에 연합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침례는 옛 생활이 끝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어요.

²²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늘로 가신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령님이 복음을 믿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의 마음에 살기 위해 내려오셨어요. 신약성경의 사도행전에는 어떻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러 나라에 예수님의 성품과 메시지를 전달하게 하셨는지 그 멋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방법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며, 죄의 형벌에서 자신을 구할 수 없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받을 형벌을 받으셨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로 결정한다면 여러분도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이것은 온 우주의 왕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기 위해 오신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주인이요,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어주실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구원의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표시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은 모든 자들에게 큰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에베소서 1:13-14 위문성경)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왕이시며, 크고 놀라운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함께 사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곳에 있을 건가요?



영광의 왕과 같이 One God One Message도 여러분을 선지자들이 기록한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를 다른 세계관과 비교하여 더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영광의 왕에서는 공간적인 제약과 독자들의 연령적인 제약으로 다룰 수 없었던 답변들을 One God One Message에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영광의 왕은 소리 내어 읽는 데 세 시간이 채 걸리지 않겠지만 One God One Message는 대략 열 두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개인의 경험과 회의론자들에게서 받은 이메일들,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새롭게 다시 들려주는 것들을 모아, 이 책은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해줍니다.

- 저자: 폴 D. 브람슨
- 삽화: D.C. 브람슨
- 발행처: ROCK International
- 아랍어, 알바니아어, 중국어, 영어, 페르시아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터키어, 우르두어(파키스탄 공용어), 인도네시아어 등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www.one-god-one-message.com

이 책은 진리의 광산이다. 독특한 문체, 사람의 관심을 끄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 주석과 80권 이상의 책 저자

이메일을 인용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저자가 어려운 질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 Vaughan, 남아프리카의 의대 졸업생

꼭 추리 소설을 읽는 것 같았다.
— Theo, 캐나다의 독자

이 책을 읽고 성경의 논리가 이해가 되고 더 분명해 졌다.
이 책을 통해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 Mohammed, 중동지역 기자



ROCK INTERNATIONAL PRESENTS

영광의 왕 동영상(DVD)

책을 그대로 읽어줍니다

“이 영상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 엘리, 7세

“마치 내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감동을 경험했어요.” — 루디아, 21세

“단순하지만 강력하게 우주에 대한 깊은 계시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 딕, 74세

가정, 소그룹, 학교, 캠프장, 시청각실,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나라의 언어로, 모든 연령층과 모든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2부로 구성된 이야기 ~ 15에피소드 속의 70 장면들

제 1부: 구약성경: 자기 계획을 예언하시는 왕		1 시간 47 분
1. 들어가기	장면 1-3	~ 10:40
2. 창조주와 창조 세계	장면 4-9	~ 19:04
3. 악이 들어옴	장면 10-15	~ 15:10
4. 죄의 저주와 하나님의 약속	장면 16-19	~ 11:57
5. 제사하는 방법	장면 20-24	~ 14:58
6. 사람의 반역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장면 25-27	~ 9:05
7. 진행되는 하나님의 계획	장면 28-32	~ 14:04
8. 율법과 선지자들	장면 33-36	~ 12:20
제 2부: 신약성경: 자기 계획을 이루시는 왕		1 시간 55 분
9. 왕의 오심	장면 37-42	~ 20:16
10. 왕의 성품	장면 43-47	~ 15:32
11. 왕의 통치권	장면 48-51	~ 14:02
12. 왕의 사명	장면 52-56	~ 15:24
13. 왕의 굴욕	장면 57-61	~ 14:50
14. 왕의 희생과 승리	장면 62-65	~ 13:53
15. 왕의 복음과 영광	장면 66-70	~ 18:26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아랍어 찬양)		만든 사람들 ~ 2:45

www.king-of-glory.com